장편소설

풍운의 5세

제 3 부

장 수 봉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

장 편 소 설

풍운의 5세

제 3 부

장 수 봉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

차 례

제5장 1926년 가을(2)…… (2)

종 장 1950년 7월 창덕궁…… (92)

제 5 장

1926년 가을(2)

1

명동의 《랑화헌》이라는 당구장은 남촌의 왜놈불량패의 하나인 후꾸다패의 소굴이다.

지금 그곳의 어느 구석진 방에서는 왜놈불량배 여럿이 이마빼기를 맞댄채 화투질에 여념이 없었다.

자욱한 담배연기와 술내, 마구 나딩구는 빈 술병이며 락화생껍질따위들로 투전방은 돼지굴처럼 지저분한데 손바닥이 한번 엎치락뒤치락할 때마다 뻘건 지폐장들이 왔다갔다하고 씨부렁대는 왜말과 지끈지끈 화투짝 쳐갈기는 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독을 쓴다.

《이 <곰보>야, 뽑을라면 뽑구 말라면 말거지 왜 따오기 샘구멍 들여다보듯이 목만 빼구 앉아있어!》

입이 메사구처럼 유별나게 커서 《아가리》라는 별명이 붙은 녀석이 눈알을 부라리며 짜증부리는 소리였다.

패거리들속에서 《곰보》로 불리우는 사사끼는 뒤웅박 신고 얼음판에 선것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녀석의 손에 쥐여져있는것은 《매조》와 《흑싸리》였다. 두 화투짝의 끗수를 합치면 여섯끗이니 그대로 내댈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아직 패장을 하나 더 뽑을 기회가 있으니 혹 《사꾸라》가 나와 가보를 쥘수도 있지 않는가. 설사 가보는 못쥔대도 《송학》이나 《비》만 나와줘도 일곱끗이나 여덟끗이 될텐데… 한데 왕청같이 번대머리 《공산》이나 《홍싸리》가 튀여나와서 되려 끗수가 떨어지면 어쩐다?…

행여 소불알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한참이나 바재이던 사사끼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화투짝을 하나 더 뽑았다. 그리고는 먼저 집었

던 패장들과 겹쳐 눈앞에 바투 가져다대더니 주문이라도 외우듯 뭐라 중얼대며 빠드득 소리가 나게 두손으로 펼쳐본다.

다음순간 사사끼의 곰보상통이 진흙반죽처럼 일그러졌다. 이런 개똥같은 판이라구야. 안되는 놈은 두부도 목에 걸린다더니 운수 사납게도 《란초》가 붙은게 아닌가.

《빌어먹을!》

사사끼는 역정을 내며 화투짝들을 내동댕이쳤다.

《핫하하… 따라지(한끗)로구나!》

《반편같은것, 차라리 여섯끗일 때 댈노릇이지 기를 쓰구 하나 더 뽑아서 따라지를 만들어버려?…》

《멍텅구린 욕심이 많다더니 아마 가보라도 잡을가 했던거지, 킥킥…》

화투를 치던 녀석들과 곁에서 구경하던것들이 비웃음을 감추지 않으며 시시덕대는 소리였다.

사사끼의 코수염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킨다. 찢어죽일 새끼들! 늘 봐야 난데서 굴러들어온지 얼마 안된다고 자기를 얼뜨기취급하려드는 건방진 자식들이였다. 당장에라도 칼을 휘둘러 까불대는것들의 낯짝에 벗꽃을 새겨주면 씨원하련만.

사사끼는 험궂은 눈알을 살기차게 흘겨붙였다.

이번에도 판돈은 팔끗을 댄 《아가리》가 몽땅 쓸어갔다. 저 새끼 꿈에 똥 주물렀나? 어찌나 손속이 좋은지 매번 가보 아니면 여덟끗 아니야. 분명 야바위를 치는것같은데 암만 눈알을 곤두세우고 봐야 잡아낼수가 있나. 근데 난 왜 더럽게 떼우기만 하구 좀체 손속이 일지 않아? 이젠 밑천두 거덜나게 됐는데 제기랄!…

사사끼는 남비 끓듯 속이 달아와 한옆에 버려진 담배곽에 손을 가져갔다. 눅거리담배인 《마꼬》였다. 그나마 겨우 한가치가 부러진 채 남아있을뿐이다.

별수없이 간댕거리는 담배꽁댕이를 끊어 팽개치고 남은 반토막을 붙여물었다.

《<곰보>, 너야 <삐종> 아니면 안피운다는 녀석 아니야?》

《아가리》곁에 앉은 《난장보살》이 보란듯이 비싼 《삐종》 한가치를 꼬나물며 씨까부리는 수작질이였다. 거기에 곁을 다는 《아가

리》의 이기죽거리는 소리가 더욱 부아를 돋군다.

《히히… 거 뭐 굶은 개가 언똥 나무랄가.》

사사끼가 물어뜯을듯 너석들을 노려보며 씹어뱉았다.

《새끼들! 혀바닥을 짤라서 발깔개할가부다!》

또다시 화투판이 펼쳐졌다. 사사끼는 앙앙불락하며 잔뜩 도사려 앉았다.

이번에는 《아가리》가 패를 잡을 차례였다. 화투목을 잡고 능란한 솜씨로 툭툭 쳐서 뒤섞고난 그자는 패거리에게 한장씩 갈라준 뒤 자기의 패장을 뽑아보더니만 닝큼 1원짜리 지페를 앞에 꺼내놓으며 큰소리를 치는것이였다.

《한장 태웠다!》

잇달아 《난장보살》과 《털게》도 돈을 내놓는다.

《엣다, 나두 한장 태웠다!》

《나두!》

사사끼는 앉은뱅이 강 건느듯 좀자르기만 했다.

인제 1원을 꺼내놓으면 밑천은 쫄딱 들장이 나고만다. 밑천이 떨어지면 노름은 끝판이다. 술도 외상이 있고 오입질도 수단이 좋으면 거저 할수가 있지만 노름만은 꼭 맞돈이니까.

이번 판까지 뗴우면 본전도 못건진채 나부랭이들의 놀림가마리가 되여 쫓겨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마빡에서 쥐가 펄떡거렸다. 사사끼의 입에서 기죽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난 50전 태우겠다.》

허나 조롱어린 《아가리》의 대꾸가 몰강스레 그 소리를 흩날려 버렸다.

《한장이하는 안돼! 못내겠으면 없어지든가.》

씹어죽일 새끼! 사사끼의 눈알이 사납게 희번덕댔다. 끝내 딴 도리가 없어 떨리는 손으로 남은 돈 1원을 말끔 털어놓지 않으면 안되였다.

판돈이 다 나오자 《아가리》가 화투목을 《난장보살》쪽에 돌려대며 한쪽눈을 끔뻑했다. 그러자 《난장보살》이 두번째 패장을 뽑아 번쩍 당겨가서는 처음것과 겹쥐고 조심조심 펼쳐본다. 그러더니 승산이 선듯 패장들을 엎어놓으며 소리쳤다.

《대였다!》

다음순서는 《털게》였다. 《털게》도 두번째 패장을 뽑아보고는 다시 한장을 더 뽑고나서 대였다고 소리치며 패장들을 엎었다.

사사끼의 차례가 왔다. 패장을 뽑아 눈앞으로 바투 가져다댄 사사끼는 초조감에 바글대며 첫패와 둘째 패를 펼쳤다. 《송학》과 《매조》였다.

《이런 망할…》

사사끼가 안달이 나 등신같은 소리를 혼자 중얼거렸다. 두패를 합쳐봐야 셋끗밖에 안된다. 어차피 패장을 하나 더 뽑아야 할 판인데 전번처럼 또 따라지신세가 되는게 아니야?…

오마조마해서 간을 조이던 사사끼는 범 무서워 산에 못가랴는 오기에 두눈 딱 지르감고 세번째 패장을 뽑아들었다. 화투짝을 움켜쥔 손이 무당의 신장대 떨듯한다. 곰보상통에 진땀이 내돋는줄도 모른채 숨을 죽이고 눈을 뜨는 순간 사사끼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놀랍게도 세번째 패장은 《목단》이였던것이다. 사사끼는 두눈을 지릅뜨고 구멍이 나도록 화투짝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틀림없는 《목단》이였다. 그러니 가보를 쥐였단 말이지!

미친듯한 웃음이 터져나오는것을 겨우 참았다. 암, 이 사사끼가 어떤 어른이라구. 여직껏 뗴운게 어디 뗴운건가? 잠시잠간 쫄망구들한테 맡겨뒀던거지. 인제 리자까지 톡톡히 붙여서 도루 찾아올 때 저 새끼들 낯판대기가 꽤 볼만하겠는걸…

몸뚱아리에서 피가 미친 말처럼 들뛰는 소리를 들으며 사사끼는 기세등등해서 패장들을 엎었다.

《나두 댔다!》

웬 일인지 《아가리》가 석장을 뽑아가지고도 얼른 패를 엎지 못한다. 너석의 상판이 썩은 콩 씹은 상이다. 흥, 보아하니 이번엔 패가 신통치 않은게지. 아가릴 꿰맬 놈 같으니. 좋아, 내 오늘 네놈의 등때기에서 혁띠감을 발가내지 않나 어디 봐라!

더 두고볼것도 없다는듯 사사끼는 승기가 돋쳐 덤벼댔다.

《오이, <난장보살>! 너부텀 까라!》

《여섯끗이다!》

《<털게>, 넌?!》

《난 일곱끗!》

《난장보살》과 《털게》가 화투장을 제끼자 사사끼도 여봐란듯이 제것을 제끼며 왜가리소리를 질렀다.

《반자이!— 가보다! 짜식들 봤지? 난 가보란 말야!…》

두 녀석의 앞에 놓인 돈을 갈가마귀 병아리 채가듯 긁어들인 사사끼는 거침없이 《아가리》의 돈에도 갈퀴손을 뻗쳤다. 그런데 《아가리》가 사사끼의 손을 쳐뿌리며 왁살스레 눈알을 굴리는것이였다.

《짜식, 손모가질 베버릴테다. 까지두 않았는데 헤덤비긴, 젠장…》

사사끼는 별놈 다 보겠다는듯 혀를 갈겼다.

《쳇! 저 새끼 눈깔은 어데다 전당잡혔나? 내가 가보쪽 까놓은걸 못보냐 말야? 야, 이 <아가리>새끼야, 홀아비 뭘 주무르듯 주물럭거리지만 말구 냉큼 까놓기나 해!》

놀림당한 앙갚음까지 깨깨 하느라 사사끼가 눈알이 새빨개서 왜장 독장을 치건만 《아가리》는 어디 개가 짖느냐는 식으로 그냥 꾸물대기만 한다. 그러다가 하는수 없다는듯 패장을 까놓는데 저게 뭐야? 열끗 《뻥통》이 아니야?!…

결국 무승부가 됐다는 소리다.

커다란 입을 주욱 찢으며 개판이 됐다고 히죽 웃는 《아가리》를 보는 순간 사사끼는 주먹으로 녀석의 상통을 후려갈기고싶은 충동에 터가리를 떨었다.

《개새끼, 수를 썼지!》

앙칼진 악청과 함께 어느 틈에 사사끼가 뽑아든 시퍼런 단도가 화투판 한가운데 내리박혀 우두두 요동을 쳤다. 흠흠해서 늘어져있던 《아가리》의 눈꺼풀이 대번에 세모가 되여 부풀어올랐다.

《야— 이 새끼 봐라. 병신이 지랄친다더니 같잖은게 어따 대구 함부로 생트집이야?!》

《아가리》는 이렇게 씨벌대며 곁에 놓였던 재털이를 집어 사사끼한테 내던졌다. 순간 사사끼가 날아드는 재털이를 피해 허리를 난딱 까부리며 《아가리》한테 달려들었다. 그 서슬에 녀석을 타고앉은 사사끼는 《아가리》의 상통에 마구 주먹다시를 안기며 욕지거리를 해댔다.

《이 새끼야!… 너 오늘… 나한테… 죽는 날이다!…》

얼떨결에 덮치워 두들겨맞던 《아가리》가 짐승의 포효같은 괴

성을 지르며 용을 쓴다. 그통에 사사끼가 활까닥 번져지고 반대로 《아가리》가 그우에 올라타 치도곤을 먹이기 시작했다.

《이 곰보딱지야!… 홍찌를 싸봐라!…》

《아가리》의 주먹이 사사끼의 상통에 연방 날아들었다. 물우의 기름처럼 패거리속에서 따돌리우는 사사끼인지라 둘러서서 구경하는 녀석들도 하나같이 《아가리》편이다.

《오이, <아가리>! 그 따라지새끼한테 톡톡히 버릇 가르쳐라!…》

《하하! 저 자식 오늘이 제사날되는가부다!…》

그러던 어느 한순간 법석구니를 놓던것들이 와뜰 놀라며 입을 다물었다. 곤죽이 되게 얻어맞던 사사끼가 눈을 흡뜬채 모가지를 늘어뜨렸던것이다.

《어, 저 자식 저거 정말 뒈진게 아냐?!…》

녀석들이 눈이 퀭해서 중얼거렸다. 《아가리》도 주먹질을 멈추고 너부러진 자식의 코끝에 귀를 가져다댔다. 헌데 웬걸. 죽은듯이 뻐드러졌던 사사끼가 와락 적수의 대가리를 그러쥐고 귀박죽을 물어뜯는것이 아닌가. 숨 넘어갈듯한 비명이 울렸다. 구경하던것들이 혼겁을 하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아가리》가 죽는다고 발버둥질을 치고 패거리들이 차고 치며 사사끼를 떼내려고 모지름쳤건만 녀석은 더욱 사납게 물어뜯으며 지랄발광을 한다. 멱따는듯한 비명소리와 악다구니소리…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수라장이였다.

그럴 때였다.

별안간 문짝을 때려열며 들어서는자가 있었다. 홀태바지에 골덴잠바를 걸친 사내였다. 수염 한오리 없는 창백한 낯에 매섭게 번뜩이며 웃고있는 눈, 귀밑부터 왼쪽입아귀까지 감사납게 그어진 칼자리, 털을 곧추세운 맹금마냥 빳빳이 곤두선 상고머리…

두령의 오른팔이 되여 패에서 부두령행세를 하는 이찌가와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간밤에 신마찌의 유곽에서 창기를 끼고 자다가 종로경찰서로 련행돼갔다더니 지금 나오는 모양이다. 경찰서에 가서 환대는 받지 못한듯 피발이 돋은 이찌가와의 두눈에는 울기가 뻗쳐있었고 툭 불거져 풀떡풀떡 뛰는 목줄띠에도 주린 이리와 같은 거친 호흡이 서려있었다.

방안에 있던 두어 녀석이 문앞에 앙버티고 선 부두령을 알아보고 금방 기가 죽어버리는데 다른것들은 여전히 싸움판에 정신이 팔려 오구탕을 치고있었다. 이찌가와의 면상에 뻘건 피가 올리뻗쳤다.

《개새끼들!》

이찌가와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뒤따라 들어온 부하에게서 목검을 나꿔채더니 소동을 피워대는 녀석들을 닥치는대로 후려팼다.

《이 새끼들아! 난 류치장에서 밤새껏 문초를 당하다 나왔는데 네놈들은 여기서 투전판이나 벌리구 늘어졌어?! 이 뒈질 새끼들!… 개새끼들!…》

미칠듯한 격노의 발작이였다. 졸지에 떨어지는 날벼락에 놀란 녀석들이 족제비를 만난 닭들이 풍기듯 사방으로 피해 달아났다. 피투성이가 되여 물고뜯던 두 녀석도 그제서야 덴겁해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이찌가와가 서슬이 퍼래서 소리지른다.

《이 새끼들 뛰였다간 사등뼈를 뽑아치울테다! 썩 나서지들 않겠어!》

어쩔수없이 얼마 안있어 방안에 있던 녀석들이 이찌가와앞에 개구리처럼 두손을 바닥에 짚고 나란히 꿇어앉았다.

이찌가와는 목검을 눌러쥔 손에 으스러지게 힘을 주며 개 벼룩 보듯 녀석들을 한동안 쏘아보았다. 그러는 그자의 온몸에서는 걷잡기 힘든 광기가 번져나오고있었다.

이윽고 비수를 들이대듯 던지는 부두령의 난데없는 물음이 졸개들의 머리우에 날카롭게 떨어졌다.

《너희들중에 누가 내 단도를 훔쳤느냐?》

졸개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흘끔흘끔 서로 곁눈질한다. 두달전에 어디 가서 단도를 잃어버리고 와서는 졸개들을 한바탕 들볶아댄 이찌가와였다. 한데 이제 와서 뚱딴지같이 그 일을 다시 꺼들어대는 까닭은 무엇인가?… 다들 물고기처럼 벙어리가 된 꼴들이다.

이찌가와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소름이 끼치게 가라앉은 어조로 또박또박 다시 묻는것이였다.

《누가 내 단도를 훔쳐가지구 돈의동 최가를 죽였어?…》

그만에야 졸개들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부두령의 단도로 돈의동 최가를 죽이다니? 어렵쇼, 쓸개자루가

커두 유분수지 패거리안에서 누가 감히 그런짓을?… 무슨 가을뻐꾸기 같은 소리냐는듯 대가리들이 기우뚱거렸다.

그러는데 악이 올라 지르는 고함소리가 졸개들의 뒤꼭지를 서늘하게 했다.

《나한테 똥바가지를 뒤집어씌운 놈이 어느 새끼냐 말야?!》

이찌가와는 목검으로 바닥을 탕탕 내려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생각할수록 칼을 물고 토할 일이였다.

간밤에 종로경찰서로 불려가니 어처구니없게도 두달전에 잃어버린 자기의 단도가 단도집도 없이 미와형사의 책상우에 놓여있는게 아닌가. 더군다나 기가 질리는것은 돈의동의 최가를 살해한 흉기가 다름아닌 뱀대가리가 새겨진 자기의 단도라는것이 판명되였다는것이다.

이찌가와는 어리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니 자기가 살인혐의자로 붙들려왔다는 소린가. 이거야말로 소똥에 미끄러져 개똥에 코박을노릇 아닌가. 어떻게 돼서 자기 단도가 생뚱같이 최가의 몸뚱아리에 박힐수 있단 말인가?

불맞은 짐승마냥 길길이 뛰며 온밤 이찌가와가 억울하다고 뻗쳐댔지만 종로경찰서에서도 그중 지독하다고 소문난 미와라는 형사새끼는 삵의 웃음만 살살 치면서 들은체도 하지 않는것이였다.

종당에는 오늘 아침 두령이 경찰서에 찾아와 현장부재를 증명해서야 이찌가와는 비로소 놓여나올수가 있었다.

죽일 새끼들! 졸개들을 노려보는 이찌가와의 흉중에서 누를길 없는 잔악한 욕망이 울컥울컥 치밀어올랐다.

분명 이안에 있어. 내 뒤덜미에 칼을 박은 그 자식이. 나한테 올가미를 걸려구 내 단도를 훔쳐내서 최가를 죽였단 말이지. 흉측한 놈! 흔해빠진 일개 살인사건을 고등계의 미와형사가 취급하는걸 보면 낌새가 달라. 나한테 큼직한 덤터기를 씌우려던게 틀림없거던. 대체 어느 놈이 그랬을가? 날 물어메치려구 날뛰는 그놈을 붙잡기만 하면 사지를 찢어발길텐데…

이찌가와는 분노와 조급함에 치를 떨며 다시금 고래고래 고아쳤다.

《어느 새끼야?! 정 안나설테냐?!》

조마조마한 분초가 흘렀다. 졸개들은 저마끔 목을 움츠리며 쥐구멍을 찾듯 전전긍긍했다. 이찌가와의 뺨따귀에 난 칼자리가 뱀처

럼 꿈틀거린다.

《흐하하…》

급작스레 이찌가와가 몸뚱이를 비틀며 터뜨리는 너털웃음소리였다. 터무니없이 큰일을 저지르고싶어 안달이 난 미친놈의 발작웃음처럼 들려오는 그 소리는 끓어앉아있는 졸개들을 더욱 큰 긴장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웃음소리는 터질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멎어버렸다.

《좋다, 끝까지 뻗치겠단 말이지.》

이찌가와는 독살스레 이렇게 중얼대더니 벼락같이 목검을 거머쥐고 졸개들을 들이패기 시작했다.

《어디 견뎌봐라!… 뒈질 때까지 뻗쳐보란 말야!… 네 새끼냐?!… 아니면 네 새끼?!…》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지고 졸개들이 나동그라진다. 그럴수록 이찌가와는 더더욱 독기가 뻗쳐 악패듯이 목검을 휘둘러댔다.

모조리 때려죽이고싶었다. 그래서라도 자기를 모해한 자식을 요정낼수만 있다면 사타구니에 붙어있던 빈대새끼를 눌러죽인것만치나 속씨원할상싶었다.

급해맞은 한 녀석이 이찌가와의 무릎에 매달리며 애걸복걸하는것이였다.

《형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아무렴 우리가 감히 형님을 해칠 생각을 품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보니 《아가리》란 녀석이다. 이찌가와는 코방귀를 뀌며 아직도 피가 줄줄 흐르는 《아가리》의 귀박죽을 사납게 잡아 비틀었다.

《흥! 찢어진 아가리라구 잘은 놀려대는구나. 이놈아, 네놈들 아니면 또 누구란거냐? 너들이 내 잔등에 칼을 박을 꿈만 꾸는줄 내가 모를줄 아냐? 내 단도에 손을 댈수 있는게 너들 말구 또 누구냐 말야? 이 죽일놈아!》

악에 받친 이찌가와가 아프다고 어부재기치는 《아가리》의 미련한 상통을 목검으로 후려치려는데 이번에는 또 몸뚱아리에 발 달린 것같은 《난장보살》녀석이 진둥한둥 말리려들었다.

《예, 예, 옳습니다요. 이찌가와형님말씀이 백번 지당하다마다

요. 하지만 형님앞에서 목을 걸구 맹세하건대 저나 이녀석은 뭬지면 뭬졌지 형님을 배반할 놈들은 아닙니다요. 그럴 놈은 따로 있다마다요. 개발에 진드기 끼듯 우리 패속에 끼여있는 그 간신놈을 잡아내야 하구말구요.》

이찌가와는 눈에 칼을 세우고 《난장보살》의 멱살을 틀어잡았다.

《이 새끼야! 배머리 둘러대듯 둘러대지만 말구 직방 말해. 도대체 그 간신이란게 어느 새끼야? 앙?!》

금시 멱을 물어뜯을듯이 악을 쓰는 그 기세에 쩔쩔매며 《난장보살》이 저쯤을 향해 한쪽눈을 찡긋해보인다.

독기서린 이찌가와의 눈초리가 비수마냥 허공을 찢으며 그리로 날아갔다. 벌벌 떨며 끓어엎뎌있는 졸개들의 맨끝에 구렝이허울같은 하오리 하나가 눈에 걸려들었다.

이찌가와는 눈심지를 돋구고 하오리를 걸친 녀석을 뜯어보았다. 《곰보》가 아닌가.

순간 그 어떤 예감 같은것이 뒤골을 때렸다.

작년에 저 《곰보》녀석을 패거리에 받아들일 때만 해도 이찌가와는 한낱 촌뜨기겠거니 하고만 치부했었다. 그도그럴것이 비록 현해탄을 건너온지 칠팔년은 잘된다지만 워낙 흑가이도의 시골내기인데다 조선에 와서도 북변오지의 목재판과 탄광에서 십장질을 해먹으며 떠돌아다니던 뜨내기였다니 이런 도회지에서야 장거리에 나온 촌닭 한가지일수밖에.

아니나다를가 그후 녀석이 놀아대는 꼬락서니를 보니 하품이 나왔다. 솜씨도 신통치 못한 주제에 투전이라면 제 계집까지 대면서 빈번히 투전빚에 쫓겨다니는가 하면 도쬬어방에도 못가봤을 녀석이 입만 벌리면 이래뵈두 자기는 넓고넓은 도쬬를 활무대로 돌아다닌 사나이라느니, 도쬬의 아사꾸사에서 한다하는 기생들을 털어먹던 《야꾸자》(일본의 폭력단체)였다느니 하고 곧잘 헌수작을 털군 하는것이였다.

그래서 노상 패거리들의 조롱거리가 되였고 두령이나 이찌가와도 그러한 《곰보》를 똥치는 막대기 대하듯하면서 하찮고 게궂은 일에만 내몰았다.

그런데 촌닭이 관청닭 눈알 빼먹는다더니 허술히 보았던 녀석한테 보기 좋게 뒤통수를 얻어맞을줄이야. 《곰보》가 수차에 걸쳐 이찌가와의 이름을 걸고 후꾸다패의 세력범위안에 있는 료리집주인들

을 공갈하여 적지 않은 돈을 투전밑천으로 후려냈다는것이 아닌가.

그 사실을 몇달전에 처음 알았을 때 이찌가와는 입을 딱 벌렸다. 감히 엊그제 들어온 졸개녀석이 이 부두령을 희롱하다니!

패거리의 돈줄에 손을 대는자는 가차없이 징벌하는것이 어길수 없는 계률이다. 게다가 어벌뚝지 크게 상전의 이름까지 도용해 그짓을 했으니 네 죄를 네가 알렷다!…

이찌가와는 송곳이가 방석이가 되도록 이를 갈며 촌뜨기졸개한테서 당한 창피와 모욕을 곱으로 되돌려주었다.

릉지가 되도록 뚜들겨패서 썩은 짚동처럼 퉁퉁 부어난 《곰보》의 알몸뚱이에다 담배불로 《개 견(犬)》자를 지져넣었고 그우에 소금을 뿌린채 사흘을 매달아두었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녀석이 후무린 돈을 죄다 게워놓을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개짖는 소리를 내며 패거리들의 사타구니밑을 기여다니게 했다.

그 일을 상기하는 이찌가와의 두눈에 불꽃이 튕겼다.

옳지, 저 《곰보》녀석이라면 능히 내 뒤덜미에 칼을 박을수 있구말구. 나한테 앙심을 품고있을게 분명한데다가 오죽이나 음충맞은 놈이라구. 내가 왜 진작 저놈부터 생각 못했담? 간을 씹어먹어도 씨원찮을 놈!

드디여 먹이를 발견한 맹수의 짜릿한 흥분을 느끼며 이찌가와는 손에 쥐였던 목검을 내깔렸다. 그리고는 빳빳이 곤두선 상고머리를 슬슬 내리쓸며 느릿느릿 《곰보》앞에 다가가 섰다.

《오이, <곰보>!》

착 까라진 부름소리다. 부두령의 그 소리가 지옥사자의 부름이기나 한듯 《곰보》가 화뜰 놀란다.

이찌가와는 끓어엎더있는 《곰보》의 정수리에 허연 비듬이 떠있는것을 역스럽게 바라보며 차겁게 내뱉았다.

《일어나!》

《곰보》가 우들우들 떨며 일어섰다. 이미전에 투전판에서 넙치가 되게 얻어맞은지라 녀석의 눈은 마치 부어오른 두개의 구멍처럼 보였다.

이찌가와가 경멸조로 물었다.

《너 내 별명 알지?》

사사끼는 엉겁결에 혀가 가드라들었다.

《뱀대가리》. 이찌가와의 별명이다. 정말인진 모르겠지만 뱀이란 놈은 한번 물면 대가리를 잘라도 그냥 상대를 문채 놓아주지 않는다던지. 그래서 일단 싸움이 붙으면 좀처럼 물러설줄 모르는 이찌가와한테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덩치는 별로 크지 않아도 어찌나 독종인지 자그마한 사카린병에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싸움판에서 궁지에 몰리면 뿌려대군 하는 놈이다.

사사끼가 어릿어릿 대답을 못하자 이찌가와가 씨벌이였다.

《잊었나본데 기억나게 해주지.》

그 말이 떨어지는것과 동시에 이찌가와의 왼주먹이 사사끼의 복부를 강타했다.

《윽!—》

사사끼가 배를 그러안고 주저앉았다.

《엄살 떨지 말구 일어나, 이 새끼야!》

이찌가와의 입가에 잔인한 빛이 서려있었다. 사사끼는 헐떡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네가 내 단도를 훔쳤지?》

피가시가 박힌 이찌가와의 두눈이 대답을 요구하고있었다. 사사끼는 무릎이 떨려나는것을 겨우 참으며 입을 열었다.

《다…단도라니요? 웬 말씀인지…》

이번에는 이찌가와의 오른주먹이 사사끼의 명치에 날아들었다. 컥— 숨이 막히는 소리와 함께 사사끼의 웃몸뚱이가 앞으로 숙여졌다. 그러자 기다렸다는듯 이찌가와의 무르팍이 숙여진 녀석의 웃몸뚱이를 드립다 떠받는다. 사사끼가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일어나, 개새끼야!》

입아귀로 느침을 비질비질 흘리며 사사끼는 또다시 엉거주춤 일어섰다. 이찌가와의 물음소리가 야멸차게 반복되였다.

《다시 묻겠다. 단도를 훔친 새끼가 너지?》

사사끼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울상이 되여 떠듬거렸다.

《아…아니올시다, 형님. 전 저…절대 아닙니다요. …》

《하, 절대 아니다?…》

이찌가와가 쓰겁게 웃으며 천천히 돌아섰다. 푸독사같이 새파랗게 질린 상통이다.

다음순간 생매같이 몸을 틀며 이찌가와가 날린 주먹이 사사끼의 면상 한가운데서 퍽! 하고 터졌다. 사사끼가 비명을 치며 저만치 나딩군다.

이찌가와는 코피가 줄줄 흐르는 녀석의 멱살을 그러잡아 다시금 일으켜세우더니 유도 3단의 솜씨를 발휘하여 공중걸이 한판으로 둘러메쳤다. 그리고는 바닥에 태질당한 사사끼의 몸뚱이를 덮쳐누르고 팔뚝으로 목을 죄기 시작했다.

《이 새끼야!… 똑바로 대지 않으면 숨통을 비틀어버릴테다!… 네가 내 단도루 최가를 죽였지?!…》

사사끼는 숨이 막혀와 손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항복을 표시하면서도 기를 쓰고 뻗댄다.

《킥킥… 아…닙니다요, 형님…》

《나한테 앙갚음하려구 그랬지?!…》

《절…대 아…닙니… 킥킥…》

《개새끼 아직두 아니야?!… 어디 뒈져봐라!… 뒈져라앗!…》

사사끼가 피를 물고 아니라고 뻗쳐대는 바람에 이찌가와는 더욱 눈알이 뒤집혀 기광을 부렸다. …

2

만신창이 되여서야 사사끼는 이찌가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수가 있었다. 맥이 진한 개마냥 가쁜숨을 토하며 당구장을 나선 녀석은 향방없이 걸음을 내디뎠다.

머리털은 뜯어먹던 꿩대가리같았고 항상 도적개처럼 희번덕대던 눈알은 물에 불쿤 대추알모양 풀어져있었다. 뼈다귀들이 세간났는지 온통 쑤시지 않는데가 없었다.

불시에 쇠비린내가 코를 찔러와 고개를 떨구었다. 코피가 또 한 웅큼이나 쏟아져나왔다. 구석진 곳에 들어가 손에 피칠갑을 해가며 한참이나 코피를 닦느라니 왈칵 쌍욕이 터져나왔다.

《이찌가와 개새끼!》

칼을 물구 뒈질 새끼!… 벼락맞아 뒈질 개새끼!… 어떻게 하면

저 독사새낄 칼탕쳐 죽일수 있담. …

사사끼는 눈물인지 피물인지 모를 쩝쩔한것을 삼키며 이발을 으드득 갈았다.

벌써 이찌가와한테 두번째로 당하는 졸경이다. 처음 졸경을 치르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살이 떨린다.

벌거벗긴 자기 몸뚱이를 담배불로 지져대며 류행가를 흥얼대던 놈의 코노래소리가 때없이 등골에 전률을 일으키군 하였다. 패거리들의 사타구니밑을 벌벌 기여다니는 자기를 보며 낯가죽이 찢어지게 웃던 놈의 몰골이 꿈에서도 불악귀처럼 나타나군 하였다.

그 일을 겪고나서 사사끼는 언제건 기어코 이찌가와를 해제끼리라 윽벼르기 시작했다.

헌데 두달전에 뜻하지 않게 그럴 기회와 맞닥뜨렸다. 그날 남대문 우편국앞을 지나던 사사끼는 근처의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는 이찌가와를 보게 되였다.

사사끼는 대뜸 부두령이 본정경찰서 다무라순사부장의 집에 찾아간다는것을 눈치챘다. 이찌가와가 다무라의 녀편네와 치정관계를 맺고있다는것은 패거리들속에 잘 알려진 비밀이였고 사사끼자신도 부두령의 심부름으로 그 집에 몇번 드나든적이 있었던것이다.

배속에서 부글대던 앙심이 저도 모르게 뻗쳐올라 사사끼는 슬그머니 이찌가와의 뒤를 따랐다. 아닐세라 이찌가와가 들어간 곳은 다무라의 집이였다.

사사끼는 신경을 도사린채 집밖에서 한식경쯤 기다리다가 하녀가 나가는것을 보고 드디여 집마당에 들어섰다. 다무라의 집은 앞채와 뒤채로 되여있었는데 앞채에는 살림방들이 있었고 뒤채에는 목욕칸과 창고가 있었다.

앞채를 에돌아 뒤마당으로 간 사사끼는 허리춤의 비수자루를 움켜쥐며 뒤채문을 열고 들어갔다. 널마루를 깐 어스크레한 복도를 슬금슬금 따라갔다. 모퉁이를 돌아서니 비스듬히 열린 목욕칸문이 보였다. 문틈으로 허연 김이 흘러나오는데 사내의 끈적끈적한 웃음소리와 즐겁게 내지르는 계집의 비명소리가 함께 새여나오고있었다.

짐작한대로 년놈들이 목욕을 하고있는 모양이였다. 목욕칸문결에 박힌 옷걸이에 년놈들의 옷가지가 걸려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사

사끼는 그리로 다가가 이찌가와의 옷을 더듬어보았다. 옷속에서 단도가 나왔다. 자루에는 뱀대가리가, 단도집에는 뱀몸뚱아리가 새겨져 맞추면 한마리의 꿈틀거리는 뱀을 이루게 되여있었다. 이찌가와의 단도였다.

마침이였다. 지금 당장 뛰쳐들어가 음탕질탕 놀아대고있을 년놈들의 멱통에 이 칼을 들이박고 내빼면야 후날 어느 귀신이 알수 있을라구.

이찌가와 이 새끼, 오늘 내 손에 콱 뒈져봐라! 사사끼는 이를 사려물며 이찌가와의 단도를 뽑아들었다.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밖에 나갔던 하녀가 되돌아올줄이야. 뒤채쪽으로 곧추 걸어오는 하녀의 손에 맥주병꾸레미가 들려있는걸 보니 가까운 곳에 심부름을 갔던듯싶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친 사사끼는 주먹을 깨물었다. 하지만 어째볼 경황이 없어 이찌가와의 단도를 가진채 황망히 몸을 사릴수밖에 없었다.

그뒤 사사끼는 이찌가와가 소동을 부리는걸 보고 겁을 먹기도 했었지만 오래지 않아 놈팽이의 단도를 손에 넣기 잘했다고 쾌재를 올렸다. 그럴만한 일거리가 생겼던것이다. …

사사끼는 코피가 게발렸던 상판을 대충 문다지고나서 발길 가는대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아까부터 들락날락하며 골통속을 쑤셔놓고있는 의문들이 재차 머리를 쳐든다. 아무튼 조화는 조화야. 귀신이 재주를 부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찌가와의 단도가 경찰서에 가있을수 있담? 혹시 이찌가와 그 새끼가 날 떠보려구 거짓말을 지어낸건 아닐가? 아니면 정말루 그 단도로 최가를 해치운 놈이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대체 어떤 놈이 그랬을가?…

정체를 알수 없는 누군가가 어딘가에 숨어 자기의 속내를 빤드름하니 들여다보고있는것만 같아 사사끼는 속이 켕겨왔다. 그런 속에서도 생각은 또다시 돈문제에 가미쳤다.

이러나저러나간에 착수금명목으로 흥두한테서 받아쥐였던 돈도 투전으로 날려버린지 오래다. 떼운 돈을 되찾으려면 투전판에 다시 앉아야 할텐데 호주머니엔 빈주먹뿐 투전빚에 쫓겨다니는 처지니 목구

멍에서 연기가 날 지경이였다.

(근데 흥두 그 새낀 왜 아직 꿈쩍하질 않아? 볼장 다 봤으니 딴전을 부리겠다는거나? 흥, 밥통같은 새끼. 어림도 없을걸!)

사사끼는 왝하고 가래침을 툐아 길바닥에 곤두뱉았다. 어떻게든 흥두의 주리를 틀어 무슨 마련을 봐야겠다고 사사끼는 거듭 곱씹었다.

얼친 놈처럼 무턱대고 걷다보니 광희문근방이다. 수구문이라고도 불리우는 광희문은 예전에 주로 염병환자들과 시체들을 내보냈다는 부정한 문이여선지 지금도 이 아근에 들어서면 으슥하고 괴괴한 분위기에 사로잡히군 한다.

사사끼는 길가에 늘어선 허수룩한 건물들을 얼마쯤 지나쳐 검정색판자벽을 둘러친 2층목조집앞에 이르렀다.

이 집에 녀석의 세방이 있었다. 그래도 어망중에 이리로 온걸 보면 들개도 집이 있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지는 않은가보다.

집주인은 본정에서 양조소를 경영한다는 일본인이였는데 얼마전에도 찾아와 밀린 방세를 독촉하는걸 시끄럽게 굴면 당장 집에 불을 처지르겠다고 을러메서 쫓아버렸었다.

막되게 대문을 걷어차며 마당에 들어서던 사사끼가 후닥닥 기겁을 한다. 사슬에 매인 시커먼 세퍼드가 무섭게 치떠보며 으르렁거렸던것이다. 아마 덜렁수개마냥 싸다니다가 가물에 씨앗나듯 들리군 하는 돌잡놈인지라 세퍼드도 제 집 세방살이군을 알아 못보고 낮도적쯤으로 여긴것같다.

사사끼는 눈알을 부라리며 비실비실 세퍼드를 피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2층 한귀에 박힌 세방문을 벌컥 여니 나간 놈의 집구석같은 어수선한 방안꼴이 덮쳐들었다.

여기저기 빈대피가 발린 누비돗자리며 거미줄이 그네를 뛰는 어지러운 천정, 볼썽사납게 금이 간 유리창에 뿌옇게 앉은 먼지… 바람벽에 걸린 헌 치마도 목매죽은 계집처럼 청승궂기 짝이 없는데 숨막힐듯 비좁은 방 한구석에서 녀자 하나가 입을 펑하니 벌린채 새우잠을 자고있었다. 머리는 베개에서 떨어져 맥없이 구겨박혀있었고 몸을 가리운 낡은 담요밖으로 나온 손은 파리하니 여위여있었다.

사사끼의 상통이 사납게 구겨졌다.

에이꼬라는 저 녀자는 사사끼가 조선에 건너올 때 끌고온 혹가이도 작부다. 녀석에게 있어서 에이꼬는 처도 애인도 아니였다. 화풀이삼아 때없이 걷어차는 문짝이라고나 할는지, 그보다도 살 빼먹은 소라껍질같은 존재였다.

사사끼는 다짜고짜 다가가 자고있는 녀자의 엉덩이를 차며 욕질했다.

《쌍년, 능달아래 개팔자구나!》

그바람에 소스라쳐 깨여난 에이꼬가 녀석을 보더니만 허둥지둥 꿇어앉으며 머리를 조아리는것이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늘쌍 이렇게 사사끼를 《주인님》이라고 개여올리는 에이꼬였다. 그 녀자의 얼굴에는 노예임을 자인하는 순종과 달리될수 없다는 체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있었다.

사사끼는 씹어삼킬듯 에이꼬를 노려보며 물었다.

《돈은 구했어?》

투전돈을 구했느냐는 소리다. 에이꼬가 부들부들 떨며 대답을 못하자 녀석이 이찌가와한테 된통을 겪은 분풀이까지 합쳐 악다구니를 퍼붓는다.

《이년아! 근데두 셈평좋게 낮잠이나 자구있어?! 이 죽일년 같으니!》

독오른 사사끼의 손바닥이 에이꼬의 뺨에 날아들었다. 젖은 걸레짝으로 후려치는듯한 소리가 나며 녀자의 고개가 홱 돌아가고 머리카락이 되는대로 헝클어졌다.

에이꼬는 넘어지려는 몸을 겨우 바로잡으며 겁에 질려 잘못을 빌었다.

《죽을죄를 졌습니다, 주인님. 좀 피곤해서 그만…》

사사끼의 낯짝에 미심쩍어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별안간 녀석이 에이꼬의 머리끄뎅이를 거머잡아 뒤로 젖히더니 그 녀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는것이였다.

검버섯이 거밋거밋 돋은 얼굴은 퉁퉁 부어있었고 터슬터슬 터갈린 입술에는 피딱지가 말라붙어있었다. 그제서야 사사끼는 에이꼬가 얼김에 손으로 자기 배를 가리우고있는것을 알아보았다. 사사끼의 눈알이 희번덕거렸다.

《너 또 새끼뱄어?》

독기가 날름거리는 녀석의 물음에 에이꼬가 당황해하며 두손을 모아 빌었다.

《주인님, 이번만은… 제발 이번만은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앤 우리 애가 아닌가요?…》

사사끼는 코웃음을 쳤다.

《흥, 우리 애? 대체 그게 뭔데?…》

새끼라는게 나한테 돈을 주나, 가보쪽을 주나? 흑싸리 깝대기만두 못한 그따위걸 싸갈겨놓구 날 따라지신세 만들려구? 망할 년 같으니!

《좋아, 그럼 새낄 낳게 도와주마.》

매몰찬 웃음을 흘리며 이렇게 뇌까린 사사끼는 에이꼬의 배를 죽어라 하고 걷어찼다. 에이꼬가 배를 안고 나자빠지면서도 숨가삐 애원한다.

《그러지 마세요, 주인님… 제발…》

사사끼는 그러는 녀자의 배에 두번세번 거듭 발길질하며 으르댔다.

《어때? 이래주면 새낄 낳기가 쉽지?… 어서 실컷 낳아봐!… 어서!…》

이번까지 세번째다. 에이꼬가 임신했을 때마다 녀석은 이런 식으로 애를 떼버리군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모진 고통에 이지러진 그 녀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저려드는듯한 쾌감을 느끼군 했고.

사사끼는 피거품을 물고 꼬꾸라진 에이꼬에게 표독스럽게 씨벌여댔다.

《쌍년! 빨리 나가서 돈을 구해와! 몸뚱일 팔아서라두 구해오란 말야!》

그러더니 세방문을 걷어차며 휭하니 나가버렸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던지… 뜬내나는 방구석에 찌그러진 남비마냥 팽개쳐져있던 에이꼬는 뒤틀리는듯한 배아픔을 느끼며 의식을 차렸다. 비릿한 피냄새가 풍겼다. 그 녀자의 치마가 흥건히 젖어있었다.

에이꼬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세우고는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배를 그러안고 비칠거리면서 부서진 세방문을 나섰다. 아래층으로 내려간 에이꼬는 늦은 오후의 가을볕이 흘러드는 마당 한가운데서 쓰러지고말았다. 조금씩조금씩 대문을 향해 기여갔다. 간신히 틀어내는

듯한 소리가 그 녀자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살려주세요. … 살려…》

누군가가 마당에 들어서다가 그 광경을 발견하고 창황히 달려온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였다.

《이보세요, 정신차려요!…》

에이꼬가 눈을 떠보니 조선옷을 입은 녀인이다. 녀인이 뒤따라온 학생복차림의 청년에게 뭐라고 다급히 이른다. 청년이 에이꼬를 둘쳐업었다. 어디론가 바삐 달려가는 청년의 잔등우에서 에이꼬는 다시금 의식을 잃었다. …

3

사흘후 사사끼가 도적개 헛눈질하듯 기웃대며 명동골목을 싸다니고 있을 때였다. 하인행색의 웬 사내가 다가오더니 최가댁 서방님이 정오에 원남구락부에서 만나잔다고 넌지시 귀띔하고 사라지는것이 아닌가.

그 순간 걸신이 들려있던 사사끼의 낯짝에 오랜만에 희색이 피여올랐다. 《최가댁 서방님》이라면 두말할것없이 최흥두를 이르는 소리다.

드디여 그 자식이 남은 돈 5천원을 내놓겠단 말이지. 그럼 그럴테지. 제까짓게 암만 뻗쳐봤자 나한테야 코꿰운 송아지가 아닌가. 안그래도 오늘쯤은 찾아가서 톡톡히 혼뜨검을 낼 작정이더랬는데 무슨 낌새라도 챈게지? 녀석이 제편에서 먼저 설레발을 치는걸 보니. 킥킥…

사사끼는 입속으로 킬킬거리면서 하오리의 소매속을 버릇처럼 더듬어보았다. 흥두의 손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여느때와 다름없이 소매속에 들어있었다.

《개 견》자가 찍혀진 사사끼의 가슴노리가 미친놈 널뛰듯 뛰였다.

원남구락부라 했겠다. 원남구락부라면 원남동에 있는 당구장을 말한다. 그 부근에서 둬달쯤 세방살이를 한적이 있는지라 사사끼는 원남동일대를 비교적 잘 알고있었다. 정오까지는 한시간가량 남아있었다.

사사끼는 굶주린 들개마냥 허발을 쳐대며 즉시 원남동으로 향했다.

한시바삐 돈을 쥐고싶은 욕심뿐이였다. 5천원이란 말이지. … 그

돈이면 투전빚을 갚고도 한바탕 노름판에서 배를 튀길만한 액수렷다. 흐흠, 《아가리》랑 《난장보살》이랑 이 개새끼들! 어디 한번 넋살탕을 먹어봐라! 벌써부터 손이 근질거려와 견딜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한켠으로는 알짝지근한 생각이 똬리를 튼다. 흥두새끼가 물려받을 재산이 얼만데 고작 5천원에 물러선단 말야? 내 입만 터지는 날엔 상속은커녕 지금 당장이라두 콩밥신세를 질 녀석 아냐. 암, 5천원이 아니라 5만원, 아니 5백만원이래두 이 사사끼어른한테 황송하게 갖다바쳐야 할 녀석이구말구. 그런즉 흥두란 놈이 내겐 돈나는 샘 한가지로다!…

돈낟가리를 쌓으며 공상망상을 하느라니 어느새 사사끼의 눈앞엔 두부처럼 살찐 흥두의 상판이 가보쪽처럼 안겨오는것이였다.

(흥두 그 자식을 만나면 빠질 생각일랑 아예 못하게 단단히 숨통을 조여야지.)

사사끼는 이렇게 속타산하며 부리나케 동대문행 전차를 잡아탔다. 여드레 팔십리걸음으로 가던 전차가 종로3가어구에 이르러 고장이 났는지 덜컥 멎어버렸다.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하던 사사끼는 쌍욕을 퍼부으며 내리고말았다. 사사끼는 등이 달아 원남동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동대문쪽으로 가느라니 왼쪽에 넓은 골목이 나졌다. 골목의 과녁배기에 커다란 옛 대문이 보였다.

종묘라고 이전 왕실의 사당이라던지. 제사날이 오면 망해버린 왕조의 죽은 왕들을 제지내군 한다는 쓸쓸한 빈집이다. 대문 량쪽으로는 담장이 뻗어있었는데 담을 따라 좁은 길이 나있었다. 오른쪽길을 따라가면 원남동 네거리로 통한다.

조선인들은 그 길을 가리켜 《술래골》이라고 불렀다. 종로4가 네거리를 돌아 원남동으로 갈수도 있었지만 사사끼는 지름길인 술래골로 꺾어들었다.

밑구멍에 불난듯 속이 화급해났다. 혹 제시간에 가닿지 못해 흥두를 놓치면 어쩌나싶어 다리에 자개바람이 일도록 걸음을 다그쳐댔다.

거꾸러진 왕조의 원혼들이 떠도는 곳이여선지 지나갈 때마다 술래골은 음산하기만 하다.

키높은 담장우로 드리운 우중충한 나무그늘, 망령들의 한숨인양

훌훌 불어오는 바람, 밤마다 도깨비가 나온다는 길우에는 인적도 드물어 때없이 나무잎들이 서걱거릴 때면 머리털이 곤두서군 한다.

불쑥 흰옷입은 사람이 앞에 나타나는통에 사사끼는 화들짝 놀랐다. 숨죽인채 눈여겨보니 범상한 행인이다. 어쩐지 이 길이 오늘따라 더 섬쩍지근하니 느껴져 사사끼는 땀을 쥐고 황급히 걸었다.

이상한 물건들이 길바닥에 널려있었다. 구겨진 창호지며 바지저고리, 기다란 널쪼각과 타다만 종이돈쪼박들… 액막이를 하느라 버린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흐물떡한 섬나라인종들에게 백의인들이 배알는 저주인가? 바람에 흩날리던 색헝겊오래기가 발목을 감는가 하면 종이에 싼 뻘건 벽돌짝이 발길에 채우기도 했다.

술래골을 반쯤 지나오느라니 자꾸만 등뒤에서 크다만 신짝을 질질 끄는것같은 소리가 뒤따라왔다. 사사끼가 겁이 더럭 나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눈에 띄는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주춤 멈춰서면 들리지 않다가도 다시 걷기 시작하면 또 그 소리가 들려온다.

혼비백산한 사사끼는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등뒤에서도 뛰여오는지 신짝끄는 소리 역시 멀어질줄 모르고 지꿎게 쫓아오는것이였다.

정신없이 내빼던 사사끼가 졸지에 경악하며 허궁잡이를 한다. 난데없이 죽은 사람을 넣는 관이 길우에 가로놓여있었던것이다. 얼마뒤 사사끼가 제정신으로 돌아와보니 관이 아니라 바퀴가 빠진채 주저앉은 달구지가 아닌가.

멀지 않은 곳에서 길거리의 소음이 들려왔다. 그제서야 으시시한 술래골을 거의 벗어났다고 생각한 사사끼는 식은땀을 훔치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헌데 질질 신짝끄는 소리가 또 뒤를 쫓는다. 사사끼는 부아가 돋쳐 비수를 빼들고 돌아섰다. 그리고는 두눈을 지릅뜨고 천천히 뒤걸음쳤다. 저맘쯤 떨어진 곳에서 뭔가 허연것이 질질 끌려왔다.

피뜩 깨도가 가는것이 있어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신발바닥에 실이 걸려있는것이 보였다. 그 실을 집어서 당겨보니 뜻밖에도 애들이 띄우는 연이 아닌가. 억이 막혔다. 어느 애새끼가 날리다 끊어진 연이 길바닥에 떨어져있던 모양이다.

발끈한 사사끼는 어처구니없이 자기를 놀린 연을 죽탕이 되게 짓

뭉개놓고서야 자리를 떴다.

사사끼가 술래골을 벗어나 원남동 네거리에 들어섰을 때였다.

흥두를 놓칠가봐 경황없이 다우쳐가던 사사끼는 아차하는 순간에 호떡을 먹으며 지나치던 웬 조무래기녀석과 부딪치고말았다. 눈알이 꽂꽂해서 노려보니 코잔등에 주근깨가 아물거리는 애녀석이 호떡을 입에 문채 쳐다보고있었다.

어디서 주어 신었는지 헐어빠진 지하족을 발에 꿴 녀석이였다. 애녀석의 입주변에는 베여문 호떡속에서 뚝뚝 녹아떨어지는 흑설탕이 뒤발려있었는데 부딪칠 때 묻어났는지 사사끼의 하오리자락 여기저기에도 흑설탕이 너저분하니 발려있었다.

《요새끼!》

사사끼가 잡아먹을듯이 눈알을 굴렸다. 애녀석이 질겁하며 호떡을 꿀떡 삼키더니 입속으로 웅얼거렸다.

《잘못했어요, 나리님. 제가 닦아드릴게요.》

그러면서 어쩔새없이 달라붙어 하오리에 묻은 얼룩을 팔소매로 비벼닦느라 분주탕을 피우는데 되려 그통에 애녀석의 손이며 입에 발린 흑설탕이 덧묻어나 사사끼의 옷주제는 더욱 꼴불견이 돼버리고말았다.

성이 독같이 오른 사사끼가 애녀석의 뺨을 후려치며 왜말로 욕지거리했다.

《그만두지 못해! 이 구린내나는 새끼!》

불이 나게 얻어맞고 엉덩방아를 찧은 애녀석이 뺨을 싸쥔채 비실비실 물러갔다. 사사끼는 더러워진 제 꼴을 보며 뭐라 더 게두덜대다가 흥두와 만날 일에 생각이 미쳐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러나 발걸음이 겁석하지 못했다. 상한 고기를 삼킨것처럼 속이 께름해왔던것이다. 미타한 생각에 소매속을 더듬어보던 사사끼가 갑작스레 굳어져버린다.

이게 뭐야? 계약서가 없어지지 않았는가! 놈팽이의 상통이 금방 피를 뽑을듯 시뻘개졌다. 이런 미칠데라구야. 흥두녀석의 모가지를 조일수 있는 유일한 올가미가 없어져버린것이다.

대뜸 골을 치는것이 있었다. 사사끼는 화닥닥 애녀석이 사라진쪽으로 눈을 돌렸다. 행인들사이로 지하족을 걸친 애녀석이 촐싹대며

걸어가는 모양이 보였다.

틀림없이 저녀석의 짓거리야. 밟아죽일 녀석, 재수없이 따기군아 새끼한테 걸려들다니!…

사사끼는 급살이 나서 소리쳤다.

《서라, 요놈!》

하건만 애녀석은 들은둥만둥 제갈길만 간다. 사사끼가 다쫓아가며 악악댔다.

《요새끼, 게 서지 못해!》

그때야 애녀석이 뒤를 돌아보더니 놀려대듯 혀를 날름거리는것이였다.

《요 죽일놈의 새끼!》

약이 바싹 오른 사사끼는 주먹을 내두르며 장달음질을 쳤다.

애녀석도 꽁지가 빳빳해서 달아빼기 시작했다. 차길을 가로질러 골목으로 뛰여들어간다. 쬐꼬만게 어찌나 밭은 정갱이를 부시치듯하는지 좀처럼 따라잡을수가 없었다.

사사끼는 죽기내기로 쫓아갔다. 물지게를 진 아낙네와 부딪쳐 물참봉이 되고 개구쟁이들이 파놓은 허방다리를 짚는통에 도랑창에 나번져지면서도 혀를 가로물고 쫓아갔다. 거미줄같은 골목길을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던 애녀석이 홀딱 길섶의 담장을 타고넘는다. 천방지축 뒤쫓아간 사사끼도 허둥대며 담장을 기여넘었다. 담장밖으로 나오니 한적한 뒤길이다. 애녀석이 보이지 않았다.

비파소리가 나도록 갈팡질팡하던 사사끼의 눈에 외떨어진 허줄한 건물안으로 사라지는 애녀석의 그림자가 걸려들었다.

그 건물은 큰 극장들에서 오래 상영한 낡은 필림들을 받아다가 눅거리입장료를 받고 다시 상영하는 싸구려극장이였는데 언젠가 사사끼도 들어가본적이 있었다.

(요놈의 새끼, 어디 붙잡기만 해봐라!)

사사끼는 뿌드득 이를 갈며 그리로 쫓아들어갔다.

정오무렵이여선지 쥐죽은 나락처럼 괴적한 극장안에 들어서니 관람실문이 빠금하니 열려있는것이였다. 옳지, 요녀석이 저안에 들어가 숨었나부다고 생각하며 사사끼는 관람실로 뛰여들었다.

칠흑같은 어둠이 덮쳐들었다. 코를 찌르는 지린내에 미간살을 찡

그리느라니 객석 바로 옆에 변소간이 붙어있던것이 생각났다. 차차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기다란 나무의자들이며 무대의 륜곽이 어슴푸레 분간되였다.

얼핏 바스락소리가 들린다. 사사끼는 눈에 쌍불을 켜고 소리난쪽을 훑어보았다. 열댓걸음밖의 긴의자밑에 알릴듯말듯 옹크리고있는 자그마한 형체가 눈에 띄였다.

요놈, 인제야 독안에 든 쥐신세지. 사사끼는 쥐를 본 고양이마냥 살기가 돋쳐 호통쳤다.

《꼼짝말앗, 요놈의 새끼!》

숨어있던 애녀석이 통로로 뛰쳐나와 무대쪽으로 달아뺀다. 사사끼도 독을 올리며 뒤쫓았다. 마침내 애녀석을 거의 따라잡은 사사끼가 덜미를 나꿔채려고 갈퀴손을 내뻗치는 찰나였다.

돌연 휙—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어둠속에서 튀여나온 드센 힘이 놈팽이를 떠다박지르는것이였다. 와지끈뚝딱 나무의자들이 부서지며 사사끼가 모들뜨기로 객석에 나가떨어졌다.

창졸간에 벌어진 일이였다. 뜻밖의 생벼락에 반정신이 나갔던 사사끼는 뒤늦게야 부시덕대며 몸을 일으켰다. 그때 퉁명스레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눈길을 쳐드니 애녀석은 간데온데없고 장정같아보이는 어둑시그레한 형체가 무대우에서 내려다보고있었다.

《이거 네거지?》

장정녀석이 종이장 같은것을 펄럭대며 조롱하듯 묻는 소리였다. 어스무레해서 잘 가려볼수는 없었지만 따기맞은 계약서가 눈앞에 있다는것을 사사끼는 대번에 알아차렸다.

그러구보니 그믐밤에 귀신처럼 나타난 저 자식은 애녀석의 짝패거나 따기패의 두령쯤 되는가부다. 금시 피가 꺼꾸로 치솟아올랐다. 자기한텐 보물망치나 다름없는 문서장이 같잖은 따기군녀석의 손에 쥐여있다고 생각하니 간이 뒤집혀와 미칠것만 같았다.

사사끼는 비수를 뽑아 내두르며 드사납게 을러댔다.

《야 이 짜식아! 난 황금정의 후꾸다패 사람이다! 우리 패를 끌구와서 족살을 내기 전에 냉큼 그걸 못내놓겠어?!》

하나 예상밖이였다. 그쯤 으름장을 놓으면 끽소리도 못할줄 알았던 저켠에서 하하— 하고 실소를 하는것이 아닌가.

《족살을 낸다?… 그렇게 자신있으면 어디 뺏아보던가. 못뺏으면 밑씻개를 하구말겠어.》

장정녀석은 이렇게 빈정대며 정말 밑씻개를 할듯 문서장을 아무렇게나 구겨 호주머니에 쑤셔박더니 무대 저쪽으로 흔들흔들 걸어가는것이였다.

사사끼의 눈알이 새빨갛게 돋아올랐다.

《이 새끼!—》

선불맞은 짐승마냥 야성을 지르며 무대우에 뛰여오른 사사끼는 시퍼런 비수를 거머쥐고 적수에게로 달려들었다.

순간 비호같이 휘둘러차는 적수의 발길질에 사사끼의 비수가 허궁 날아가버린다. 련이어 날아든 적수의 주먹이 코수염에 가려진 인중을 짓조기는 순간 사사끼의 혼맹이는 그만에야 허공중에 흩어져버리고말았다. …

4

사사끼가 정신을 차려보니 궤짝같은 방 한구석에 자기가 처박혀있었다.

창문은 보이지 않고 벽과 바닥, 천정 할것없이 세멘콩크리트로 된 음습한 방이였는데 벌거스름한 5촉전등 하나가 매달려 어설픈 빛을 던지고있을뿐이였다. 지나간 영화광고판들과 상영중의 영화제목을 써넣은 노랑기와 빨강기들이 방안의 이벽저벽에 어수선히 세워져있는걸 보니 창고로 쓰는 극장의 지하실같았다.

웬 사내가 방 한가운데 석유상자를 엎어놓고 걸터앉아있었다. 활짝 열어제낀 저고리섶사이로 동가슴이 툭 불거져나온거랑 부르걷은 팔뚝에 칡넝쿨같은 피대줄이 울끈불끈 서려있는게 여간해보이지 않는다.

다름아닌 저 사내가 단매에 자기를 때려눕힌자임을 직감하자 사사끼는 호랑이앞의 들개마냥 눈알이 걷어질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비수를 쥐였던 손목뼈가 부러졌는지 욱신욱신 쑤셔왔다. 짝 바라

져있던 코수염도 어떻게 쥐질렸는지 삼검불처럼 온통 헝클어져있었다. 한낱 따기군나부랭이의 주먹질솜씨가 아니였다.

복날 두들겨맞은 개모양 바닥에 늘어져있던 사사끼는 불안과 공포에 싸여 끙끙대며 벽모서리에 기대앉았다. 그러는데 사내가 불쑥 데설궂게 묻는것이였다.

《어이 <곰보>, 날 알겠어?》

《?…》

사사끼는 그제서야 사내를 찬찬히 눈여겨볼수가 있었다. 대추방망이처럼 빈틈이 없는 몸, 결패사납게 우로 치째진 눈귀, 표범같이 매섭게 빛나는 눈초리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것같다.

얼마후 사사끼가 얼빠진 놈처럼 중얼거린다.

《당신은 다옥정 <깡쇠>?!…》

《깡쇠》라면 서울장안을 제세상인양 싸돌아치는 일본인불량배들도 자는 범 대하듯 조심스레 대하는 존재였다.

지금도 사사끼는 작년에 직접 목격했던 광경을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그때 후꾸다패의 녀석들이 명동의 어느 료리집에 들린 조선인권투선수들에게 트집을 걸어 패싸움이 붙었더랬는데 경찰은 일본인들을 비호하면서 조선인들만 붙들어간적이 있었다.

며칠뒤 황금정에 있는 은송정이라는 료리집에서 두령의 생일을 축하한답시고 후꾸다네 패거리들이 먹자판을 벌려놓았다. 그런 마당에 주먹 하나로 뛰여든 겁없는 조선사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깡쇠》였다.

《깡쇠》는 직방 두령인 후꾸다에게 다가오더니 단도직입으로 내뱉는것이였다.

《지금 당장 본정경찰서로 가서 갇혀있는 조선권투선수들대신 네가 류치장에 들어가든가 싫으면 한판 붙자! 난 조선사내고 넌 일본사내니 사내답게 붙자. 너네 떨거지들은 멀찌감치 물러서게 하구 둘중 누가 턱이 떨어져나가든 대갈통이 깨져나가든 서로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루 싸우자!》

후꾸다자신도 일본국내에서 선수권을 딴 전적이 있다고 으시대는 권투선수출신인데다 숱한 졸개들앞인지라 꽁무니를 사릴 방법이 없었다.

구경군들이 새까맣게 에워싸고 순사들까지 슬그머니 끼여들어 지

켜보았다. 그런 결투는 단판싸움이다. 재탕이란 없다. 한데 뭇사람들의 흥미를 끌어당긴것치고는 너무도 싱겁게 끝나버린 싸움이였다.

후꾸다가 먼저 주먹을 쓰며 달려들자 《깡쇠》가 왼쪽으로 몸을 빼면서 바른발로 상대의 정갱이를 냅다 걷어찼다. 제아무리 주먹이 세도 정갱이를 면바로 얻어맞으면 한순간 사지가 가드라드는 모양이다. 후꾸다가 오금을 꺾으며 주저앉을 때 《깡쇠》는 때를 놓침이 없이 적수의 목덜미를 손칼로 답새기고는 재차 몸을 날리며 모두발로 등때기를 콱 찍어놓았다. 후꾸다는 그길로 병원에 실려가야만 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깡쇠》의 주먹은 장안바닥에 더욱 소문나게 되였다. 후꾸다는 《깡쇠》를 대할 때면 깍듯이 《죠상(조씨)》이라고 불렀고 이찌가와같은 독종들까지도 《깡쇠》와는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였다. 지어 경찰들조차 《깡쇠》를 혼내겠다고 몇번이나 걷어넣어봤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깡쇠》를 동정하는 조선인 주먹패들이 저마끔 소동을 일구며 치안상태를 어지럽히는통에 시끄러워 도로 놔줄수밖에 없었다.

그런 《깡쇠》를 이런데서 보게 되다니? 헌즉 그 따기군애새끼가 《깡쇠》의 부하쯤이라도 되는가?…

약자앞에서는 갖은 오만을 다 부리다가도 막상 강자가 나타나면 한없이 비굴해져버리는 왜인근성은 사사끼 역시 나무랄데가 없었다. 사사끼는 허겁지겁 자세를 바꿔 꿇앉으며 대가리를 갑삭거렸다.

《예예, 죠상… 미처 알아뵙지 못했습니다요. …》

그런데 다음순간 아닌밤중에 홍두깨같은 물음이 날아드는것이 아닌가.

《돈의동 최박만일 네가 죽였냐?》

사사끼는 전기에 붙은것처럼 후뜰 놀랐다. 이건 웬 도깨비방망이야?!

뻥뻥해진 사사끼의 눈길이 《깡쇠》한테로 향해졌다. 그렇지만 끌날처럼 파고드는 《깡쇠》의 눈찌에 부딪치는 순간 사사끼는 황황히 눈길을 피하며 턱자없다는듯 수선을 떨었다.

《내… 내가 살인을 치다니요? 어느 자식이 그따위 개나발을 부는갑쇼? 최… 최방망인지 무슨 방망인지 난 그런걸 알지도 못하는뎁쇼. …》

《깡쇠》는 삶은 호박에 이발도 안들어갈 수작이라는듯 귀구멍을 우비더니 호주머니에 쑤셔넣었던 종이장을 꺼내드는것이였다.

사사끼의 낯가죽이 팽팽해졌다. 자기의 하오리소매속에 들어있던 계약서를 알아본것이다. 사사끼가 메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데 우정 목청을 돋구어 계약서를 내리읽는 《깡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약서. 갑 돈의동 117번지 최흥두. 을 광희정2가 89번지 사사끼 다로. 상기 량인은 다음조항을 리행하기로 상약하며 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함. 1. 을은 갑이 일임한 일을 한달내에 리행함. 2. 그 대가로 갑은 을에게 착수금 1 000원을 선불하며 5 000원은 부사후출급함. 상기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소지함. 대정15년 음력 5월 26일. 갑 최흥두. 을 사사끼 다로.》

《깡쇠》는 힝하고 코방귀를 뀌더니 뒤를 달았다.

《어랍쇼, 최박만이 아들하구 여기다 맞도장까지 시뻘겋게 찍었는걸. 이봐, 그런데두 최가를 알지도 못한다구?》

바빠맞은 사사끼가 범 본 놈 창구멍 틀어막듯 둘러댄다.

《흥두가 뉘 아들놈인지 내가 알게 뭔갑쇼. 죠상, 글쎄 난 최가란자를 본적도 들은적도 없다니깐요.》

《이 자식, 거짓말이 난당이로구나. 그럼 흥두가 일임한 일이라는건 대관절 뭐냐? 부사후출급한다는건 또 뭐구? 똑바루 말해. 흥두가 너한테 애비를 죽여달라구 청탁한걸 누가 모를줄 알아!》

《깡쇠》가 이렇게 닥달질하자 사사끼의 눈알이 휘딱 뒤집어졌다.

《원 애빌 죽이다니요! 이거 까무라치겠습니다요. 난 다만 흥두한테서 채무자들이 빚을 빨리 갚도록 독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뿐인뎁쇼. 근데 그 자식 아직은 백수건달이다보니 후담에 제가 애비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그때 가서 사례하겠다나요. 일은 그렇게 됐는뎁쇼, 죠상.》

《깡쇠》의 입가로 쓰거운 조소가 번졌다.

사사끼는 땀방울이 내돋친 뺨가죽을 파들거리며 상대방의 목적을 더듬으려고 애썼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깡쇠》가 최박만일 죽인자를 찾고있는걸가? 최가와 어떤 연줄이라도 있나?

문뜩 이 모든게 우연한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길거리에서 따기군애녀석과 부딪친것도 그래, 애녀석을 쫓느라 여기까지 온것도 그

래 자기를 함정에 끌어들이려는 속임수였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섬뜩해졌다.

《깡쇠》가 노리는게 뭔지 좀체 짐작할수가 없어 벙어리 랭가슴앓듯하는데 사사끼의 그런 속을 헤집어본듯 《깡쇠》가 픽 웃더니 말하는것이였다.

《이봐 <곰보>, 터놓구 말해서 최가를 누가 죽였든 상관하구싶진 않아. 그런데 말이야. 나두 이 바닥에서 살자니 개나리(왜놈형사를 가리키던 말)들을 영 외면할수는 없지 않나. 싫든좋든 이따금씩 그쪽 일두 좀 해줘야 하거던. 하지만 너무 떨건 없어. 이 <깡쇠>가 인정사정 모르는 놈은 아니니까. 아무리 막부득해두 경우를 봐가면서 나선단 말이야. 난 거짓말쟁이들을 좋아 안해. 허니 솔직히 털어놔봐. 최가를 네가 죽였지?》

사사끼는 등어리에 날이 설만큼 바짝 긴장해졌다.

그런즉 《깡쇠》가 경찰일을 거들어주고있다는 소린가? 하긴 경찰에서 살인사건 같은것을 수사하다가 미궁에 빠지면 길거리의 왈패나 소매치기들의 손까지 빌리는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결국 맞갖잖으면 자기를 살인범으로 경찰에 넘겨줄수도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손목재기가 쿡쿡 쑤셔와 낯살을 찌프리면서도 사사끼는 한사코 잡아뗐다.

《죠상, 계약서때문에 날 의심하는것같은데 참말이지 건 오해라니깐요. 이 모가질 걸고 맹세합니다요. 난 흥두네 애비 죽은것 하군 아무 관계가 없다는데두요. …》

손으로 제 모가지 자르는 시늉까지 해보이는 사사끼의 낯판에는 자못 억울하다는 표정이 하나가득 게발려있었다.

《깡쇠》는 그러는 녀석을 굿구경하듯 건너다보며 씨까슬렀다.

《헌데 흥두가 하는 소린 너하군 판판 다르던데. 네가 자기한테 억지루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군 애비를 죽였다구 해.》

《핫하하!…》

사사끼가 앙천대소를 한다.

《흥두 그 새끼가 그따위 아가리질을 해요? 흥! 이제 당장 그 새끼 여기다 끌어와보시죠. 내앞에서도 그 새끼 감히 그따위 수작을 쥐치면 죠상, 장담하는데 내 혀때기를 잘라 바치리다!》

어림도 없다는듯 큰소리치는 사사끼의 두눈알은 그까짓 얼림수에 넘어갈 자기가 아니라는듯한 비웃음으로 희번덕대고있었다.

《그래?…》

《깡쇠》가 심드렁히 대꾸하더니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내보였다.

《이게 뭔지 알아보겠어?》

잠시 눈살을 모으고 《깡쇠》의 손에 쥐여진 물건을 바라보던 사사끼는 간이 덜컹했다.

천만뜻밖에도 뱀몸뚱아리가 새겨진 단도집이 아닌가. 눈을 비비고 다시 살펴봐도 자기가 잃어버렸던 이찌가와의 단도집이 분명했다.

이찌가와의 단도를 훔친 뒤 얼마후 사사끼는 어딘가에서 단도집을 흘려버렸다. 어디다 떨구었는지 아무리 여기저기를 뒤져봐도 찾을수가 없어 내버려두고말았댔는데 느닷없이 이런데서 보게 될줄이야. 귀신이 곡할노릇 아냐. 도대체 어떻게 저게 《깡쇠》의 손에 들어갔담?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못다물고있는 사사끼의 귀에 대답을 독촉하는 《깡쇠》의 거치른 목소리가 벼락치듯 들려왔다.

《뭔지 알겠나 말야?!》

그때에야 사사끼는 화뜰 놀라며 황급히 도리질을 쳤다.

《모… 모르겠는뎁쇼.》

《깡쇠》의 눈초리가 칼집에서 반쯤 뽑힌 비수마냥 번뜩였다.

《이봐, 내 이미 경고했지? 난 거짓말쟁이들을 좋아 안한다구. 이건 너네 세방에서 나온 단도집이야.》

《천만에요!》

사사끼가 펄쩍 뛰였다. 《깡쇠》는 댕댕해서 날뛰는 사사끼의 눈길을 턱으로 눌러버리며 내쏘았다.

《네 녀자한테서 받았는데두!》

《?!…》

홀연 사사끼의 입이 얼어붙어버렸다. 《깡쇠》가 쥐여박듯 뚱겨주었다.

《왜? 아직두 생각나질 않아? 네가 세방에서 개지랄을 치다가 흘린걸 네 녀자가 우리한테 넘겨줬단 말야, 이 시러베새끼야!》

사사끼는 어리친 개새끼모양 동공이 풀어져 《깡쇠》를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마구 들부셔진 세방, 에이꼬의 귀전을 베며 벽에 들이박히던 비수, 발밑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에이꼬… 구지레한 기억의 꼬투리들이 하루살이떼마냥 눈앞에서 어지러이 맴돌았다.

그러니 단도집은 자기가 다름아닌 세방에서 떨구었고 에이꼬년이 그걸 주어서 《깡쇠》한테 넘겨줬다는 소린가?…

뒤통수를 얻어맞은듯 뻥해있던 사사끼의 입에서 악에 받친 욕설이 새여나왔다.

《에이꼬, 그 쌍년이!…》

그러거나말거나 《깡쇠》의 공박은 계속되였다.

《이상하질 않아. 최가의 염통을 찌른 단도는 종로경찰서에 놓여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 단도집은 네게 있는가 말야. 이 단도집을 내가 경찰서에 가져가면 개나리들이 대뜸 살인범을 찾았다구 <반자이>를 부를텐데…》

한데 그쯤되면 굽어들줄 알았던 사사끼가 여전히 뻗쳐대는것이였다.

《죠상은 롱을 곧잘하시누만요. 안됐지오만 난 그런걸 처음 보는뎁쇼.》

《깡쇠》도 배심좋게 받아친다.

《네 녀자가 경찰앞에서 증언해두 그따위 헌수작을 치나 두구 볼가?》

사사끼의 이마빡에 퍼런 피줄이 두드러졌다. 허나 녀석은 찌그러뜨렸던 눈살을 애써 펴며 코웃음을 쳤다.

《흥, 괜한 헛수골랑 마쇼. 아무튼 살인범은 내가 아니라니깐요. 난 부재증명을 할수 있는뎁쇼. 얼마든지요!》

제법 형사들이 쓰는 말마디까지 내두르며 흰소리치는 사사끼의 입가에는 얄미운 웃음이 얼른거리고있었다.

《깡쇠》의 눈귀가 비수처럼 치켜올라갔다. 그는 여느때 같으면 어방도 없지만 지금만은 그냥 넘어가준다는 뜻을 담은 눈길을 사사끼의 이마빡에 한 3초쯤 박아주고는 다시금 단도집을 내흔들었다.

《까짓것 그렇다구 해두지. 하긴 그깐 살인범이나 찾아준다구 그것들이 날 크게 생각해줄린 만무한거구. … 헌데 이 물건짝이 별스레 눈에 익거던. 꼭 어디서 많이 본것같단 말야. 가만있자, 그러구보니 이게 너네 후꾸다패 부두령의 단도집이 아냐? 옳아, 틀림없거던!

이찌가와가 요전에두 잃어먹은 단도때문에 아래것들을 한바탕 달궈댔다더니 분명 그 자식게 헨둥해!》

사사끼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자라처럼 목을 움츠러뜨린 녀석의 몰골에서 잔뜩 팽팽해진 긴장감을 읽으며 《깡쇠》는 계속 능청을 부렸다.

《잃어버린 부두령의 단도집을 <곰보>라는 졸개녀석이 가지고있다? 하하… 거참 묘한걸. 이찌가와 그 자식 까불어댈 땐 눈꼴이 사납지만 하여튼 안됐어. 너네 사무라이족속들은 칼을 귀신 섬기듯한다지. 이봐 <곰보>, 어때? 내가 이 단도집을 찾아주면 이찌가와가 날 고맙게 여길가?…》

섬찍한 두려움이 사사끼의 목구멍을 눌러버렸다. 《깡쇠》가 늘어놓는 소리가 나긋나긋한 올가미마냥 점점 목을 조여왔던것이다.

사사끼는 비로소 자기가 헤여나기 힘든 옹노에 걸려들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깡쇠》가 저 단도집을 이찌가와한테 보내는 날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경찰의 손에선 혹시 빠져나갈수 있을지언정 이찌가와의 손에선 절대로 빠져나갈수 없다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는 사사끼였다.

개패듯 자기를 홍달구던 이찌가와의 상통이 불악귀처럼 눈앞에 덮쳐들었다. 제 단도를 훔친 놈을 붙들기만 하면 간을 도려 씹어먹겠다고 악을 쓰던 소리가 소름끼치게 귀통을 후려갈겼다.

등골을 훑는 얼음장같은 전률에 턱을 떨며 사사끼는 갑자기 찐붕어꼴이 돼버리고말았다.

《깡쇠》는 랭소어린 눈초리로 그 꼴을 지켜보다가 그만하면 됐다는듯 단도집을 허리춤에 걷어넣는것이였다. 그러더니 담배 한대를 꺼내여 엄지손톱에 톡톡 쳐서는 거느시 입가에 걸터문다.

《더 긴말 않겠다. 이 담배가 다 타기 전에 얘길 끝내자.》

자르듯 이렇게 뱉으며 성냥을 득 그어대는 《깡쇠》의 눈빛이 서늘하다. 솔직히 터놓겠는지 말겠는지 결심하라는 의미였다. 숨가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사사끼는 경고등인양 빨갛게 타들어가는 담배불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다.

5

이야기가 벌어지는 방결에는 골방 비슷한 자그마한 방이 문짝도 없이 붙어있었다. 내버린 필림토막따위들이 무져있는 그 방에서 김현무는 아까부터 둘사이의 대화를 주의깊게 듣고있었다.

처음에는 그도 갑수와 같이 사사끼를 대면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사사끼가 후날 경찰에 붙잡히는 경우도 생각해서 벌써부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게 좋겠다는 조갑수의 의견을 듣고 결방으로 몸을 피한것이다.

그나저나 주먹세계에서 치여나서인지 사사끼를 드다루는 조갑수의 수완이 여간 아니였다.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놈팽이를 호되게 을러메기도 하고 능청스레 야유하기도 하면서 개떡같이 주무르는 솜씨에 현무는 몇번이나 혀를 찼는지 모른다.

금랑이로부터 최흥두와 사사끼사이의 수상쩍은 관계를 전해들은 이후 현무는 갑수와 함께 초조하고 바쁜 나날을 보냈다.

최가집에서 사라진 옥새의 행방을 밝히자면 최박만을 죽인 인물을 찾아내야 했고 그러자면 최가를 찌른 단도의 임자를 알아내야 했다. 김현무와 조갑수는 종로경찰서것들의 수사동향에 촉각을 모으는 한편 류달리 의심이 가는 최흥두와 사사끼를 추적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종로경찰서에서 후꾸다패 부두령 이찌가와를 단도임자로 지목하고 문초했지만 나중에 현장부재가 증명되여 풀어주었다는것과 이찌가와가 자기의 단도를 훔친 놈이 졸개녀석들속에 있다고 의심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눈길을 끄는것은 사사끼가 바로 후꾸다패에 속해있고 더우기 자기를 혼찌검낸 이찌가와에게 앙심을 품고있다는 사실이였다.

총총히 방도를 모색하던 현무는 사흘전 금랑이와 함께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사사끼의 녀자를 만나러 갔었다. 흥두한테 돈을 내라고 협박하면서도 왜서인지 경찰서를 두려워하는 사사끼야말로 필경 이찌가와의 단도를 훔쳐 최가를 죽인자일거라는 직감에서였고 놈팽이가 다른 곳에서는 조심하더라도 제 녀자앞에서는 혹 탕개를 풀고

단서를 흘렸을지도 모른다는 은근한 기대에서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신을 잃고 마당에 쓰러져있는 에이꼬를 보게 될줄이야.

그날 에이꼬는 병원에서 류산을 하였다. 요행 금랑이와 현무가 병원에 데려갔기에망정이지 조금만 더 늦었어도 그 녀자자신마저 목숨을 잃을번하였다.

오래도록 자리를 뜰념을 않고 불행하고 미천한 한 일본녀자를 깊은 동정심을 안고 돌봐주는 조선사람들에게서 에이꼬는 난생처음 인간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혀를 깨무는것같은 억눌린 흐느낌소리와 온갖 수치를 참고있는듯 지르감은 눈을 가리우고있던 그 녀자의 흐트러진 머리칼이 지금도 현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에이꼬는 현무와 금랑이에게 사사끼라는 악한에 대하여, 그자에게 개처럼 끌려다니며 겪은 자기의 치욕과 설음에 대하여 찢겨진 음성으로 하소연했고 얼마전에 사사끼가 자기한테 칼부림까지 하며 미친듯이 행패를 부리다가 뱀몸뚱아리가 새겨진 단도집을 떨구었다는것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뒤뜨락구석에 팽개쳤던 단도집을 찾아 현무네한테 가져다주기까지 하였던것이다.

갑수는 즉시 영남이를 불러 사사끼가 흘린 단도집이 종로경찰서에 있는 단도와 한짝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후에 와서 너무 서둘러 내린 단정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지만 그때로서는 현무도 갑수와 마찬가지로 환성을 지르고싶은 심정이였다.

최가는 이찌가와의 단도에 찔려 죽었는데 이찌가와에게서 단도를 훔쳐낸자가 사사끼라는것을 밝혀냈으니 사사끼가 최가를 죽였다는것은 손금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누가 사사끼한테 최박만을 죽이라고 시켰을가? 흥두일가? 혹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건 아닌지?… 어떻든 최가의 죽음과 함께 옥새가 사라졌으니 사사끼에게 옥새의 행방을 따지고들어야 하는것만은 자명한 리치였다.

현무는 갑수에게 지체없이 단도집을 가지고 사사끼를 문초하자고 말했다.

역시 이런 일을 실행하는데서는 조갑수가 한수 우였다.

사사끼의 마수에서 건져내기 위해 에이꼬를 금랑이가 소개해준 인

천의 어느 일본인집에 하녀로 빼돌리고난 갑수는 동료를 시켜 사사끼한테 흥두가 만나잔다고 전하게 하였다.

짐작한대로 사사끼는 당장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놈팽이가 원남동 네거리에 나타났을 때 갑수가 짜놓은대로 영남이가 사사끼의 소매속에서 계약서를 슬쩍 빼내고는 이리로 유인해왔다. 이 극장이 비교적 외진 곳에 위치한데다가 주인이 조갑수의 신세를 여러번 진적이 있는지라 일을 벌리기에 유리한때문이였다.

그렇게 되여 현무네는 단도집과 함께 계약서라는 유력한 증거물을 손에 넣을수 있었고 사사끼는 범의 아가리에 뛰여든 개신세가 되고만것이다.

《그래, 인젠 솔직히 터놓겠어?》

담배를 다 태운듯 날카롭게 묻는 조갑수의 목소리가 현무를 상념에서 깨웠다. 사사끼는 끙끙 갑자르기만 할뿐 대꾸를 못한다.

마침내 갑수가 결패사납게 내뱉았다.

《좋아. 터놓기 싫으면 할수 없지 뭐. 얘, 깨돌아!》

깨돌이란 코잔등에 주근깨가 깨알처럼 박혀있다고 해서 영남이에게 붙여진 별명이다. 문여는 소리가 나자 갑수가 일렀다.

《너 지금 당장 이 단도집을 가지구 종로경찰서루 가서… 아니, 명동의 <랑화헌>에 뛰여가서 후꾸다패 부두령 이찌가와한테 알리거라. 내가 단도를 훔친 녀석을 붙잡았으니 빨리 이리루 오라구. 알겠냐?》

《예, 형님.》

영남이의 애된 목청이 짜랑짜랑 방안을 울렸다. 그러자 대번에 염라왕을 만난것처럼 기겁을 떠는 사사끼의 얼빠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지 마십쇼, 죠상. 제발 그러지 마십쇼. …》

갑수가 왈칵 증을 낸다.

《이 새끼 시끄러워!》

《다… 다 말하겠으니 죠상, 제… 제발 그러지 마십쇼. 이찌가와가 알면 난 모가지없는 귀신이 됩니다요. …》

울음섞인 사사끼의 소리였다.

현무는 웃음이 나오는것을 겨우 참았다. 물속에 빠진 생쥐모양 허우적댈 사사끼의 두눈알이 금시 눈에 보이는듯싶었던것이다.

사흘전에 사사끼가 단도를 훔친자를 찾겠다고 독살을 부리는 이

찌가와의 손에 걸려들어 홍찌를 갈겼다는것을 현무도 들어 알고있었다. 그런 사사끼에게 있어서 이찌가와는 형사나부랭이들보다도 더 무서운 저승사자나 다름없을것이다.

《다 털어놓겠다?…》

갑수의 말투가 다소 누그러들었다. 사사끼가 헤덤벼치며 응대했다.

《예, 예, 죠상. 다 털어놓겠다니깐요. …》

갑수는 놈팽이가 딴 생각을 못하게 단단히 뒤를 박았다.

《그럼 어디 털어놔봐. 헌데 거짓말을 했다간 알지?!》

《예, 예, 죠상. …》

잠시 숨을 돌리고난 사사끼는 어쩌는수없이 감추고있던 내막을 터놓는것이였다.

《달포전에 최흥두의 단짝패인 기주란 녀석과 만났댔죠. 그녀석하군 투전판에서 알게 됐는데 길에서 날 만나도 본체만체하던 자식이 불쑥 찾아와선 쑤군대는 수작이 흥두네 애빌 감쪽같이 죽여주기만 하면 흥두가 애비재산을 상속받은 담에 톡톡히 사례한다는게 아닌갑쇼. 하필이면 왜 날 골랐냐구 물으니까 내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는지라 아는 사람이 적어서 맞춤하다나요. 말이야 바른대로 돈 싫다할 놈이 어디 있는갑쇼. 더군다나 투전빚도 약차하던차라 난 두말않구 응해나섰죠. 기주녀석을 따라가 흥두를 만나보니까 그 자식 한다는 수작이 일이 성사되면 유산을 상속받은 담에 2천원을 주기로 하고 먼저 착수금으로 백원을 주겠다질 않나요. 난 침을 탁 뱉구 흥두한테 들이댔죠. 애비가 뭬지면 5천원을 내되 먼저 착수금으로 천원을 내라구요. 그 자식 첨엔 뻗대더니만 내가 자리를 걷어차구 일어서는 시늉을 하니까 마지못해 대가릴 꺼떡거리두만요. 끝내 계약서를 그렇게 만들구 맞도장을 찍었습니다요.

그러구나니까 절로 이찌가와새낄 복수할 생각이 들더라구요. 옳습니다요, 죠상. 그 새끼 단도를 내가 훔쳤다구요. 에익, 내 그때 그 개새낄 해제끼지 못한걸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니깐요. 난 마침이라 생각하구 이찌가와의 단도를 쓰기로 작정했더랬죠. 그 새끼한테 살인혐의를 들씌워서 골탕을 먹일려구요. 근데 재수없이 고만에야… 게다가 기회를 얻기도 헐치 않았죠. 난 흥두 애비가 밖으로 나올 때마다 뒤를 밟았건만 적당한 기회가 어디 생겨야 말이죠. 뭐가 그다지

급한지 흥두자식쪽에선 사나흘에 한번씩 재촉이 오두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별안간 흥두 애비가 제 집에서 자다가 칼침을 맞고 뒈졌다는 소리가 들려오는게 아닌갑쇼. 깜짝 놀랄수밖에요. 대체 어떻게 된 도깨비판인지 알수가 없더라니깐요. …》

애기가 이쯤 이르자 조갑수가 사사끼의 말을 사납게 무질러버린다.

《이 새끼 아직두 헛나발질이야?! 그럼 살인현장주변에서 이찌가와의 단도가 발견된건 어떻게 된거냐?》

사사끼가 쩔쩔매며 우는소리를 했다.

《글쎄올시다, 죠상. 나도 통 그걸 모르겠다니깐요. 실은 흥두애비가 죽기 며칠전에 그만 그 단도를 떼워버렸죠. 차…참말이라니깐요, 죠상. 제발 제 말을 마저 들어주십쇼. …그날 수표정근처를 지나가는데 잘 아는 투전군녀석이 날 붙잡는게 아닌갑쇼. 해주서 노름좋아하는 부자집자식 하나가 서대문정에 와서 빈둥거리는데 그 자식을 털어먹자는겝니다요. 마침 주머니에 흥두한테서 받아쥔 착수금도 어지간히 있겠다 해서 난 얼뜬 응했죠. 그날 밤 서대문정의 어느 집에 가서 해주자식이랑 몇몇이하구 밤새껏 화투판을 벌려놨구요. 그날은 참말이지 재수가 불일듯했는뎁쇼. 내가 제일 많이 땄는데 글쎄 나중에 보니까 5백원나마 땄더라니깐요. 해주자식은 개탕을 쳤구요. 하루밤새 횡재를 한 난 이튿날 진종일 놀구 뚜들겨먹었구요. 그리군 밤에 또 그 해주자식이랑 마주앉았구요. 이번엔 전날과 판판 다르더라구요. 전날엔 판마다 떼우던 자식이 그날엔 어찌나 손속이 세던지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판돈을 후려가더라니깐요. 종당엔 다 떨어져 나가구 해주자식과 나 둘만 남았을 때 그 자식이 지껄이두만요. 까짓거 밤 새울것 없이 단판에 결판내자구요. 나도 그럴테면 그러자구 큰소리쳤죠. 근데 정작 까놓구 보니까 이런 망할… 난 기껏 서시가 나왔는데 그 자식 장귀를 척 까놓는게 아닌갑쇼. 종내 흥두한테서 받은 착수금까지 깨깨 다 털리고말았습니다요. 하두 분통이 터져와서 난 품구있던 이찌가와의 단도를 해주자식앞에 내놓구 사정했죠. 한판만 더 하자구요. 단도집이 없는 맨몸뚱이바람의 칼인데도 그 자식 돈될 물건이라구 봤는지 군소리없이 응하두만요. 하지만 그날 밤엔 더럽게는 재수가 옴붙듯하더라구요. 그 단도마저 홀랑 떼우고말았으니깐요. …》

《이봐, 그따위 개수작을 믿을 바보가 어디 있어!》

갑수가 성깔지게 욱박지르자 사사끼가 아부재기를 치는것이였다.

《제발 믿어주십쇼, 죠상.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니깐요. …》

구질구질 늘어놓는 사사끼의 사설을 들으며 김현무는 치밀어오르는 열물을 쓰겁게 삼키고있었다.

에이꼬의 말에 의하면 혹가이도의 고향에 있을 때부터 쩍하면 흉기를 휘두르고 도박과 오입질을 일삼으며 장거리의 망종으로 굴러먹던 사사끼는 8년전 어느날 술집 작부였던 에이꼬를 두고 한 놈팽이와 싸움질하다가 창황중에 살인을 치고말았다고 한다.

결국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였고 더우기는 죽은자의 외삼촌이 유력한 《야꾸자》패의 두령이였던터라 복수에 나선 그 부하들의 추적까지 받게 되였다. 일본땅에서 그대로 어물대다가는 언제 쇠고랑을 차든가 모가지없는 귀신이 될지 모를 판국이였다.

하여 눈독을 들였던 에이꼬를 끌고 야밤도주한 사사끼는 쯔가루해협을 건너 기차로 혼슈의 맨끝인 시모노세끼까지 갔고 거기서 밀선을 타고 조선의 부산항으로 도망쳐왔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득실거리는 부산이나 서울 같은데서는 아직 안전치 못하다는것을 깨닫자 다시 렬차에 몸을 싣고 멀리 북변으로 향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되여 가닿은 곳이 두만강변의 어느 목재판이였다.

사사끼는 그 일대에서 산림간수를 하던 사촌동생의 소개로 목재판의 십장자리를 하나 얻게 되였다. 하건만 까마귀 백년 가도 해오라기 못된다고 이 땅의 두메에 들어박혀서도 녀석의 개버릇은 여전하였다. 혹가이도에서와 다름없이 투전과 협잡질에 미쳐돌아갔고 조금만 수틀리면 흉기를 휘두르며 만용을 부리군 하였다.

한해도 못가서 사사끼는 검척때 롱간을 부리다가 싸움이 붙어 회계원을 든장대로 까눕혔고 그것때문에 재판까지 받게 되였다. 요행 사촌동생이 힘을 써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올수는 있었지만 그 일로 해서 근방의 탄광으로 쫓겨간 녀석은 거기서도 십장질을 하면서 탄부들의 품삯을 잘라먹다가 모두매를 맞고 또다시 쫓겨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에이꼬는 그런 녀석에게 지지리 부대끼며 갖은 곤욕과 고초를 알뜰히 치렀다. 낮에는 사사끼의 강박에 떠밀려 밀매음으로 돈을 벌어와야 했고 밤에는 밤대로 지친 몸을 쉴새도 없이 녀석한테 괴로움을

당해야 했다. 몇번이나 달아나려 했지만 그때마다 녀석한테 붙들려 죽도록 매를 맞았다고 한다.

비참한 제 신세를 어쩔수 없는 팔자로 여기며 그 녀자는 늑대의 아가리에 물린 양처럼 사사끼한테 속절없이 끌려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다.

도적개 몰리듯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사사끼는 작년에 슬그머니 서울로 기여들었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쫓겨나다나니 더 붙어살만한데도 신통치 않았거니와 인제는 혹가이도에서의 살인건도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어렴풋해졌으리라는 속구구에서였다.

물론 시라소닌 산에 있어도 시라소니, 들에 있어도 시라소니라고 사사끼 같은 녀석이 도회지에 나와봤댔자 몸을 담을데라고는 후꾸다 패따위의 불량패밖에 없었으리라는것은 뻔드름한 일이다. 헌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그 버릇만은 갈데 없어 패거리의 돈주머니를 후려내 투전판에 들이밀다가 그만에야 이찌가와한테 덜미를 잡혔던것이다.

문득 현무의 뇌리에 언젠가 신문에서 본적 있는 일본사회의 이른바 《번민청년》이란 말이 떠올랐다.

일본이 로일전쟁에서 이겨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장악하기는 하였지만 전쟁을 치르느라 거덜이 난 재정형편으로 경제는 몸살을 앓았고 일본사회는 전쟁터에서 죽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망령에 시달렸다. 학교를 졸업해도 온전한 일자리를 구할수 없었고 암울한 미래와 고달픈 현실사이에서 방황하다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했으니 그러한 《번민청년》들은 일본사회의 골치거리로 떠올랐다.

식민지통치와 자국의 실업난해소를 위해 조선과 만주이민을 장려한 일본의 식민주의자들은 《나약한 젊은이》들을 나무라는 한편 그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었다.

왜 굳이 경쟁이 치렬한 도꾜에서 립신출세의 길을 찾으려다 좌절하느냐? 젊은이들의 꿈을 펼칠 공간은 많다, 조선과 만주로 눈을 돌리라고.

그러한 부추김에 고무된 일본의 많은 지식청년들이 소의 밑구멍이 되느니 닭의 주둥이가 되자는 야심을 품고 부산행 련락선에 몸을 실었다. 조선에 틀고앉은 식민지통치기관들과 일본인회사며 상점들이 그들을 기꺼이 고용했고 식민지에서 쉽사리 《고급》일자리를 구한 학교선배들의 《성공담》은 후배들을 격려해주었다. 일본의 학교들중에

는 졸업생들에게 돌리는 취업소개란에 《조선》항목을 따로 설정하는 학교들도 생겨나게 되였다.

식민지에 와서 운수가 트인것이 비단 일본의 지식청년들만이던가. 장사군과 노가다, 사기군이며 폭력배 등 각양각색의 일본인들이 훈도시(일본남자들이 샅에 차는 천)에 불알 두쪽만 차고 조선에 건너와 살판을 만났다. 대일본제국의 식민지에서 그들은 거칠것이 없었다. 빈손으로 현해탄을 건너온자들이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거저나 다름없이 노나준 이 땅의 옥토들을 타고앉아 만석군이 되였는가 하면 장거리에서 조무래기들의 코묻은 동전잎이나 호려내던 알사탕장사군들이 거금을 쥐고 흔드는 고리대금업자가 되는 판이였다.

일본에서 번민하던 그들은 조선에 와서 저들의 번민을 털어버렸고 왜인들이 털어낸 번민은 고스란히 조선사람들의 몫으로 되고말았다.

검붉은 분노가 현무의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무지막지하고 용렬한 저 왜놈불망종도 자기의 우환거리를 털어내기 위해 이 땅에 건너온 불청객이고 일본이 식민지에 털어버린 허다한 잡쓰레기들 가운데 하나라 해야 할것이다.

옆방에서는 갑수가 계속 사사끼를 조져대고있었다.

《아무래두 이찌가와를 불러와야 이 새끼 정신이 들겠나부다. 깨돌아!》

《아이구 죠상, 제발 이러지 마십쇼. 글쎄 그 단도가 무슨 도깨비조화루 경찰서에 가있는지 참말 모르겠다니깐요.》

《닥쳐, 이놈아! 그럼 흥두한텐 왜 애비를 죽여줬으니 5천원을 마저 내라구 했냐?》

《건 사실 이렇게 된겁니다요. 흥두 애비가 죽었다는걸 알구나서 첨엔 나도 어리뻥뻥해있었죠. 근데 막상 흥두를 만나보니 그 자식은 내가 해치운걸루 알구있더라구요. 그래 돈 5천원을 놓치고싶질 않아서 난 이것저것 얻어들은 소릴 가지구 그 자식앞에서 둘러맞춘거죠. 아무튼 형님, 흥두 애빈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요. 제발… 제발 믿어주십쇼, 형님. …》

사사끼가 급해맞아 형님소리까지 개울리며 애걸복걸하는 소리다. 현무는 골똘히 생각했다.

사사끼의 말이 거짓같지 않았다.

어제 오후에 종로경찰서의 급사가 갑수한테 찾아왔었다. 그는 조갑수의 친구의 동생이였는데 갑수가 부탁한대로 경찰서의 동정을 몰래 알려주고있었다.

한데 급사의 말이 누가 귀띔했는지 경찰도 사사끼를 살인범으로 의심하고 뒤조사해보았지만 사건당시 사사끼는 투전판에 있었다는것이 확인되였다는것이다. 단도자루에 지문이라도 남아있으면 중요한 단서로 되였겠건만 그것마저 조심스러운 살인범이 말끔히 지워버렸다고 한다.

지난밤에 갑수가 몇몇 동료들을 움직여 알아본 결과 급사의 말은 사실이였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현무는 락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사끼를 닥달질하면 여불없이 옥새의 행방을 알아낼수 있으리라 자신했었는데 사사끼가 최가를 죽이지 않았다니 가슴 한구석이 펑 뚫리는것같았다.

사사끼가 아니라면 누구인가? 혹시 흥두가 바빠맞을 리유가 있어 제손으로 애비를 죽인건 아닐가? 허나 최흥두 역시 사건당시 별채의 자기 방에 있었다는것이 확인되였다지 않는가. 그러니 이찌가와의 단도로 최가를 죽인 인물은 사사끼도 최흥두도 아닌 제3의 인물이란 말인가? 십중팔구 옥새의 행방을 알고있을 그 인물을 찾아내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한것은 사사끼한테 있던 이찌가와의 단도가 어떤 쪼간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갔다는것이다.

의논끝에 현무네는 본래 계획대로 사사끼를 족쳐보기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진실여부를 확인하고 이찌가와의 단도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일을 벌려놓았던것이다.

허나 사사끼에게서 얻어낸것은 기대에 비해 너무도 보잘것없지 않은가.

갑수도 더 짜봐야 나올게 없다고 생각한듯 말머리를 돌린다.

《이봐 <곰보>, 살고싶거든 내 말 잘 들어둬. 입건사를 잘하구 조용히 있어. 그리구 너한테서 이찌가와의 단도를 후려낸 자식을 보면 제꺽 나한테 알리구. 알아들었어?!》

《예예, 죠상… 여부가 있습니까요 죠상…》

조갑수의 입에서 떨어지는 분부라면 뭣이든 다 받아물겠다는 황

겁함이 사사끼의 목소리에 잔뜩 개발려있었다.

현무는 옆방에서 벌어지는 대화를 들으며 생각을 이어갔다.

하긴 사사끼에게서 얻어낸것이 영 없는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한 일이지만 최박만을 죽여달라고 사사끼한테 시킨자가 다름아닌 최흥두라는것을 확인한것이다.

하다면 흥두가 사사끼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살인을 청탁한건 아닐가? 무엇때문에 흥두는 애비를 죽이게 했는가? 재산상속때문에?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리유때문에? 흥두는 옥새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알고있는가?…

현무는 실타래 엉키듯 뒤엉켜도는 의문부호들을 붙안고 모대기고 있었다.

6

《빨랑빨랑! 더 빨랑!》

최흥두는 콩밭에 서슬칠듯 덤벼치며 인력거군을 연방 다몰아댔다.

나먹은 인력거군이 인력거채를 가슴에 안고 헐레벌떡 내달린다. 물주머니가 된 인력거군의 적삼등이며 여위고 주름진 목덜미로 번져흐르는 비지땀이 희뿌연 가로등불빛에 언뜻언뜻 드러났다.

그래도 흥두는 성차지 않아 더욱 들볶아쳤다.

《아, 좀더 빨랑 끌질 못해!》

넨장할, 이럴줄 알았으면 차라리 택시를 부르는건데. 흥두는 벌써 몇번이나 이렇게 투덜대며 안절부절을 못했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좀전까지만 해도 내자동의 어느 료리점에서 논다니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질탕을 쳐대던 흥두는 한순간에 번쩍 술이 깨고말았다.

천만뜻밖에도 금랑이가 리문식당에서 기다리겠다고 전갈을 보내온것이 아닌가.

선뜻 믿을수가 없어 흥두는 버릇대로 제 볼따귀살을 비틀어보았다.

틀림없는 생시였다. 헌즉 금랑이가 정말루 문을 열어주었단 말이

지. 흥두의 입이 가로 터져 귀에 걸렸다. 전번에 놀이배에서 만났을 때 방긋이 미소를 지어보이며 초면인사를 건네고 뒤날을 약속했던 금랑이였다.

그날부터 흥두는 밤이면 꿈속에서 노상 금랑이를 부둥켜안고 자군 하였다. 귀기울이면 비단처럼 부드럽고 아릿다운 금랑이의 목소리가 되살아왔고 눈을 감으면 싸늘하면서도 이쁘장스레 웃던 가늘죽한 그 눈매가 자꾸만 떠올라와 견딜수 없었다.

하건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꿩 궈먹은 소식인지라 목마른 송아지 우물 들여다보듯 애간장을 태우고있더랬는데 급기야 이런 기별이 날아든것이다.

흥두는 그길로 벌떡 자리를 차버리고 일어났다. 함께 놀던 논다니들이 분칠한 얼굴을 찡그리며 시샘하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금랑이에 비하면야 그깟년들은 값싼 비지떡이구말구.

한가랭이에 두다리 넣을듯 헤덤비며 정신없이 뛰쳐나온 흥두는 때마침 맞다든 인력거를 붙잡아타고 부랴부랴 리문식당으로 향했던것이다.

그럭저럭 인력거가 종로2가를 가까이하고있었다. 흥두는 들썩대는 남비뚜껑모양 흥떠 금랑이를 만날 생각을 하였다.

보나마나 그 계집도 만석군의 상속자를 놓치고싶지는 않았을테지. 아무렴, 돈소리가 나오면 목석도 침흘린다는데 금랑인들 돈앞에서야 갈데올데 있을라구. 새침데기 골루 빠진다구 지금은 태가락을 부리면서 얌전을 빼도 온 장안이 알아주는 활량인 이 흥두가 강물 푸듯 돈쓰는걸 보면 목맨 망아지처럼 고분고분 끌려올걸.

인력거우에 높다랗게 앉아 개잡은 포수마냥 꺼떡거리며 흥두는 구름낚을 궁리를 계속하였다.

기주자식이랑 난봉친구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필시 눈이 뚱그래질테지. 녀석들, 어디 한번 이 흥두의 솜씨를 봐라! 제손으루 제 배때기에다 금랑이의 이름을 새겨넣구 뻐기는 자식들도 있다는데 헹, 난 금랑이가 직접 내 엉덩짝에 제 이름을 새겨넣게 할테다. 그걸 보면 다들 터진 창구멍같이 입을 못닫을게야. …

생각만 해도 히드득히드득 웃음이 절로 나왔다.

마침내 인력거가 화신상회 뒤골목에 자리잡은 리문식당앞에 이

르렀다. 붉은 등불이 매달린 현관에서 작부 하나가 뭐라고 빨간 입술을 제비모양 쫑긋거리며 하얀 손을 흔들어 손님을 바래우는 모습이 보였다.

허방지방 인력거에서 내린 흥두는 동전 몇잎을 대충 세서 인력거군에게 주고는 부리나케 현관으로 다가갔다. 그러는데 등뒤에서 인력거군이 머밋머밋 찾았다.

《저어, 나으리…》

《엉?…》

흥두가 돌따보니 인력거군이 허리를 굽석하며 사정하는것이였다.

《내자동서 예까지 내처 달음질해왔는데 몇푼만 더 줍쇼.》

대뜸 흥두의 낯이 땡감 씹은 상이 돼버린다.

《헹, 요즘 인력거군들은 어찌된건지 전탕 이 판이라니. 이봐, 차를 불러 타문 더 빨리 올걸 마다하구 인력거를 탔더니만 인제 와서 딴소리하냐구?》

퍼그나 년장일듯싶은 사람에게 코방귀를 뀌며 흥두가 반말지거리로 떡떡거리는데 인력거군은 주눅이 든 어조로 계속 간청했다.

《집에 병자가 있어 이러는게 아닌갑쇼. 나으리, 적선하는셈치고 몇푼만 더 줍쇼.》

흥두는 어서빨리 금랑이를 만날 생각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성가시게 왜 자꾸 이래! 적선이구 뭐구 그런 소린 목사들한테 가서나 하라구. 난 바쁘니까.》

《나으리…》

《정 그러문 순사 부르겠어!》

인력거군한테 삿대질하며 으름장을 놓은 흥두는 비온 날 소똥 피하듯 얼른 현관에 들어섰다. 현관에 있던 작부가 교태를 피운다.

《아유, 최주사님 오셨네.》

이제는 장안바닥의 웬간한 논다니들도 흥두를 보면 주사님이라고 피여올린다. 흥두는 자못 으쓱해서 아는체를 했다.

《음, 너 오랜만이구나. 선약을 하구 왔으니 금랑아씨 있는데루 날 데려다다구.》

흥두의 분부에 작부는 시기하는 빛을 애써 감추며 꼬리를 치는것이였다.

《아이머니, 오늘따라 신색이 퍽 좋아보이시네. 꼭 꽃본 나비같으세요. 호호호…》

흥두가 네 이년, 발칙한덴 있다만 그럴듯하구나 하는듯이 헤벌쭉 웃으면서 눈을 흘겼다. 그리고는 배를 뒤뚱거리며 작부를 따라 식당안으로 들어갔다.

노랗고 파란 색등들이 걸린 복도로 술이며 안주를 나르는 심부름군들이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듯하고있었다. 이방저방에서 손벽을 두드리며 너급을 찾는 소리가 뻔질나게 들려오고 취객들의 너털웃음소리와 작부들의 까투리웃음소리, 뜨물먹은 하늘소청으로 떠드는 소리들이 열도깨비 날치듯하니 과시 유주강산은 금수강산이고 무주강산은 적막강산이로다. 돼지는 구정물을 좋아한다고 흥두의 코날개가 벌름거렸다.

그런 속에서도 흥두는 목을 빼들고 이방저방을 기웃거렸다.

금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긴 오늘 밤엔 금랑이가 날 기다리겠다고 했으니 다른 손을 받을리 만무하렷다.

흥두의 기분이 물렁감마냥 흐물흐물해왔다.

치마꼬리를 발뒤꿈치에 찰찰 끌며 구석진 안쪽방으로 흥두를 안내한 작부는 예서 기다리면 금랑아씨가 올거라 이르고는 사라져버렸다.

흥두는 초조하니 빈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노란 장판우에 자개를 박은 네모진 앉은상이 놓여있고 둘레에 공단방석 몇개가 놓여있는 크지 않은 객방이였다. 화조병풍이 둘러쳐있는 뒤쪽에 옆방으로 통하는 아자무늬의 미닫이가 보였다.

헌데 금랑인 왜 여태 얼굴을 내밀지 않아? 아직두 태가락을 부리는건가? 못마땅해서 찡등그려졌던 흥두의 낯이 이내 다리미로 문지르듯 펴졌다.

엿은 고을수록 달구 간장은 졸일수록 짜다고 금랑이 이년, 어디 기껏 애간장을 말리거라. 그럴수록 운우지락은 더할나위없이 달콤하겠거늘…

흥두는 속으로 니나노타령을 흥얼대며 한쪽에 걸린 벽거울앞에 마주섰다.

명주저고리우에 누런 호박단추가 달린 양단마고자를 걸치고 술에 익어 불깃불깃해진 살집좋은 얼굴이 헤죽이 웃고있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더 이를데없는 얼굴이다. 비록 량볼따구니는 비지살이 져서

메주볼이 되고 배퉁이는 볼꼴없이 튀여나왔어도 어느 관상쟁이가 말했듯이 너르펀펀한 얼굴과 훤하니 트인 이마에는 만석이 가득찼거늘 이만한 인품이면 팔선녀도 거느릴수 있구말구.

술기운에 멍멍한 흥두의 두눈이 흐무진 웃음속에 녹아버리기라도 할것같다.

뒤통수에 너슬거리는 머리카락을 침을 발라 잠재우기도 하고 짐짓 군턱을 당겨 위엄을 돋궈보기도 하며 흥두가 거울앞에서 한참동안 제 얼굴을 감상하는데 미닫이너머 옆방에서 문소리가 들려왔다. 보아하니 옆방도 이 방처럼 복도와 잇닿은 출입문이 있어 평소에는 개별방으로 쓰다가 필요하면 미닫이를 터쳐 통방으로 리용하는 모양이다.

흥두는 귀를 강구고 옆방의 동정을 살폈다.

방에 누가 들어왔는지 인기척소리가 나더니 녀인의 가벼운 목잦힘소리가 들려온다. 뒤이어 그윽한 분내도 새여나왔다. 코안에 스며드는 녀인의 향기에 흥두는 얼혼이 빠지는것만 같았다.

분명 그날 놀이배에서 맡아보았던, 꿈자리에서도 때없이 되살아나군 하던 금랑이의 어리칠듯한 향기가 아닌가. 흥두의 심신이 뽕내맡은 누에마냥 뒤설레를 쳤다.

흥두는 슬금슬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병풍을 에돌아 미닫이로 다가갔다. 채 닫기지 않은 미닫이문짬으로 경대앞에 앉아 머리를 손질하는 녀인의 모습이 비쳐왔다.

눈같이 하얀 피부, 젊음에 불타는 두뺨, 조금은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그밑으로 은근히 드러나보이는 부드러운 목의 곡선…

아니나다를가 금랑이였다. 금시 옷고름을 터치고 쏟아져나올것만 같은 녀인의 호함진 젖가슴이 눈뿌리를 뽑는다. 흥두가 온몸이 팽팽하게 켕기는 통증에 신음소리를 흘리며 녀인을 훔쳐보는데 숨기척을 느꼈는지 금랑이가 여전히 머리를 매만지며 조용히 묻는다.

《뉘신데 무례히 내인방을 넘보시는겁니까?》

흥두는 후닥닥 놀라 미닫이에서 물러났다. 엄벙덤벙 제자리로 돌아온 흥두는 컹컹 헛기침을 하고나서 옆방에 대고 떠듬거리며 알렸다.

《그… 금랑아씨, 나 흐… 흥두올시다.》

그러자 잠시후 미닫이가 열리더니 곱게 끊긴 흰 저고리의 앞섶끝을 여미며 금랑이가 나왔다. 눈빛이 쌀쌀한게 노염이 인듯하다.

하지만 녀인은 언 수탉모양 굳어져버린 흥두를 향해 설핏이 미소를 지어보이며 인사차림을 하는것이였다.

《최가댁 자제께서 래림하신줄 미처 몰라뵈웠군요. 제가 뵙기를 청하고 마중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합니다.》

단아하면서도 멋부린 태가 없는 그 녀자의 모습은 고혹적이였다.

흥두의 심장이 밖으로 튀여나오기라도 할듯 마구 퉁탕거렸다. 흥두는 뻣뻣해진 혀바닥을 힘겹게 놀리며 말을 뽑아냈다.

《무… 무망중에 놀라게 해서 미안하이다. 요전날 만나뵈온 금랑아씨의 황홀한 모습이 자나깨나 애를 끊고 넋을 사르는것같았는데 감지덕지하게도 오늘 아씨가 보내주신 전갈을 받구 너무 기뻐 총총망망히 달려왔구려. 오매불망 아씨를 사모하는 이 맘 날이 갈수록 더욱 걷잡을수 없사와 이대로 가다간 필시 상사병을 만나 요절을 면치 못할것인즉 금랑아씨, 원컨대 부디 오늘은 대장부의 한을 풀어주시오.》

막상 입을 떼니 어찌나 바람개비 돌듯 혀가 잘 돌아가는지 흥두 자신도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였다. 하기야 눈독들인 녀자들한테 지부렁거릴 때마다 늘쌍 외워대군 하던 단골소리이니 별로 새삼스러울건 없지만서도 말이다.

금랑이가 버들가지에 바람 지나가듯 심상한 얼굴에 엷은 미소를 띠우며 대답한다.

《과람한 말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실은 저를 생각해주시는 그 마음에 인사의 말씀이라도 드리고싶고 더우기는 댁을 꼭 만나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처럼 수고로운 걸음을 하시게 했습니다.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댁과 관계된 급한 일인듯하온데 먼저 그 사람부터 만나보시는게 어떠하실는지요?…》

《날 만나겠다구?…》

흥두는 얼떠름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때아닌 때 이런 자리에서 누가 자기를 만나겠다는건가?

영문을 알수 없어 멀뚱멀뚱해있는데 금랑이가 잠간 앉아서 기다려달라고 이르고는 자리를 뜨는것이였다.

꿈에 떡맛본 놈처럼 알짝지근해서 금랑이가 나간 문을 바라보던 흥두는 쓴입을 쩝쩝 다시며 펄썩 주저앉고말았다.

대관절 어떤 녀석인데 난데없이 뛰여들어 헤살을 놔? 돈갚는 기일

을 늦춰달라구 찾아온 채무자인가? 아니문 기민구제니, 례배당개축이니 하는따위 명목으루 기부금을 뜯어내러 온 사기군인가?

애비가 죽은 뒤 등겨섬에 새앙쥐 엉키듯 달라붙는 어중이떠중이들 성화에 어느 하루도 편할새가 없는 흥두였다.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밖에 나와서는 또 나와서대로 빈번히 사람단련을 받아야 했고 지어는 이렇게 주색도락마저 맘대로 즐길수가 없게 무시로 귀찮은 일들에 부대껴야 했다.

그러구보면 죽은 애비가 생전에 자기더러 호팔자라구 하는건 모르는 소리라고, 자기는 도둑놈이 로적가리 짊어지구 갈가봐 밤새두룩 짖구 댕기는 개신세라고 입버릇처럼 외우던 푸념이 공연한 소리는 아닌듯싶었다.

여하튼간에 이런 놈이든 저런 놈이든 얼뜬 쫓아버리구 오늘 밤엔 어떻거나 금랑이를 넘어뜨려야 할텐데…

궁둥이에 좀이 쑤셔와 흥두가 연신 앉은방아질을 하는데 조금뒤 문이 열리더니 뜻밖에도 학생복차림의 사내가 방에 들어서는것이 아닌가.

흥두는 왕청같이 웬 학생이냐는 눈길로 사내를 쳐다보았다. 얼핏보매 입고있는 학생복은 물이 바래고 나이도 손아래같았다.

금랑이가 말한 녀석이 바로 이 학생나부랭이나? 여적 계집의 옷고름 한번 풀어보지 못했을 애숭이녀석때문에 한창 무르익어가던 흥이 깨졌다고 생각하니 흥두는 어이가 없었다.

그러거나말거나 학생은 의젓이 자기소개를 한다.

《최흥두씨지요? 김현무라고 하오.》

그리고는 네모상을 사이에 두고 흥두와 마주앉는것이였다. 흥두는 삐뚤서하니 왼고개를 튼채 건성으로 물었다.

《웬 일루 날?…》

열기가 서린 눈빛으로 그 모양을 바라보던 학생은 이윽고 침착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다름이 아니라 조상대대로 물려오던 우리 집안의 가보를 잃어버려서 그러오. 내가 사정이 막부득이해서 달포전에 가보를 당신의 부친에게 전당잡혔더랬소. 그런데 얼마 못가서 변고가 나는통에 당신의 부친은 황양지객이 되고 전당잡혔던 우리 집 가보도 온데간데없

이 사라져버렸다는게 아니요. 가보를 찾지 못하면 난 가문의 죄인이 되고마오. 당신은 상속인으로서 응당 부친의 거래관계를 책임져야 하고 또 인제는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겠으니 요구하는거요. 아무쪼록 당신의 집안에서 사라진 우리 집 가보를 되찾아 돌려주기 바라오.》

학생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흥두는 쉰 뜨물 켜듯 오만상을 찡그렸다.

《나 원 참, 살다가 별꼴 다 본다니. 이봐 학생, 그따위때문에 예까지 날 찾아와? 아, 죽은 부친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아냐구? 정 알겠거덜랑 땅속에 묻힌 내 부친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던가.》

짜증기가 잔뜩 묻어난 억양으로 이렇게 게두덜거리는 흥두의 낯에는 시끄럽다는 빛이 꺼림없이 떠돌고있었다.

그러나 학생은 여전히 태연한 자세로 말을 받았다.

《다시 말하건대 당신은 상속인으로서 부친의 계약상의무를 끝까지 리행해야 할 책임이 있소. 만일 당신이 자기 책임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무성의한 태도로 나오면 난 가보를 돌려받기 위해 부득불 다른 방법을 찾아볼수밖에 없소.》

흥두가 푸— 하고 입방귀를 뀌였다.

《아무튼 나하군 상관없는 일이니 법에다 고소하든 내 호주머닐 뒤져보든 맘대로 하기루 하구 지금은 어서 물러가라니까. 난 무척 바쁜 사람이라구.》

모기라도 쫓듯 손을 홱홱 내젓는 꼴이 한시바삐 금랑이를 다시 볼 생각뿐인것같다. 그러는 흥두를 지켜보는 학생의 눈 깊숙한 곳에서 매지구름같은것이 얼른거렸다.

학생이 따짐조로 묻는다.

《정말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오?》

넨장할, 어디서 이런 소힘줄같은 녀석이 굴러왔어? 흥두는 등이 달아 목대를 세웠다.

《이봐! 두말하문 잔소리구 세말하문 개소리라니까! 가보구 떡대 가리구 성가시게 굴질 말구 얼뜬 딴데나 가보라는데…》

볼따귀가 푸르딩딩해서 역정을 부리던 흥두는 그만에야 말꼬리를 움츠렸다. 불꽃이 이는 학생의 눈빛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왔던것이다.

그제서야 흥두는 마주앉아있는 사내를 자세히 눈여겨보았다. 아

직은 학생티가 헨둥해도 눈빛이 록록치 않고 코날이 우뚝한게 어딘가 모르게 상대를 누르는 오연한 기백이 느껴져 슬그머니 굽이 질려왔다.

현무는 심장이 펄펄 끓는걸 애써 누르고있었다.

최흥두가 이렇게 나오리라는것을 그는 이미 짐작한터였다. 그쯤하면 때가 되였다고 생각한 현무는 본화제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당신이 계속 모르쇠로 잡아뗀다면 좋소. 명백한건 당신의 부친이 횡사하면서 가보도 사라졌으니 가보의 행방을 알자면 부친을 살해하고 금고를 털어간자부터 밝혀내야 한다는거요. 내 반드시 그자를 찾아내겠소.》

《헹, 살인자를 찾아낸다구?…》

흥두가 비웃듯 입귀를 비쭉거렸다. 경찰도 속수무책인 판에 네까짓게 무슨 수로? 하는 표정이였다.

현무는 쓴웃음을 지으며 품속에서 종이장 하나를 꺼내서 상우에 올려놓았다.

《이걸 보면 당신도 살인자가 누군지 짐작이 갈거요.》

현무가 밀어보낸 종이장을 시들하니 받아든 흥두는 쓴 도라지 보듯 맞갖잖은 눈길을 던졌다. 그러던 녀석의 얼굴이 차츰 굳어져가더니 유들진 볼살에 푸드득 경련이 이는것이였다.

기절초풍하게도 종이장우에는 자기가 사사끼와 맺은 계약의 내용이 토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적혀있지 않는가.

이게 어떻게 된 도깨비감투끈이야?

믿기 어렵다는듯 입을 헤벌린채 종이장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흥두의 정수리우로 김현무의 말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건 사본이고 원본은 내가 가지고있소. 거기엔 당신과 사사끼 두 사람의 수표와 함께 손도장까지 시뻘겋게 찍혀있던데요.》

흥두는 비명이 목구멍으로 터져나오는것을 겨우 참으며 눈길을 쳐들었다. 방금까지만 해도 젠체하던 녀석의 헤무른 얼굴이 경악과 당황망조로 하여 꺼멓게 질려있었다.

《이… 이건…》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종이장을 가리키며 흥두가 입을 우물거리자 현무는 핑게댈 틈을 주지 않고 분질러 말했다.

《사사끼한테서 받았소. 사사끼가 털어놓는 말이 당신이 자기 부

친을 감쪽같이 죽여주기만 하면 유산을 상속받은 다음에 5천원을 주겠다고 했다는거요.》

《거… 거짓부리! 새빨간 거짓부리라구!》

흥두의 입에서 혼겁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사끼란 놈이 미쳐빠지질 않았나? 도대체 무슨 맘을 먹구 계약내용을 토설했나?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질것같으니까 앞질러 발뺌하려는건가? 어이쿠, 애당초 그런 개망종하군 상종하지 말았어야 하는걸. …

그물속에 갇혀 번드치는 물고기모양 갈팡질팡 헤번덕대는 녀석의 눈자위를 보며 현무는 셈평스레 말을 이었다.

《사사끼가 거짓말을 하는지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소만 그 계약서에 당신 부친의 변사와 관계되는 내막이 깔려있는것만은 분명하오. 어쨌건 당신이 그렇게 시치미를 떼는만치 나로선 당신들의 계약서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는수밖에 없소. 그렇게 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기어이 가보를 되찾을테요!》

《이보게 학생!…》

흥두가 현무에게 당장 매달리기라도 할듯 손을 허우적거린다.

계약서를 경찰서에 들고가다니? 그렇게 되면 모든게 끝장이다. 경찰이 계약서를 끈터구 삼아 자기와 사사끼를 달구칠게구 자기가 애비를 죽여달라구 청탁했다는게 세상에 들장날게 아닌가.

그 소문이 퍼지면 그러지 않아도 온갖 흉문을 퍼뜨리며 재산을 떼먹으려 날치는 무리들이 피냄새맡은 이리떼처럼 달려들거구 자기는 상속권을 뺏긴채 거랭이신세로 나앉을건 불보듯 뻔했다. 그쯤으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게. 영낙없이 감옥귀신을 면치 못할테니 이거야말로 뼈똥 쌀 일이 아니고 뭔가.

코구멍에서 단내가 풍겼다. 경풍을 만난듯 온몸을 와뜰거리며 흥두는 꽉 막혀드는 목구멍을 간신히 열었다.

《다… 다 말할테니 제… 제발 경찰서엔 가지 말라구. …》

현무는 비겁과 절망과 애원으로 죽을상이 된 흥두의 낯판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쏘아붙였다.

《그럼 어디 말해보오. 하지만 명심해두오. 헛소리를 하면 난 이 길로 경찰서에 찾아간다는걸.》

《원 헛소리라니!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테니 제발이지 겨… 경찰서에만은 가지 말라구. …》

흥두가 급해맞아 허겁대며 실토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보게 학생, 임잔 다 모른다니. 내 부친이란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돈벌레인지 말야. 꿈에서 본 돈두 찾아먹질 못하문 몸살치살하는 두상이였네. 문둥이 코구멍에 박힌 마늘씨두 파먹을 욕심쟁이였다구. 암만 그래도 그렇지. 호랑이도 제 새낀 안잡아먹는다는데 그 두상은 돈이라문 자식이구 뭐구 없었다니까. 내가 기생방에라도 한번 다녔다 하문 살인을 낼것처럼 생야단을 쳤구 제 돈지갑이 쪼끔만 축났다싶어도 도적개 몰듯 날 몰아댔네. 자긴 머리털이 세도록 첩을 갈아대구 일본사람들 섬기는 하루밤 먹자판에 몇백원씩 아낌없이 처넣으문서도 말야. 거기에 비하문야 내가 쓴 돈이란건 미꾸라지 볼가심할것도 못되구말구. 헌데도 두상태기 자식이 쓰는 돈은 제 살점 뜯어가는것같았던지 끝내 법원과 짬짜미하구 날 준금치산자루 만들어버렸네. 그래놓으니 나란 놈은 뭐가 됐겠나. 껍데기만 만석군의 자식이지 거랑뱅이와 뭐가 다르냐구. 줌안에 제 돈 한푼 변변히 없어서 기생년들한테 홀대를 당하구 하찮은것들한테 수모를 받으면서 돈비럭질을 하던걸 생각하문…》

흥두의 얼굴이 점점 벌개지면서 어느새 목소리가 코멘소리로 변해갔다. 현무는 쓰겁게 내뱉았다.

《그래서 사사끼더러 부친을 죽여달라고 했소?》

그러자 흥두가 제켠에서 목소리를 높이는것이였다.

《그러문 어쩌냐구. 나중엔 그 두상이 날 호적에서 지워버리구 딴 양자까지 들이려구 하는데야. 응당 내가 가져야 할 그 숱한 재산을 졸지에 딴 놈이 차지할텐데 가만있을수 있겠냐구! 그래도 어찌된 건지 평소엔 날 거들떠보지도 않던 서사가 귀띔해줬기망정이지 하마트문 앉은벼락을 맞을번했다니까. 망할 놈의 두상태기! 암만 똥구멍에서 목구멍까지 욕심이 꽉 들어찼기로서니 그럴수가 있냐 말야. 밉던 곱던 내가 명색이 자식이구 꾸부렁나무도 선산을 지킨다는데 어떻게 돈때문에 하루아침에 옴딱지 떼듯하냐구. 헹, 부모가 착해야 효자난다구 그깐 두상태기 죽어 싸지, 싸!…》

게거품을 물고 죽은 애비를 욕질하는 흥두의 진저리나는 추태를

현무는 혐오와 경멸속에 지켜보았다.

역시 그 애비에 그 아들이였다. 돈이라면 인륜도 혈친도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추물들, 제 한몸의 부귀향락외에는 그 무엇도 안중에 없는 속물들, 바로 저런자들이 어제는 나라를 팔아먹고 오늘은 왜놈의 앞잡이가 되여 동족을 괴롭히고있지 않는가.

현무는 놈팽이의 넉두리를 더 듣기가 지겨워 서슬차게 내쏘았다.

《당신네 집안싸움은 내 알바 아니요. 내가 알고싶은건 우리 집 가보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거요. 그러니 당신의 청탁을 받은 사사끼가 부친을 죽이고 금고를 털어갔다는거겠소?》

현무의 질문에 흥두가 황급히 고개를 주억거렸다.

《내 말이 그거라니. 임자 눈치를 보니 그 가보라는게 값나가는 물건이 헨둥한데 그러문 두상이 필시 금고에 보관했댔을게거던. 헌데 금고를 말짱 털어간 사사끼자식이 그런걸 그냥 놔둘리 있냐구. 보나마나 그 자식이 훔쳐갔을게야.》

현무는 제법 헛장담을 치는 흥두를 뚫어지게 여겨보다가 단호히 머리를 흔들었다.

《명확히 말하건대 사사끼한텐 가보가 없소.》

《없다니?…》

《그자에 대해선 이미 다 알아봤소. 가보는 다른자가 가져갔소. 그리고 그게 누군가 하는건 당신만이 알고있고.》

《엉?!… 그게 무슨 소리냐구?…》

흥두가 덴겁을 한다. 현무는 눈에 날이 서서 놈팽이를 줄곧 다불러댔다.

《뻔하질 않소. 당신 부친의 죽음에 관계한자들은 당신과 사사끼 둘인데 사사끼는 금고에 손을 대지 못했으니 금고를 털고 가보를 빼내간자는 당신이거나 당신이 시킨 다른 누구일수밖에. 딴전 부릴 생각말고 어서 대오. 대관절 누가 가보를 빼내갔소?》

《어, 어, 정말이지 난 모른다니까. …》

흥두는 쩔쩔매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놈팽이가 빠져나갈념을 아예 못하게 현무는 최박만을 죽인자는 사사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채 올가미를 더욱 바싹 조였다.

《당신이 계속 아닌보살을 하니 나도 별도리가 없소. 경찰이 우

리 집 가보를 찾아주길 기대하는수밖에.》

《이… 이보게 학생!…》

흥두가 가쁜숨을 헐떡거리며 부르짖었다.

《제… 제발 내 말을 믿어달라구. 난 사사끼한테 청탁만 했을뿐 그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도무지 깜깜이라니까. 글쎄 재밤중에 칼을 잡구 뛰여든 놈 아니문 누가 금고를 털겠나 말야. 인제 보니 사사끼 그놈이 흉측하기 짝이 없는 놈이라구. 그런 놈 수작질은 애당초 믿을게 못된다니. …》

화들거리는 두손으로 상을 부둥켜잡고 애발스레 하소하는 흥두의 몰골은 꼭 물에 빠진 놈이 지푸래기를 붙잡고 버둥질치는 꼴이였다.

현무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생각들을 추스르느라 애썼다.

사사끼의 말대로 흥두는 제 애비를 사사끼가 죽인것으로 알고있는것같다. 한즉 최가를 죽인 진짜인물을 사사끼와 마찬가지로 흥두도 모른다는것이다.

혹시 흥두가 알면서도 감추는건 아닐가? 허나 사사끼와 맺은 계약이 드러남으로써 제 운명이 경각에 이른 지금 우선 저부터 살고볼 생각에 누구를 덮어줄 경황이 못되는 녀석이다. 애비를 누가 죽였는지도 똑똑히 모르는 녀석에게 옥새의 행방같은건 물어보나마나 하지 않겠는가.

흥두를 통해서는 더이상 얻어낼것이 없을거란 생각에 현무의 가슴이 화독처럼 달아오르는데 슬그머니 묻는 흥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헌데 이보게, 도대체 그 가보라는게 어떤 물건인데 그닥지나 신경을 쓰냐구?》

현무는 정신을 가다듬고 흥두를 바라보았다. 어차피 단단히 덜미를 잡힌 놈이니 좀더 깊숙이 찔러봐도 무방할것같았다. 잠시 망설이던 현무는 슬며시 말을 비쳤다.

《옥새라고 예전 임금의 유물인데 궁중에서 벼슬살이를 하시던 우리 조부께서 간수해오던거요.》

《옥새?…》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기나 했는지 이리저리 궁싯대던 흥두가 뜻밖에도 아는체하는것이 아닌가.

《거 고망년적에 왕이 쓰댔다던 도장인가 뭔가 하는거?…》

순간 현무의 심장이 흠칠 뛰였다. 그는 얼굴에 피가 솟구쳐오르는것을 느끼며 성급히 물었다.

《그러니 옥새를 봤다는거요?》

현무의 안색이 돌변하자 흥두가 당황해하며 어정쩡한 어조로 대답하는것이였다.

《아… 아니, 보진 못하구… 사실은 호리모도라구 고리대를 하면서 골동장사도 겸하는 일본사람 하나가 있는데 부친이 죽은 담에 갚아도 된다기에 내가 약차한 빚돈을 얻어썼거던. 헌데 두상이 덜컥하니까 그 괴짜가 정작 요구하는게 돈이 아니더라구. 글쎄 죽은 두상이 가지고있던 바루 그 옥샌지 하는것만 넘겨주문 리자를 탕감하구 본전만 받겠다는게야. 난 이게 웬 떡이냐 하구 집안을 참빗 훑듯했네만 그 두상태기 어데다 숨겨놨는지 통 나타나야 말이지. …》

현무는 긴장해서 놈팽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물었다.

《살아있을 때 부친이 옥새를 슬쩍 팔아치운건 아니요?》

흥두가 모를 소리라는듯 머리를 기우뚱댔다.

《호리모도가 이 장안바닥의 골동거래는 손금보듯하는치인데 아무렴 그걸 모를라구.》

《혹은 당신 부친이 변사를 당하기 전에 누군가가 벌써 옥새를 몰래 훔쳐냈다던가.》

현무의 추측에 흥두는 말도 안된다는양 펄쩍 뛰였다.

《헹, 어림도 없는 소리.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문야 그 두상태기 가만있었을라구. 온 집안이 떠나가게 야단지랄을 쳤을건 물론이구 우선 나부텀 생벼락을 맞았을걸.》

입에 올리기도 끔찍하다는듯 넌더리를 떠는 흥두를 보며 현무는 생각을 달렸다.

호리모도란자가 리자까지 탕감해주겠다면서 옥새를 요구한 까닭은 뭘가? 옥새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선가? 흥두가 지껄이는 소리를 들어봐도 변고가 나기 전까지는 옥새가 최가에게 있었고 최가가 죽으면서 옥새가 사라진것만은 분명한듯싶었다.

불쑥 흥두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덧붙인다.

《하긴 나도 두상이 도화한테 그걸 맡겨놓지 않았겠나 하구 의심해보긴 했네만…》

《도화라니?》

현무가 의아해하자 흥두는 미간살을 찌프렸다.

《서모말이네. 기생퇴물인데 서사가 두상한테 등글개첩으루 붙여준 년이라구. 원 참 더러워서, 암만 서모라지만 나보담 세살이나 아래년을 작은어머니라구 개올릴 때문 먹은게 다 곤두선다니. 그래도 도화 그년이 사내호리는 재간만은 어지간한게야. 한해가 멀다하게 첩을 갈아대던 두상이 그년 치마폭에 빠져선 삼년이 넘도록 벗어나질 못했으니까. 글쎄 두상이 어찌나 애첩한테 사족을 못쓰던지 어떨 땐 제 금고열쇠까지 척척 맡기더라구. …》

《금고열쇠를?…》

《그렇잖으문. 언젠가 내가 바닥에 떨군 열쇠를 주으려구 손을 댔을 땐 잡아먹을것처럼 으르렁대던 두상태기가 말야, 헹! 그래서 내 이번에 암만 찾아봐도 호리모도가 말한 물건이 나오질 않길래 도화한테 넌지시 물어봤다니. 두상이 죽기 전에 옥새라는걸 맡겨놓지 않았냐구. 헌데 그년은 웬 잠꼬대냐구 단마디루 퉁을 놓더라니까. …》

갑자기 현무의 머리속이 뜨거워났다.

아닌게 아니라 최가가 애첩한테 금고열쇠까지 맡기던 정도라면 얼마든지 옥새도 맡겨놓았을상싶었다. 게다가 신문기사에도 났듯이 애첩은 최가가 죽을 때 현장에도 함께 있은 인물이다. 하다면 애첩이 사라진 옥새와 무슨 련관이라도 있는건 아닐가?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어림짐작일뿐 그 녀자 본인도 옥새에 대해 단마디로 부인했다지 않는가. … 느닷없이 뛰여든 애첩의 존재가 현무의 뇌리에서 착잡하게 맴돌았다.

갑수와 함께 사사끼를 문초하고나서 현무는 흥두에게 화살을 돌리기로 하였다.

다름아닌 흥두가 애비를 죽이게 한 장본인인데다 옥새를 가지고있던 애비와 한울안에서 살고있었으니만치 사사끼가 모르는 내막을 적잖게 알고있을거라고 짐작해서였다. 그래서 금랑이를 통해 은밀히 흥두를 불러내여 만났건만 이번에도 역시 걷어쥔것은 이러저러한 추측일뿐 뚜렷한 실마리는 없었다.

이렇게 장님 막대질하듯해서야 어느 세월에 옥새를 찾겠는가. 망국의 비운속에 굴욕당하고 수난당해온 조선의 마지막옥새가 지금은

또 호리모도 같은 왜놈간상배들의 흥정거리가 되고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부글거렸다. 옥새가 어데 있는지 알기만 하면 당장에 독사아가리에라도 뛰여들고싶건만 찾을길은 여전히 묘연하니 참으로 속타는 일이 아닌가.

과연 내 힘으로 옥새를 찾을수 있을가? 지금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칠성삼촌이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이런 생각에 현무가 부지중 불김같은 한숨을 내뿜는데 흥두도 덩달아 한숨을 내쉬며 웅얼거리는것이였다.

《휴— 아무튼 그 옥새라는걸 찾아내기만 해도 숨을 좀 돌리는건데. … 호리모도라는게 어찌나 진드기인지 지금도 그걸 찾아내라구 매일같이 성화라니. …》

옥새를 찾아내서 왜놈에게 넘겨주면 빚보따리를 퍼그나 덜거라는 소리다. 그러는 흥두의 바보스러운 상판을 보느라니 현무는 분노의 아픔에 심장이 저려왔다.

개눈엔 뭣만 보인다고 주색도락을 내놓고는 아는것이 없는 저런 패덕한들한테는 왜놈들이 던져주는 돈푼이나 밥찌꺼기밖에 보이는것이 더 없나부다. …

현무의 불붙는 속을 알리 없는 흥두가 점점 내숭을 떤다.

《이보게 학생, 기왕지사 잃어버린 물건을 도루 찾는다는게 어디 말처럼 쉽냐구. 허지만 상심할건 없다니. 임자말마따나 나야 상속인이니까 응당 부친의 일을 책임져야 하구말구. 이래뵈도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자그만치 백만원이야, 백만원! 그걸 차지하기만 하문 내 임자가 부르는대로 돈을 낼테니 그저 계약서만 덮어달라구. 그 계약서가 들통나는 날엔 난 대번에 상속권을 뺏길게구 그리되면 자네한테도 좋을게 뭔가 말야. 허니 내 말대루 해달라니. 아, 돈만 있으문 귀신도 부리는 판인데 그까짓 옥샌지 가본지 하는게 무슨 대수냐구. …》

다음순간 벼락치듯 꽝!— 하는 소리에 놈팽이의 수작이 동강나버렸다. 현무가 주먹으로 상을 내려치며 울분을 터뜨렸던것이다.

《뭐가 어쨌다구! 돈이면 다 된다구! 그게 어떤 가보인지 당신 같은것들이 알기나 하오! 백만원이 아니라 천만원을 준대두 버릴수 없는 가보요! 지옥끝에 가서라도 반드시 찾아와야 할 가보란 말이요!…》

현무의 눈망울이 불을 황황 내뿜는듯한다.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옥새였다. 칠성삼촌이 마지막숨을 모아 부탁한 옥새였다. 그들의 피맺힌 한과 구천에 사무친 소망을 돈과 바꾸라구?!…

김현무는 온몸이 그대로 증오의 폭탄이 되여 개 꾸짖듯 놈팽이를 닦아세웠다.

《똑똑히 명심해두오! 당신네 재산을 통채로 준대도 난 필요없소. 내게 필요한건 가보요. 가보를 못찾으면 당신을 가만 놔두지 않겠단 말이요!》

흥두의 헤먹은 상판이 대뜸 사색이 되여버린다. 눈물이라도 뚝뚝 흘릴듯 울상을 하며 녀석은 죽는소리를 쳐댔다.

《이… 이보시오 학생, 제… 제발 날 좀 살려달라구. 제발…》

7

《나타났네.》

조갑수가 나직이 이르는 소리였다.

김현무는 담배가게뒤에 몸을 숨긴채 종로3가 네거리의 맞은켠을 바라보았다. 명주치마저고리차림의 녀인 하나가 돈의동골목에서 나와 네거리 한켠에 서있는 우편통쪽으로 가는 모양이 눈에 띄웠다. 갑수가 확인한다.

《최가의 애첩이 틀림없네.》

현무의 심장이 줄달음치기 시작했다. 그저께 흥두의 토설을 받고난 뒤 아직까지 미처 주의를 돌리지 못했던 최가의 애첩에게로 눈초리를 돌리기 시작한 현무였다.

정말로 최가가 이미전부터 옥새를 애첩한테 맡겨놓았던건 아닐가? 아니면 최가가 죽은 직후 제일먼저 금고에 손을 댄 인물이 다름아닌 애첩인지도 모른다. 신문에 난 기사란것도 따지고보면 애첩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놓은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더구나 갑수가 어제 알아본데 의하면 요즘에 와서 애첩이 최가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다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최가네 집안공기가 몹시 흉흉하다고 한다.

혹 애첩이 그런 식으로 옥새도 벌써 어디론가 빼돌렸다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고보니 조급해나는 마음을 누를수가 없었다.

하여 오늘 오전에 현무는 갑수가 아는 어느 포목점에서 애첩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최가한테 전당잡혔던 물건을 잃어버려 그러니 만나주기를 바란다고.

그러자 애첩은 대바람에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신경질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현무는 속이 달아올라 안절부절을 못했다.

사사끼나 최흥두 같은것들의 경우엔 옴짝달싹 못하게 할 약점을 틀어쥐고있었기에 뜻대로 다굴릴수 있었지만 최가의 애첩에 대해서는 아는것이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재면서 우물쭈물하다가 옥새의 행방을 영 놓쳐버리면 어쩌는가.

한시바삐 그 녀자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바심치며 현무는 늦은 오후에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한데 웬 영문인지 이번에는 애첩이 살갑게 나오며 사정이 딱하면 집에 와보라는것이 아닌가.

살인사건이 터져 왜놈경찰의 이목이 쏠려있는 최가집에 내놓고 찾아가는것은 꺼림직한 일이였다. 그래서 현무가 조용히 밖에서 만날것을 요구했는데도 애첩은 한시간후 돈의동앞 네거리에 있는 우편통옆에서 만나자고 선뜻 약속하는것이였다.

오전과는 너무나 판다른 태도여서 저으기 덩둘했지만 깊이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다.

쉽지 않은 기회였다. 가끔 금고열쇠까지 맡을 정도로 최가의 맘을 독차지하고있었고 최가의 죽음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녀자가 아닌가. 찔러보느라면 필경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정적인 실마리가 잡힐것만 같아 현무는 갑수와 함께 오금에서 불바람이 나게 이리로 달려왔던것이다.

주위의 모든것이 차츰차츰 형체를 잃어가는 어슬녘이였다. 네거리는 번잡스러웠다. 경종을 땡땡 울리는 전차며 분주히 오가는 자전거와 인력거들, 서로 엇갈리고 겹쳐지며 제나름의 길을 가는 각양각색의 행인들…

하지만 현무의 눈길은 우편통옆에서 서성거리는 애첩에게 붙박힌채 움직일줄을 몰랐다. 과연 저 녀자에게서 옥새의 행방을 알아낼수

있을가?… 온몸에 긴장이 서려왔다.

《조심하게.》

등뒤에서 갑수가 던지는 소리를 들으며 현무는 혼자 네거리에 나섰다. 그는 최가의 애첩이 서있는 거리 맞은켠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차길을 건너 인도우에 올라섰다. 애첩과의 거리가 가까와질수록 초조감이 앞서 저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다. 엿장수며 과자장수가 어정대는 모자점앞을 지나 애첩에게로 곧추 다가갔다. 주위를 둘러보며 서성대던 그 녀자도 눈치를 차린듯 이쪽으로 눈길을 돌린다. 현무의 가슴이 마냥 들뛰였다.

그런데 그가 애첩앞에 거의 다달았을 때였다. 불시에 가까운 곳에서 갑수의 놀라는 소리가 들려오는것이 아닌가.

《이크, 이거 야마다형사님이 아닌가요?!…》

그 순간 날카로운 전류가 현무의 온몸을 휩쓸었다. 형사라니?!…

얼른 곁눈으로 살펴보니 어느새 나타났는지 저쯤에 갑수가 씨물거리며 서있는데 쭈그러진 밀짚모를 푹 눌러쓰고 엿궤짝을 멘 《엿장수》가 황황히 그쪽에 대고 집게손가락을 제 입에 가져다대는 꼴이 언뜻 비쳐왔다. 현무는 뜨거운 납덩어리를 삼킨듯 속이 뜨끔해났다.

뒤를 돌보려고 따라온 갑수의 위험경보로 함정에 들었다는것을 알아차린것이다.

숨결이 다급해졌다. 어떻게 왜놈형사가 이 자리에 나타났는가? 최가의 애첩이 밀고를 했는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일로 우연히?…

현무는 깊은숨을 들이쉬고나서 태연히 애첩이 있는 곳으로 끝까지 다가갔다. 애첩과 눈길도 마주치지 않은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편지봉투를 애첩의 옆에 서있는 우편통안에 밀어넣은 그는 가던 걸음을 계속 옮겼다.

허나 한발 늦은 때였다. 이미 무슨 낌새를 챈듯 까마귀소리같은 쐑소리가 현무의 뒤덜미를 후려쳤던것이다.

《오이!》

현무는 못들은체하며 내처 갈길을 갔다. 부르는 호통소리가 한층 사나와졌다.

《오이, 오이! 거기 서란 말이다!》

뒤에서 급히 다우쳐오는 소리가 들린다. 더 생각할것이 없었다. 현무는 있는 힘껏 내닫기 시작했다. 악을 쓰며 쫓아오는 소리가 금시 덜미를 덮쳐누를듯싶다.

《개자식, 서지 못해!》

무작정 현무는 행인들이 붐비는 어느 골목으로 뛰여들었다. 그 찰나 골목어구의 사과장수앞에서 사과를 먹느라 여념없는 영남이의 모습이 눈에 스쳤다.

영남이가 어떻게 여길?… 퍼뜻 떠오르는 의문을 새겨볼새도 없이 현무는 골목길로 장달음을 놓았다. 뒤미처 영남이가 있던 곳에서 욕설이 터져나온다.

《요노무 짜식, 돈두 안내구 벌써 몇개째야!》

《다 먹구 낸다질 않아요.》

잇달아 옥신각신 떠드는 소리와 와르르 뭔가 쏟아지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창황중에 현무가 돌아보니 사과장수와 영남이가 싱갱이를 치다가 광주리를 엎질렀는지 사과알들이 길바닥에 마구 나딩구는데 그통에 뒤쫓아오던 《엿장수》가 발을 헛디뎌 코방아를 찧는 꼴이 가관이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도와나서는 갑수며 영남이들의 의리심에 새삼스러워지는 감정을 금치 못하며 현무는 그 틈을 타서 처녑같이 복잡한 실골목으로 숨어들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빙빙 돌며 뒤따르는 놈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난 그는 그제서야 긴장을 다소 늦추고 좀전에 겪었던 일을 되새겨보았다.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왜놈들은 최가의 애첩을 만나러 온 자기를 붙잡으려던게 분명했다. 어째서인가? 애첩한테는 단순히 죽은 최가와의 거래문제로 만나자고 했을뿐인데 무슨 까닭에 왜놈들이 그리도 눈이 뒤집혀서 달려드는것인가? 사사끼나 홍두가 경찰에 모든걸 고자질한건 아닐가? 아니, 저들의 짓거리가 드러나는 날엔 어떻게 될지 뻔드름히 아는것들이니 감히 그럴 엄두는 내지 못할것이다.

그렇다면 왜놈경찰이 최가의 애첩을 주시하는걸가? 애첩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그 녀자와 접촉하려는 인물들을 노리는건지도 모른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관절 무엇때문일가?…

김현무는 돌처럼 무거워오는 마음을 안고 땅거미가 짙어가는 골목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어쨌든 왜놈들의 거동이 미심쩍기 그지없었다. 일반형사가 취급해야 할 살인강도사건을 고등계형사가 취급한다는것도 그렇고 사건이 터진지 어지간히 시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최가집에 눈독을 들이는것도 그렇고 무슨 쪼간이 있는게 틀림없었다.

혹시 왜놈들도 옥새를 노리는건 아닐가? 아니면 옥새를 찾는 사람들을?…

문뜩 왜놈들이 옥새를 미끼로 최가집에 그물을 치고있었다던 칠성삼촌의 말이 생각났다. 그러니 놈들이 여직 최가집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는건 살인범보다도 옥새를 찾는 사람들을 붙잡자는것이고 결국은 지금도 옥새가 거기에 있다는게 아닌가. 있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있다는건가?…

헝클어진 거미줄처럼 모든것이 혼잡스러웠다.

여하튼 오늘일로 보아 왜놈들이 최가의 애첩한테 특별한 주목을 돌리는것만은 확실해보였다. 어떻게 하나 그 녀자를 만나봐야 할텐데 왜놈들이 저렇게 쌍심지를 켜고있으니 속에서 불이 일었다. 바위속에도 용수가 있다는데 과연 방도가 없을가?…

이런 생각에 골똘한채 실골목에서 나온 현무가 큰 골목길로 얼마쯤 걸어갔을 때였다. 별안간 어스름속에서 전지불빛이 얼굴에 확 끼쳐지는것이였다.

《저놈이다!》

멀지 않은 앞쪽에서 들려오는 왜말소리였다. 순간 여태껏 물러가지 않고 자기를 잡으러 싸다니는 왜놈경찰들이라는것을 알아차린 현무는 화급히 돌따서 옆골목으로 내뛰였다.

《서라, 섯!》

왜놈들이 미친듯이 게목을 질러대며 따라왔다. 현무는 오불꼬불한 골목길을 필사적으로 내달렸다.

결코 놈들에게 붙들려선 안되였다. 옥새를 찾기 전엔, 아버지와 칠성삼촌의 한을 풀기 전엔 쓰러지지 말아야 하기에 현무는 이를 악물고 내달렸다.

골목길에서 큰길로 빠지는척하다가 다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뉘 집 담장을 뛰여넘고 마당을 가로질러 다른 골목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왜놈들은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 악착스레 쫓아왔다.

비탈진 골목길을 숨가삐 치달아오르는데 난데없이 몇걸음앞에서 시커먼 형체가 나타났다. 얼핏 띄여보니 코트차림의 사나이가 마주오고있었다. 으스름속에서 안경이 쇠붙이처럼 차겁게 번들거렸다.

현무의 심장이 턱을 치받을듯 높뛰였다. 경찰인가, 행인인가?… 마침 길옆에 서있는 집들사이로 실골목이 눈에 띄였다. 현무는 성급히 그리로 뛰여들었다.

했건만 이런 난사라구야. 열걸음도 못가서 모퉁이를 돌아서니 어느 집 뒤벽이 앞을 가로막는것이 아닌가. 좌우도 앞도 온통 높다란 벽체들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막다른 골목이였다.

왜놈들의 구두발소리들이 덮칠듯이 가까와온다. 현무는 당황해나지 않을수 없었다.

종내 이렇게 끝나고마는가?… 가슴팍에서 피가 끓어번졌다.

이렇게 된바엔 놈들과 한바탕 살판뛰기라도 할 결심으로 현무는 으스러지게 주먹을 욱여쥐였다.

얼마 안있어 그가 뛰여든 실골목어구에서 왜말소리들이 들려왔다.

《당신 누군가?》

《<매일신보> 기자올시다.》

《<매일신보>?…》

왜놈경찰이 방금 본 안경낀 사나이와 주고받는 소리같았다. 뒤이어 전지불빛이 실골목안을 이리저리 휘젓더니 사무럽게 따져묻는 경찰의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이자 학생놈 하나가 뛰는걸 못봤는가?》

현무는 골목모퉁이에 바싹 붙어선채 숨을 죽였다. 자기가 이리로 들어오는것을 눈앞에서 뻔히 봤으니 사나이의 말 한마디에 모든것이 달려있었다.

헌데 뜻밖에도 사나이가 천연스레 대답하는것이였다.

《저리로 올라가던데요.》

사나이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골목길로 달려올라가는 구두발소리들이 야단스레 멀어져갔다. 이윽고 누군가가 조심조심 현무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안경을 낀 사나이였다. 사나이는 코트를 벗어 내밀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재빨리 속삭였다.

《좀 있으면 놈들이 다시 밀려올거네. 어서 이걸 걸치구 날 따라오게.》

사나이의 목소리에는 박력이 담겨있었다.

이러구저러구 할 경황이 없었다. 현무는 이마전에 내밴 식은땀을 훔칠새도 없이 사나이가 넘겨주는 코트를 받아 학생복우에 걸쳐입었다. 그리고는 알지 못할 힘에 끌려 양복바람의 사나이를 따라 실골목을 나섰다.

사위는 이미 어두워있었다.

현무를 이끌고 골목길을 조금 내려가던 사나이가 길가의 올망졸망한 초가들사이로 나있는 좁다란 새길에 들어섰다. 손수레 한대나 겨우 지나갈 길이였지만 이 근방을 잘 아는지 사나이는 어둠을 밟으며 거침없이 앞서 걸었다. 그렇게 좁고 너른 길을 몇번이나 엇바꿔가며 재우쳐 걷다보니 어느 틈에 야시장군들이 버글거리는 종로 한길에 나와있었다.

사나이는 뒤를 돌아다보지도 않고 야시장의 인파속에 끼여들었다.

사방에서 싸구려소리와 흥정하는 소리, 수다를 떠는 소리들이 왕방울로 솥가시는듯했다. 한쪽에서는 펄펄 끓는 주전자물을 제 팔뚝에 들어부은 고약장수가 기름덩이같은 고약을 꾹 찍어서 문질러 바르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듯 사람들한테 내보인다.

다른쪽에서는 샤쯔장수가 천이 질겨 찢어지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면서 물에 담갔다 꺼낸 샤쯔 하나를 판자우에 올려놓고는 한끝을 지르밟은채 두손으로 기껏 잡아당기고있었다. 그런데 아뿔싸, 그만에야 샤쯔가 쭉 찢겨져나간다. 하긴 샤쯔 하나를 가지고 밤마다 수십번은 더 그짓을 하겠으니 암만 질긴 천인들 견디여낼가.

구경하던 사람들이 허리가 끊어지게 웃는다.

하건만 현무는 그런데 눈을 팔새가 없었다. 위험은 사라졌어도 그는 앞서가는 사나이를 놓칠가봐 정신없이 다좇고있었다.

얼마후 야시장을 벗어난 사나이가 걸음을 멈추더니 현무를 돌아보며 묻는것이였다.

《왜 계속 따라오나?》

어쩐지 그의 말끝에서는 의문부호가 느껴지지 않았다. 현무는 자기보다 손우인듯싶어보이는 사나이에게 입고있던 코트를 벗어 내밀며 말했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드리고싶었습니다.》

허나 단지 그때문에만 사나이를 좇아온것은 아니였다.

호기심이랄가? 아니, 그보다는 옥새를 찾아 암중모색하며 낯선 객지를 헤매던 이 시각 돌연히 나타나 위기에서 자기를 구해준 사나이에 대해 막연한 반가움과 신뢰감을 느꼈다고 하는게 더 솔직할것 같았다.

사나이도 현무의 내심을 넘겨짚은듯 코트를 받으며 빙끗 웃는다.

《그럼 저기 가서 차라도 한잔 나누고 헤여지지.》

근처의 한 2층건물을 가리키며 사나이가 건네는 말이였다. 현무는 사나이를 따라 그리로 들어갔다. 들어가보니 그곳은 식료품점이였는데 1층 한쪽에 다점이 차려져있었다.

담배연기가 엷게 떠도는 다점안은 그리 크지 않았다. 벽에는 이국풍의 풍경화 몇점이 걸려있었고 축음기에서는 서양곡인듯한 피아노곡이 흐느끼듯 흘러나오는데 대개 말쑥한 차림새의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차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나누고있었다.

인조종려화분이 놓인 창결으로 다가가 현무와 마주앉은 사나이는 녀급을 불러 커피를 청했다.

그때에야 비로소 현무는 곤색양복에 샤쯔를 받쳐입은 사나이의 모습을 똑똑히 볼수가 있었다.

표정이 적고 갱핏한 얼굴이였다. 가리마를 낸 머리카락이 모가 난 좁은 이마를 비스듬히 가리우고있었는데 동그란 은테안경속에서 자그마한 눈이 유심히 이쪽을 눈여겨보고있었다.

사나이가 현무에게 불쑥 물어왔다.

《말씨를 보니 서울사람같질 않은데 어디서 왔나?》

현무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집사정때문에 고보를 채 마치지 못하구 일자리를 얻어볼가 해서 서울에 왔는데 아직은…》

사나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두손을 힘주어 깍지끼고 손가락마디들을 꺾어 소리를 내며 위로하듯 말했다.

《이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건 동지달에 멍석딸기 찾는 격이지. 신문에도 실리지 않았나. 장안에 사는 조선사람들중에 일자리가 없는 빈민이 무려 9할에 달한다구. …》

그러더니 더 묻지 않고 누군가가 탁우에 놓고 간 신문을 펼쳐드는것이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사나이의 입에서 또다시 울분어린 소리가 튀여나온다.

《에잇, 더럽기란… 오늘신문도 또 반페지나 벙어리가 됐구만.》

현무는 사나이가 보는 신문에 눈길을 주었다.

지면의 적지 않은 부분이 복자투성이여서 꼭 마마를 앓은 얽둑배기를 보는것만 같았다. 툭하면 《치안방해》라는 구실을 붙여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글들을 저렇듯 무지막지하게 삭제하고 압수하고 발행정지시키는 왜놈들이였다.

가슴을 훑고 지나가는 무지근한 통증을 짓씹으며 사나이의 울분에 공감하던 현무는 문득 생각이 나서 말을 꺼냈다.

《저, <매일신보> 기자라 하시던것같은데요. …》

어딘가 뜨직해하는 어조였다. 그도그럴것이 《매일신보》라면 친일과 매국의 너절한 개나발로 매일과 같이 지면을 매닥질하는 총독부의 어용기관지였던것이다.

한순간 얼떠름해있던 사나이는 뒤늦게야 알만하다는듯 쓴웃음을 지었다.

《아, 실은 일본서 고학을 하다가 얼마전에 조선에 나왔는데 여적 정해놓은 일자린 없구 아까 경찰앞에선 얼김에 생각나는대로 둘러댄걸세.》

현무는 설명을 듣자 사나이에게 더욱 관심이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뜻하지 않게 믿을만한 사람을 만났다는 다행스러움에서만이 아니였다.

왜놈들때문에 분통하게 배움의 꿈을 접어야 했던 현무로서는 불의를 혐오하고 의로움을 위해 몸을 내댈줄 아는 지식선배를 알게 된것이 무등 반가왔던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녀급이 커피 두잔을 내왔다. 사나이가 차숟갈로 가볍게 커피를 휘저으며 현무에게 권했다.

《어서 들게. 처음엔 좀 생소해도 한번 맛을 들이면 쉽사리 떼기 힘든게 이 커피라더군.》

현무는 사나이가 하는대로 커피를 휘젓고는 한모금 맛보았다. 씁쓸하면서도 달금한 커피의 맛은 서름했다. 어머니와 외삼촌들이 애면글면하며 대주는 학비로 피나게 공부해온 현무였으니 언제 류행을 좇아 커피를 즐길 여유가 있었으랴.

현무의 어설픈 표정에서 그런 속사정을 짐작했는지 사나이는 관후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 한모금을 맛보더니 천천히 입을 여는것이였다.

《하긴 조선에 커피가 들어오기 시작한게 별로 오래된 일은 아니지. 처음엔 커피가 검고 쓴맛이 나는게 마치 탕약과 같다 해서 <서양탕약>이니, <양탕국>이니 하고 불렀다던지. 기록에는 조선인으로서 커피맛을 제일먼저 본 사람이 고종황제라고 적혀있더구만. 아관파천때 로씨야공사관에 피신해있던 고종황제는 로씨야공사의 친척인 손탁이란 녀인이 만든 음식을 들었고 식사후엔 자연히 커피도 마시게 됐는데 그때 입맛을 붙인 뒤로는 환궁후에도 커피를 즐겼다는걸세. 프랑스태생의 도이췰란드인으로 4개 나라 말을 능란하게 구사했다는 손탁은 그후 황태자의 외국어교사에다 황실의 외국인접대역까지 맡아하면서 료리와 실내장식을 비롯한 서양의 문물을 궁중에 적지 않게 소개해줬다더군. 고종황제는 그러한 손탁을 신임해서 정동에 있던 집 한채를 하사했고 손탁은 그 집을 외국인들의 사교장으로 쓰다가 몇년후엔 2층짜리 서양식호텔로 개축했네. 그게 바로 손탁호텔이였지. 손탁호텔의 1층 식당옆에는 다실이 붙어있었는데 국내의 고관들과 한다하는 개화인사들이 일찌기 그곳에서 커피맛을 알았다는구만. 그러고보면 손탁호텔은 조선에 커피문화를 퍼뜨리는데서 소개자노릇을 했다고 할가. …》

커피에 비낀 이 땅의 근대사가 현무의 흥미를 끌었다.

잠시 말을 멈춘 사나이는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더니 다시 코마루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피로운 빛이 스민 눈길로 허공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서양에선 커피가 력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중요한 촉매제노릇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군. 아닌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야기꽃을 피워내는 커피의 마력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 절대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변혁하는데 단단히 한몫했다고

볼수도 있을거네. 18세기말 프랑스혁명때만 봐도 빠리의 수많은 카페들에 진을 치다싶이 한 계몽주의사상가들은 시민들과 커피를 나누면서 그들의 리성을 일깨우고 혁명을 선동했다질 않나. 그렇지만 이 조선땅에서 커피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도 찾기 힘들구만. 기껏해서 고종황제와 정동파가 망해가는 나라를 건져보려고 커피의 마력을 빌어 사대외교에 진력했다는것밖에. …》

《정동파라니요?》

현무가 묻는 소리였다. 세월의 이끼속에 묻혀있는 오욕의 상처를 다 알기에는 아직 살아온 세월이 많지 못한 그였던것이다.

사나이는 침울한 눈으로 현무를 응시하다가 대답했다.

《정동파라는건 서양공사관들이 밀집돼있던 정동에서 활약한 친미, 친로경향의 조선인정객들을 가리키는 말이네. 미국공사관이 들어선이래 정동일대는 <공사관거리>로 불리울만치 모든 서양나라 공사관들이 모여든 외교각축장으로 변모됐는데 정동에 있던 서양외교관들과 선교사들은 사교와 친목의 명목으로 <정동구락부>란걸 내오고 손탁호텔을 사교장으로 삼았다더군. 거기에 일본인들이 전혀 가담하지 못한걸 봐도 당시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기고만장해진 일본을 견제하려던 서양렬강들의 배속을 뻔하니 엿볼수 있지. 그때 그 구락부에는 민영환이라든가 리상재, 서재필, 리완용같이 주로 이전에 외교사절로 나가 서양문물을 접할수 있었던 조선인들도 회원으로 가입해있었네. 서양렬강의 힘을 빌어 일본의 침략을 저지할 속구구를 하던 고종황제는 음으로양으로 그들을 독려하는 한편 시종들을 구락부에 보내서 호의를 보이기도 했다는구만. 그에 힘을 얻은 정동구락부의 조선인정객들은 수시로 손탁호텔에서 서양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친분을 쌓고 렬강들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분주다사한 나날을 보냈더랬지. 어느결에 정계에선 그들을 가리켜 <정동파>라고 불렀고. …》

사나이가 담배를 붙여물더니 괴로운 한숨을 담배연기속에 풀어날린다. 짙은 담배연기사이로 비쳐오는 그의 안경은 5촉전등처럼 어두워보였다.

얼마뒤 차고 음울한 사나이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나 손탁호텔을 무대로 벌린 정동파의 커피외교는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바로잡을수가 없었네. 그럴수밖에. 자국의 리해득실을 따

져가면서 합종련횡을 일삼는 렬강들에 있어서 조선과 같은 약소국들은 주머니속의 거스름잔돈 한가지였으니까. 로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세를 보이고 조선의 운명이 칼도마우에 오르게 되자 그토록 믿었던 미국이 맨 선참으로 일본에 손을 들어줬네. 뒤따라 영국도 일본과 2차 영일동맹조약을 맺어 조선과 인디아의 지배를 서로 승인했고. 고종황제와 정동파를 필두로 한 중신들이 렬강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굽석거리면서 각종 리권을 섬겨바쳤는데도 말일세.

내 언젠가 이런 기막힌 얘기도 들은적 있네. 조선에 개설된 미국공사관이 처음 든 집은 경운궁 서쪽에 바로 붙어있던 민씨가문의 어느 저택이였다더군. 한데 그 집 천정이 원체 낮다나니 키가 컸던 미국공사가 머리를 부딪치는 일이 빈번했다는걸세. 그래서 공사는 본국정부에 천정이 낮아 실내에서 모자를 쓰고있을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미국식건물을 새로 지을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거네. 하지만 정작 본국에선 조선에서는 실내에서 모자를 쓰지 않는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질 않나. 애당초 조선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란게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소리겠지. 미국의 뒤를 이어 정동에 들어온 다른 나라 공사관들이 경쟁하듯 서양식건물들을 신축하는 동안에도 미국공사관은 본래의 건물을 그대로 유지했네. 후날 <을사5조약>에 따라 공사관을 폐쇄할 때 미국공사는 자국 공사관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비해 초라한것이 불만이였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에 돈을 쓰지 않은건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는구만. 그런 렬강들의 랭혹한 진면모앞에 당황실색했을 정동파인사들의 모양이 눈에 선하네.

어느새 손탁호텔의 주빈들은 서양인들로부터 일본인들로 바뀌여서 나중엔 이등박문이 틀고앉아 커피를 마시며 국권강탈작전을 진두지휘하는 장소로까지 돼버렸네. 그후 손탁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손탁이 없는 손탁호텔은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형적없이 사라지고말았지. 발붙일 곳을 잃은 정동파의 운명도 손탁호텔과 다를바가 없었으니 결국 커피가 우리한테 준건 약소민족의 슬픔과 한숨뿐이구만. …》

갑자기 담배연기에 개꼈는지 사나이가 기침을 터치며 담배를 비벼껐다. 허파를 우벼내는 그 기침소리에 현무는 가슴이 부서지는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 아픔을 이기기 힘겨워 그는 지그시 잔을 움켜잡았다.

렬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갈팡질팡하는 자기 처지를 한탄하며 각혈처럼 검붉은 커피를 마셨을 고종황제의 모습이 가긍스럽게 안겨왔다. 서양인들을 신주믿듯하며 커피향에 취해있다가 하루아침에 꼭지 떨어진 호박꽃신세가 돼버린 정동파인사들의 탄식소리가 귀전에 허망하게 메아리쳐왔다.

약소민족의 슬픔과 한숨… 사나이의 마지막말이 사금파리인양 모질게 현무의 창자를 찢는다.

그것이 우리 겨레의 피할길 없는 숙명이란 말인가. 정녕 조선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여났다면 존엄도 자존심도 삼키고 한평생 여기저기 빌붙으며 굴욕과 모멸속에, 슬픔과 한숨속에 살아야만 한단 말인가.

울컥 치밀어오르는 밸을 눕힐길 없어 현무는 사나이에게 의분을 터뜨렸다.

《그렇게 굽신거리기만 했으니 나라가 망할수밖에요.》

사나이는 바람맞은 숯불처럼 이글거리는 현무의 두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힘없는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겠나. 아무리 찾아봐도 약소민족의 생존수단이라군 사대밖에 더 없는데야. 난 때없이 자기 운명을 원망하군 하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태여났는지, 왜 하필이면 이렇듯 약하고 못난 민족으로 태여났는지 말이네. 거슬러보면 큰 나라들의 등쌀에 언제 한번 발편잠을 자본적이 없는 조선민족일세. 우로, 아래로 늘쌍 대국들의 말발굽에 시달려온 이 땅이네. 약자로서 살아남자니 어차피 힘센 놈한테 허리를 굽히는수밖에. 눈치껏 큰 나라들의 비위를 맞추고 위기가 닥쳐오면 그들의 힘을 빌리는수밖에 무슨 별도리가 있느냐 말일세.》

넉두리마냥 이런 소리를 외우는 사나이의 입술은 앓는 사람같이 파리해져서 떨고있었다.

현무는 속이 써늘해왔다. 그래도 한가닥의 미련을 품고 사나이를 따라와봤건만 막상 듣는건 맥빠진 푸념뿐이니 허전해지는 심정을 물리칠길이 없었다.

그의 심장이 사납게 도리질을 쳤다. 아니, 그렇게는 살수 없다! 날강도의 발밑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살바엔, 남에게 다리아래 소리로 비럭질을 하며 살아갈바엔 차라리 죽는게 열백번 나으리라!

사람으로 태여나 개처럼 비굴하게 살수 없기에 아버지도 칠성삼촌도 그렇듯 주저없이 결사의 길을 택한것이고 이 시각에도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일구월심 나라의 독립만을 갈구하며 가시밭길을 헤쳐가고있는것이 아니랴! 고막을 아프게 두드리며 피의 격류소리가 들려왔다.

사나이도 화가 난듯 짜증스레 손가락마디를 딱딱 꺾는데 축음기에서는 남가수가 탁배기같이 탁한 청으로 인생을 영탄하는 류행가를 부르고있었다. 꺼지는 한숨소리같은 그 소리에 혐오를 느끼며 현무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되도록 최가집근처엔 나타나지 않는게 좋을걸세. 왜놈들이 눈이 시뻘개서 지키고있으니까.》

사나이가 따라일어서며 넌지시 귀띔하는 소리였다.

현무는 홀연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가 최가집을 노리고있다는걸 이 사나이가 어떻게 알고있는가?

마치 상대가 자기의 움직임을 손금보듯 꿰뚫고있는것같아 현무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는데 사나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을 돌린다.

《하여튼 이렇게 만난것도 인연일테니 앞으로 만나면 모르는체 말고 차나 함께 나누도록 하지.》

그리고는 제 이름을 소개하는것이였다. 사나이의 이름은 고응렬이였다.

왜서인지 례사로운 인연같지 않은 예감이 들어 현무도 이름을 대주었다.

《김현무…》

사나이는 입속말로 나직이 외워보더니 뒤통수너머로 손을 흔들며 총총히 사라져버렸다.

8

이런 기회는 두번다시 오지 않을것이다.

호리모도가 서투른 조선말로 현무를 점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으니 지금 곧 상점으로 오라고 했던것이다.

전화를 내려놓고 포목점에서 나온 현무는 즉시 황금정으로 향했

다. 조갑수에게 알리고 갈가 하는 생각도 피뜩 들었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다. 급한 마음이 앞섰던것이다.

현무는 갔다와서 갑수에게 말해주겠다고 작정하며 걸음을 다우쳤다.

온몸의 피가 흥분을 머금고 맹렬히 뛈박질했다. 어떻게 달음치고 어떻게 전차에 올라탔는지 알수 없었다. 드사나운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든듯 현무는 무작정 앞으로만 내달렸다.

최가의 애첩을 만나려다 실패한 뒤 보름 남짓한 나날 사태는 급하게 굴러가는 수레바퀴살마냥 시시각각으로 돌변했다.

소동은 최가집에서 먼저 일어났다.

백만원에 가까운 최가의 유산을 놓고 사처에서 몰려온 협잡배들이 파리떼처럼 들끓는 가운데 최가의 본마누라를 위시한 권속들이 합명회사를 만들어 유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들고나온것이다. 명분은 최가의 재산을 여러 가족성원들이 함께 책임지는 합명회사의 소유로 넘겨 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라지만 본심은 최흥두의 상속권을 유야무야하고 유산을 뜯어먹자는것이였다.

그러자 흥두한테서 빚받이할 날만 학수고대하는 빚군들이 들고일어나 최흥두로 하여금 권속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하였다. 이에 권속들은 또 권속들대로 흥두를 인장위조죄 등으로 맞고소하고. 하여 매일같이 최가집이 불개미집안 쑤셔놓은것같은데 아는것이라군 난봉질밖에 없는 바보같은 흥두로서는 이리 휘둘리고 저리 얻어맞지 않을수 없었다. 느닷없이 경찰서에 불려가는가 하면 영문모르게 어떤자의 집에 갇히기도 하고 때아닌 때 기생방에서 주먹벼락을 맞기도 했다.

그러는 속에 박상궁쪽에서 뜻밖의 사실을 현무에게 알려왔다. 최가집 권속들을 부추기는 장본인이 서사 배봉구라는것이 아닌가.

최흥두로부터 유산정리를 위임받은 배봉구는 애초에 최박만의 재산을 흥두에게 넘겨줄 생각이 꼬물만큼도 없었다.

그는 우선 최가의 권속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꼬여내여 계약서를 암암리에 만들었는데 박상궁쪽에서 빼내온 계약서 하나를 보니 입을 딱 벌리지 않을수 없었다.

내용인즉 최가의 재산을 정리함에 있어서 권속들은 그 정리방법을 배봉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며 배봉구는 이를 수임하고 취득할 재

산의 6～7할을 권속들에게 지불한다는것, 권속들은 배봉구의 지휘에 대하여 추호도 태만하지 않고 최흥두의 상속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진력한다는것 등등이였다.

필요한 인물들과 계약을 맺고나서 배봉구는 합명회사건을 터뜨렸고 그에 반발하여 흥두네가 권속들을 사기군으로 몰아대자 기다렸다는듯 명예훼손죄명을 씌워 흥두를 경찰에 고소하게 했다. 이미 경찰서와 줄을 잇고있던 배가에게 있어서 흥두같은 천치를 구류시키는 일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웠다.

최흥두는 처를 법적보좌인으로 하여 준금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할수가 없었다.

흥두를 경찰서에 가둔 배가는 그것을 리용하여 흥두의 처를 꾀였다. 처한테 1만원의 사례금을 약속하고 흥두의 도장을 넘겨받은 배가는 백지 수십장에 그 도장을 눌러가지고는 최흥두가 어디어디의 토지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문서장들을 꾸며내서 최가집 토지를 량껏 빼돌렸다.

그런 식으로 최박만의 약차한 유산은 상속인이 손 한번 대보지 못한채 온데간데없이 흩어지고있다니 부귀는 이루기보다 지키기가 어렵고 대대로 이어가기는 더더욱 어려운것같다.

헌데 최가집에서 그렇게 란장판이 벌어지고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최가의 애첩 도화와 배봉구가 서로 피대를 세우며 옥신각신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둘이 방안에서 입싸움질을 하는터라 자세한 내용을 들은 사람은 없어도 이따금 튀여나오는 도화의 앙칼진 소리를 들으니 사람죽인 놈하곤 한울안에서 더이상 무서워 못살겠다느니, 감옥소가긴 싫은 모양이지 하는 섬찟한 말들이였다는것이다.

그 얘기까지 전해듣고나니 최가의 애첩한테 쏠려있던 현무의 이목은 자연히 배봉구에게로 옮겨지게 되였다.

배가는 최가의 심복이라 할수 있는 서사노릇을 하던 인물이고 도화는 최가가 사족을 못쓰던 녀자다. 흥두의 말에 의하면 도화를 최가한테 붙여준자도 바로 배가라니 한울안에서 얼마든지 주인의 염통을 빼먹으려고 공모할수 있는 두 인물이 아닌가.

사람죽인 놈이란 누구고 감옥소갈 놈이란 또 누구를 가리키는건가?… 그럼 배가가?…

며칠후 갑수가 알아낸 사실이 현무의 의심을 더욱 굳혀주었다.

그에 의하면 도화는 원래 기생시절에 봉구의 코김, 입김 다 쏘인 녀자였다고 한다. 그런걸 주인을 얼러맞추는데 리력이 튼 배가가 어느 기회에 최가의 눈에 슬쩍 뜨이게 했는데 대번에 로욕에 불을 질렀다는지.

한해두해 늙어가도 녀색을 밝히는 버릇만은 늙을줄 모르던 최가는 도화한테 빠져 날가는줄 몰랐고 마침내는 첩으로 들이게 되였다. 그 통에 서사에 대한 최가의 신임이 한층 도타워졌음은 두말할것도 없다.

게다가 배봉구자신이 참새 굴레 씌우게 약은데다 도화도 잔꾀가 많은 녀자인지라 둘이 서로 꾀를 빌리고 꾸어주면서 최가집일을 적잖게 쥐고 놀아왔다는것이였다.

그러던것들이 생급스레 무슨 일로 아귀다툼을 했는가?…

분명 심상찮은 곡절이 있을거라 짚은 현무는 틈을 노려 도화나 배가한테 따져보기로 결심했다.

허나 그러자면 둘을 단단히 궁지에 몰아넣을수 있는 끈덕을 잡아쥐여야 할텐데 아직은 추측일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더우기 배가는 수은처럼 잘 새는 인간이여서 현무네가 이모저모로 뒤를 캐보았건만 좀처럼 잡히는게 없지 않은가.

초조한 날들이 흘러갔다.

그러던중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닥쳐왔다. 사사끼가 자기한테서 이찌가와의 단도를 후려간 《해주자식》을 찾아냈던것이다. 사사끼의 말을 듣고 갑수가 알아보니 해주에서 왔다는 부자집자식이란게 딴은 서소문패에 속한 노름군이였다.

서소문패는 주로 노름군들이 위주인 건달패였는데 돈푼이나 있는 축들을 노름판에 끌어들여 털어먹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가령 시골부자 하나가 서울에 나타나면 골목골목에 널려있던 졸개들은 즉시로 웃대가리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홀리는 일을 맡은 패거리가 그리로 나가 시골부자를 이리 삶고 저리 삶아서 한강의 놀이배나 그럴듯한 장소로 꾀여낸다. 거기서 기생을 붙이고 노름을 붙이고 하는데 서소문패에 걸리는 축들은 영낙없이 빈털터리신세가 되고만다는것이였다.

그처럼 주머니가 넉넉한 대상들만 노리고드는 서소문패가 어떻게 되여 사사끼같은 백수건달을 목표로 삼았을가? 당시 사사끼의 손에

흥두에게서 받아쥔 착수금이란게 얼마간 있었다지만 서소문패거리들한테 그쯤한 돈은 생쥐 발싸개정도밖에 안되는 알량한것이였다.

갑수가 의문을 풀기 위해 《해주자식》을 조용히 만났다. 갑수에 대해 이미전부터 들어온데다가 사사끼한테서 후려낸 단도때문에 살인범의 루명을 쓸수 있다고 침을 놓자 《해주자식》은 바빠해하며 실토정을 했다.

그가 터놓는 말이 누군가가 자기한테 뭉치돈을 찔러주면서 사사끼의 단도를 빼내달라고 청탁했다는것이였다. 그자의 용모에 대해 물어보고 짐작되는것이 있어 갑수는 적절한 기회에 밖으로 나온 배봉구의 얼굴을 《해주자식》이 보게 했다.

그랬더니 아니나다르랴 《해주자식》이 대바람에 머리를 끄덕이는것이 아닌가.

그 사실을 전해듣는 순간 현무의 두눈이 불꽃처럼 번뜩였다.

그러니 사사끼한테서 이찌가와의 단도를 빼내간자는 배봉구였단 말인가. 결국 십중팔구 최가의 죽음은 배봉구와 련관되여있고 옥새의 행방을 알고있는자도 다름아닌 배봉구라는 의미였다.

현무는 흉벽을 세차게 들이받는 심장의 충격을 느꼈다. 마침내 옥새를 찾을수 있는 열쇠가 보였던것이다. 배가의 숨통을 조일수 있는 든든한 증거를 틀어쥔 이상 그 다음일은 얼마든지 자신있었다.

기회를 엿보던 김현무와 조갑수는 한갓진 곳으로 배가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처음에 배가는 자벌레같이 발딱발딱 뛰며 오두발광을 쳤지만 《해주자식》을 대면시키고 제가 최가의 권속들을 꾀여 꾸민 계약서까지 덧붙여 들이대니 단박에 얼이 빠져 주먹맞은 감투꼴이 되고말았다.

현무가 숨김없이 털어놓으면 경찰서에는 알리지 않겠다고 한마디하자 배가는 손이야 발이야 애걸복걸하며 토설을 하는것이였다.

두해전부터 배가는 주식시장에 발을 잠그고있었다.

말타면 종 두고싶다고 부자집 서사노릇을 하는 덕택에 그럭저럭 거드럭대긴 했지만 한뉘 최가의 턱부스레기로 만족할수는 없었다. 자기도 천석군, 만석군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고싶었다.

그러나 부자가 된다는게 어디 땅짚고 헤염치듯 쉬운 일인가.

오래동안 골을 짜내던 배가가 종당에 선택한것이 주식투기였다. 금광이니, 상점이니 하는것은 많은 자금과 전문기술 그리고 여러해에 걸치는 경험을 요구하지만 주식매매만은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 오직 불룩한 배포와 명민한 판단만으로 짧은 시일내에 일확천금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리하여 배가는 최박만의 돈을 솔금솔금 돌려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최가가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거래대상들을 돌아본다는 구실을 대고 명동의 주식시장으로 달려가군 했고 제가 자리를 뜰수 없을 때는 대리인이라도 내보내군 했다. 어떤 날은 시장이 문을 여는 오전 첫 시간부터 나가있다가 오후 후장이 끝나서야 돌아올 때도 있었다.

투기군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주식시장은 드리없이 희비극이 엇바뀌는 탐욕의 란무장이였다.

시세변동이 거의 없이 지루한 나날이 계속되다가도 갑자기 주가가 후끈 달아올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면 투기군들은 하루에도 서너번씩 지옥과 천당사이를 오락가락했고 벼락부자와 알거지가 잇달아 쏟아져나왔다.

배가는 살얼음판같은 투기장에서 구름처럼 잡힐듯말듯하는 황금을 붙잡으려고 모지름을 쳤다. 주식시장과 관련한 책을 모조리 구해다 읽었음은 물론이고 주가의 시세가 오르고떨어지는것을 청색과 적색으로 표시한 패지를 벽에다 붙여놓고 황새 우렝이구멍 들여다보듯 하기도 했다.

그리도 극성을 피운탓인지, 아니면 신수탓인지 어떤 날은 원금의 10배가 넘게 수익을 올린적까지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세벌쌀에 뉘 섞이듯 드물었고 대개는 번번이 랑패를 보기가 일쑤였다.

실로 하면 할수록 등살이 달아오르는노릇이였다. 어떤 놈팽이들은 팔아도 먹고 사도 먹으면서 거짓말같이 시세를 잘 맞추는데 왜서 자긴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는건가? 워낙 자빠져도 코가 깨질 운수인가?

일확천금의 미련을 내버릴수 없어 배가가 제아무리 안달복달을 해도 그 식이 장식이였다.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다보니 어느새 주식놀음에 돌려쓴 최가의 돈

이 2만원에 달하게 되였다.

배가는 뒤가 급해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요리조리 장부를 둘러맞추는 식으로 최가를 눈속임할수 있었지만 빼내간 돈이 그 정도에 이르게 되니 가랑잎으로 눈가리기였다.

아닌게 아니라 몇달전부터 최가가 돈이 어디론가 새나가는것같다고 종종 머리를 기우뚱거리는것이였다.

그때마다 배가는 속이 한줌만해서 흥두가 또 무슨 작간을 부리는것같다고 둘러대군 했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식으로 덮어둘수는 없지 않는가.

바빠맞기는 도화 역시 배가에 못지 않았다. 그럴수밖에 없을것이 배가가 주식투기에 들이민 대부분의 돈이란게 최가의 명의로 뽑아낸 은행돈이였고 그렇게 할수 있은것은 최박만이 가끔 금고열쇠를 맡기는 틈을 리용하여 도화가 최가의 도장을 몰래 배가에게 빼돌려주군 하였기에 가능하였던것이다.

물론 그 대가로 도화도 제 몫을 호물딱한것은 더 말할나위 없다.

내막이 그러하니 년놈들이 얼마나 간을 졸였으랴. 비록 몇번인가 애비의 도장을 위조해서 써먹은걸 언턱삼아 등신같은 흥두한테 모든 죄를 넘겨씌우긴 했건만 자기도 모르게 새여나간 돈이 거액에 달한다는걸 알게 되는 날엔 최가가 눈알이 뒤집혀 지랄발광할게고 종내는 숨기고있던 진상을 밑뿌리채 들춰내고야말것이다.

최가가 어떤 인간머리인가. 돈때문이라면 사람 세워놓고 입관도 서슴지 않을 악종이 아닌가. 턱밑에 두었던 년놈들이 언감생심 제 돈을 후무려 롱간질을 친걸 알면 인두겁을 쓴 그자가 어떻게 나오리라는건 불을 보기보다 뻔한 일이였다.

도화는 살팽이앞의 들쥐모양 바들바들 떨며 배가에게 하루빨리 빼내간 돈을 메워넣으라고 숨가삐 재촉했다. 허나 그 많은 돈을 무슨 수로 단시일내에 메워넣는단 말인가.

궁지에 빠진 쥐가 고양이 문다고 머리털을 쥐여뜯으며 밤낮으로 고민하던 배가도 드디여 엉뚱한 수를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채권자가 없어지면 채무도 사라질게 아닌가. 죽을고에 든 처지였다. 최가한테 들장이 나 깝대기를 벗기우고 깨깨 신세를 망칠바엔 칼물고 뜀뛰기라도 해볼 판이지.

배가는 도화한테도 제 속심을 말하지 않은채 일을 꾸며나갔다.

역시 이번에도 흥두를 우려먹기로 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가는 최가앞에서 아무래도 흥두가 상속인으로서는 너무 부족한게 많다고 위구심을 나타내는 한편 흥두한테 가서는 령감마님이 인차 상속인을 바꾸려는 눈치라고, 그리되면 서방님은 쪽박을 들고나서야 할거라고 잔뜩 겁을 불어넣었다.

결과 화들짝 놀란 흥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가는 수족을 시켜 흥두의 일거일동을 놓침없이 살피도록 했기에 흥두와 사사끼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횅하니 알수 있었다. 그만하면 일이 제 뜻대로 슬슬 돼가는것같아 배가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러는데 뜻하지 않은 정황이 발생했다. 홀지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최가가 수일내로 작금년간의 은행거래장부를 보겠다고 배가에게 이른것이다.

배가는 간이 덜컹했다.

두상이 기미라도 챈게 아니야? 당장이라도 앉은벼락을 들쓸것만같아 벌벌 떨려나는 가슴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대체 흥두녀석은 왜 이리 늑장을 부려? 이러다가 선손을 뗴우면?…

배가는 도적놈 소몰듯 헤덤비며 도화에게 당분간은 두상이 다른데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하라고 무작정 당부했다. 그리고는 흥두한테 급한 소리를 쳐댔다. 령감마님이 다른 양자감을 물색하기 시작했다고.

헌데도 멍청한 흥두쪽에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 아닌가.

더 기다릴 계제가 못되였다. 급줄이 난 배가는 자기가 직접 손을 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흥두에게 혐의가 쏠리게 할 기도로 서소문패거리들한테 청탁하여 사사끼의 단도를 손에 넣었다. 그런 다음 기회를 노리다가 한 밤중에 안채에 뛰여들어 최가를 요정내고는 사사끼가 한짓으로 보이게 금고까지 털고 단도는 근처의 도랑창에 떨구었던것이다.

그때 복면을 하고 뛰여들었어도 최가와 함께 자던 도화는 배가를 직감으로 알아보았었다. 하건만 그런들 어쩌랴. 배가가 들통나는 날엔 그자와 한통속이 되여 자기가 한 짓거리까지 말짱 드러날 판이니 입을 봉하는수밖에.

등겨먹던 개가 나중엔 쌀을 먹는다더니 정작 최가를 죽인 뒤 어

느 정도 위기를 모면한듯싶으니 배가의 맘속에 엉큼한 욕심이 일었다.

화가 복이 된다는게 이런 경우가 아니랴. 이왕 내친김에 두상의 재산까지 할수 있는껏 제 차지로 만들고싶어 배가는 또다시 간특한 계교를 부리며 최가의 재산을 털어먹는 일에 달라붙었다.

헌데 참새같이 얌치머리없는 도화가 제 몫이 적다고 까탈을 부리는통에 그런 아귀다툼이 벌어졌던것이다.

구역질이 나는것을 겨우 참으며 배봉구의 토설을 듣고난 현무는 조바심치며 그자에게 옛날 궁중에서 쓰던 도장을 봤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배가가 얼떠름해서 하는 대답이 최가의 금고에서 털어낸 물건들가운데 그런것도 있었다는것이였다.

그 말을 듣자바람으로 현무는 우물에 가서 숭늉찾을듯 서둘러대며 옥새가 지금 어데 있느냐고 다우쳐물었다. 했더니 배가의 말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호리모도라는 골동장사군이 자기가 다 아는 일이니 내놓는게 좋겠다고 은근히 위협하는 서슬에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내놓았다는게 아닌가.

현무는 손맥이 풀려났다. 그렇지만 다음순간 끝내 옥새의 행방을 알아냈다는 기쁨에 등뼈를 타고 푸른 힘이 솟구쳐올랐다.

배가의 토설을 받아내고나서 현무는 그새 호리모도가 옥새를 다른데로 넘겨버리지 않았는가 하는것부터 급히 알아보았다. 다행히도 호리모도가 엄청난 액수를 부르면서 옥새를 살 대상을 여기저기 물색하고있다는 소리가 전해져왔다.

현무는 어떻게 하면 호리모도에게서 옥새를 빼낼가 하는 생각에 골몰하였다. 그러던차에 물렁감이 절로 떨어져 입에 들어온셈이라 할지 호리모도가 자기네 상점에 새로 채용할 점원을 찾는다는 소식이 날아들지 않는가.

갑수에게서 그 소식을 듣자 현무는 환성을 올렸다. 호리모도의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자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필수 있고 때를 틈타서 능히 옥새를 빼낼수 있다고 자신한것이다.

그리되여 김현무는 어제 호리모도를 찾아가 만났었다. 암통해보이는 두눈을 안경알속에서 대록거리며 이것저것 캐묻던 호리모도는 한쪽볼이 실그러지게 빙긋 웃기까지 하면서 래일 점심시간이 지나서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왜 그리도 시간이 굼뜨게 흐르던지… 초조한 마음을 누르며 안절부절 못하던 현무는 시간이 되기 바쁘게 전화를 걸었고 급기야 응낙하는 대답을 받게 되여 이렇게 호리모도한테로 가고있었던것이다.

어느덧 황금정입구에 이른 현무는 전차에서 내려 호리모도의 상점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러는 그의 눈앞에 자기를 뜯어보던 호리모도의 암팡스러운 눈빛이 다시금 떠올랐다. 흥두한테 리자까지 탕감해주겠다면서 옥새를 요구했다는 호리모도였다.

어느 일본인이 조선에서 돈버는 구멍수를 책에 소개하면서 이 땅에 진출해 성공할수 있을만한 업종의 하나로 골동상을 꼽았더랬지. 고려자기를 헐값에 략취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친절하게 덧붙이면서. 서울에 사는 왜놈골동장사군들만 해도 금세기초에 10명에 불과하던것이 《합병》전야에는 무려 200명 가깝게 불어났다니 과시 그네들의 전성시대라 아니할수 없다.

얼마나 많은 이 땅의 문화유산들이 호리모도 같은 왜놈간상배들의 흥정거리가 되여 무참하게 도적질당하고 팔려가고있는것인가. 제 나라가 없으니 선조들의 넋도 여지없이 곤욕을 치르고있다는 생각에 현무는 비통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의아심도 들었다. 호리모도가 어떻게 배가한테 옥새가 있다는걸 냄새맡았을가? 정말 그자가 배가의 구린 뒤를 다 알고있었는가? 대관절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이상한것은 그것뿐이 아니였다.

배가한테 옥새얘기를 꺼냈을 때 대뜸 그자가 당신이 고응렬씨인가고 묻는것이 아닌가. 현무가 어리둥절해서 왜 그러느냐고 되묻자 배가의 대답이 며칠전에 웬 사내가 전화를 걸어 자기를 고응렬이라고 소개하고는 두서없는 질문들을 하며 수상쩍게 굴더라는것이였다.

현무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벌써 두번이나 묘한 대목에서 맞다들리는 고응렬이였다.

무슨 까닭에 고응렬은 배가와 접촉하려 했을가? 전번에 헤여지면서 최가집근처에 나타나지 말라고 귀띔하던 그의 말이 생각났다. 대체 그는 누구인가?…

쉬이 의문이 풀리지 않았건만 이 시각 현무는 거기에 주의를 돌릴 경황이 없었다.

아무튼 옥새부터 찾고보자! 아버지와 칠성삼촌의 피맺힌 유한부터 풀고봐야 한다!

현무의 가슴이 북통을 두드리듯 세차게 두근거렸다. 불쑥 옥새를 손에 넣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뇌리에 갈마들었다.

아직은 현무도 선뜻 대답할수가 없었다. 하나 명백한것은 사대의 오욕과 망국의 통한이 서린 옛 황제의 옥새가 빼앗긴 나라를 찾고 짓밟힌 백의동포의 존엄을 일으켜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래야만 고종황제에게도 위안이 되고 아버지나 칠성삼촌도 편히 눈을 감으리라고 현무는 믿어의심치 않았다.

저쯤 떨어진 곳에 《호리모도상점》이라고 쓴 간판이 보인다. 현무는 사지에 퍼져가는 충만한 힘을 느끼며 그리로 씨엉씨엉 걸어갔다.

9

김현무가 골동품상점안에 들어가니 호리모도가 금이발을 번쩍거리며 환한 웃음을 짓는것이였다.

《아— 쫑가(총각), 쫑가, 이리이리…》

호리모도는 뜯개말로 이렇게 외우며 현무를 어느한 뒤방으로 데려갔다. 방에 들어서던 현무는 우뚝 굳어져버리고말았다.

뜻밖에도 왜놈경관 하나가 창문을 등지고 의자에 앉아있는것이 아닌가.

속이 철렁했다. 현무는 목구멍이 뻥뻥해지도록 마른침을 삼키며 그자를 눈여겨보았다.

푹 내려쓴 경관모밑에 깊숙이 눈을 감추고 조는듯이 앉아있던 놈이 눈길을 쳐든다.

쥐낯같이 좁다란 얼굴에 쪼막수염을 달고 새까만 두눈이 매몰스레 박혀있는 놈이였다. 모자밑으로 현무를 쏘아보는 그자의 눈길은 갈구리처럼 날카로웠다.

호리모도가 방에서 나가자 그자의 입에서 가느다랗고 메마른 목소리로 류창한 조선말이 흘러나왔다.

《김현무라지. 옥새를 찾겠다고 헤맨다면서?》

그만에야 현무는 흠칠 놀라고말았다. 놈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가?!… 혼란과 당혹감으로 얼떨떨한 가운데 함정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현무의 뇌리를 쳤다.

그는 냅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순간 어느새 와있었는지 복도에 지켜서있던 사복경찰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이대로 놈들에게 잡힐수는 없었다. 현무는 있는 힘을 다해 치고 받아넘기며 놈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죽기내기로 싸웠다.

하지만 울골질을 하며 달려드는 놈들을 당할수 없어 종내 포승에 결박된채 다시 경관놈앞에 서게 되였다. 그자가 얻어맞아 부어오른 현무의 얼굴을 바라보며 빈정대듯 뇌까렸다.

《평양에서 고보를 다니다가 불온사건에 가담해서 출학처분을 받았다지. 류치장맛도 톡톡히 본것같은데 여직껏 정신을 못차려. 그래 너 같은 애숭이가 옥새 해서 뭘 하자는거냐?》

현무는 쓰거운 모욕감을 삼키며 적의의 불꽃이 튀여나오는 눈길로 경관놈을 노려보았다. 그자는 암만 그래봐야 칼자루는 자기가 쥐고있다는듯 코웃음을 쳤다.

《흥, 아직은 대가리의 피도 마르기 전이니 치기만만할테지. 보잘것없는 능력과 일천한 경험, 그에 비해보면 황당무계하다 할 망상과 젖비린내나는 자존심… 아마 그런건 사춘기에 돋아나는 여드름처럼 필연적인 생리인지도 모르지. 그 나이를 잘 넘기는게 바로 령리한 인간이야. 하긴 미련은 먼저 나고 슬기는 나중 난다고 너 같은것들한테 이런 소릴 해야 소귀에 경읽기겠지만은…》

경관놈이 이렇게 이죽거리고있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금실로 치장한 경관복을 입은자가 들어섰다. 그 순간 현무앞에 앉아있던 경관놈이 벌떡 일어서 바지혼솔에 두손을 딱 붙이며 차렷자세를 취했다.

《경시님!》

《아 오이시군, 수고한다.》

경시라는 놈은 불퉁스러운 왜말로 대충 인사를 받고는 현무를 턱짓하며 물었다.

《이놈인가?》

그러자 오이시라고 불리운 경관놈이 허리를 굽신거렸다.

《예, 전번에 최박만의 애첩을 만나러 왔던 그 학생놈입니다.》

경시는 머리를 끄덕이며 비웃는듯한 광채가 희번덕이는 눈으로 현무를 바라보다가 오이시에게 재차 묻는것이였다.

《옥새는 어떻게 됐는가?》

그 물음에 오이시가 득의연해서 대답했다.

《호리모도가 이미 그자에게 넘겨줬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좋ㅡ아.》

경시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진다.

온몸이 묶여있는 속에서도 옥새라는 말이 창끝마냥 현무의 귀전에 날아와 박혔다. 옥새를 넘겨줬다구? 누구한테?… 도대체 저놈들이 무슨 꿍꿍이를 하는걸가? 자기에 대해 훤히 아는걸 봐도 그래, 여기서 미리 매복하고있은걸 봐도 그래 이미전부터 옥새에 왜놈들의 마수가 깊숙이 뻗쳐있었다는 생각이 드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현무가 영문을 알길없어 갈팡질팡하는데 경시놈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놈을 종로경찰서에 끌어가라.》

《예, 한데 그전에 이놈과 따로 회계를 깔게 있습니다.》

오이시란 놈이 뜻모를 이런 말을 조심스레 여쭈자 경시는 알만하다는 미소를 띠우더니 소리없이 나가버렸다.

방안에는 또다시 둘만이 남았다. 오이시는 의기양양해서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는 긴장으로 굳어진 현무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오른손집게손가락을 좌우로 흔들며 다시금 조선말로 시까스르는것이였다.

《왜?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큭큭…》

쪼막수염을 쭝깃거리며 기침을 누르는것같은 괴이한 소리로 웃고난 오이시는 여전히 웃음발을 허물지 않으면서 입을 열었다.

《좋아, 어차피 콩밥신세를 질 놈이니 내 얘기해주지. 풋내기한테 수업 한번 하는셈치고 말이야. 리태왕의 비밀옥새가 창덕궁에서 나온 순간부터 우린 옥새가 있는 최박만의 집을 면밀히 감시해왔다. 고종의 내탕금에 눈독들이는 불온분자들을 옥새를 미끼로 해서 일망

타진하기 위해서였지. 두어달전에 최가집에서 독립군패거리와 총격전을 벌린 뒤에도 우린 감시를 풀지 않았다. 옥새가 최가집에 있는 이상 너희들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또 덤벼들건 뻔했으니까. 네놈만 봐도 최가집이 우리 감시속에 있다는걸 모르지 않았을텐데도 기를 쓰고 접어들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별안간 최가가 살해됐지. 대일본제국의 경찰을 우습게 봐선 안돼. 우린 수사를 벌려 살인내막을 인차 밝혀냈고 옥새가 누구한테 있는지도 알아냈지만 모든걸 덮어두었다. 왜냐구? 흥, 우리의 목표는 너 같은 불온분자들이지 돈뗴먹고 최가를 살해한 배봉구따윈 아니니까. 배봉구나 흥두 같은것들을 다치면 너희들은 옥새를 찾을 실마리를 놓쳐버릴거고 그리되면 최가집을 네놈들의 함정으로 만들려던 우리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수 있었거던. 우린 미끼로 써먹기 위해 배봉구를 건드리지 않은거다. 그리고 최가의 집이 경찰의 감시속에 있다는걸 세상이 다 아는 조건에서 옥새를 노리는것들이 보다 쉽게 범접할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줬다. 최가집에 있던 옥새가 호리모도에게 넘어가게 하는 식으로 말이야.》

현무는 포승줄이 살속을 아프게 파고드는것도 잊고 오이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그제서야 그는 최가에 대한 살인사건을 고등계형사가 취급한 리유를 알수 있었다. 그처럼 그 사건에 비상한 주목을 돌리면서도 놈들은 《불온분자》들을 붙잡기 위해 일부러 딴전을 친것이다. 호리모도가 배가의 구린 뒤를 거들며 옥새를 내놓으라고 강박할수 있은것도, 자기가 별로 큰 어려움없이 옥새의 행방을 알아낼수 있은것도 다 쪼간이 있었던것이다.

목에서 단내가 났다. 악착하면서도 간활한 왜놈들의 흉계에 현무가 진저리를 치는데 흔흔락락해서 지껄여대는 오이시의 말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결과 우리가 예견한대로 여러 놈이 그물에 걸려들었지. 너도 그중의 한놈이구. 이제 와서 숨김없이 터놓는다면 우린 네가 전날 최가집을 습격했던 곽칠성이란자와 각별한 사이라는것도 알고있었고 또 조선군 참위였던 네 애비 김상건이 마지막까지 일본에 반항해나선 악질배일분자라는것도 잘 알고있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널 그대로 놔뒀던건 네놈의 뒤에 어떤 배후세력이 있는지 정확히 타진해보기 위

해서였다. 요전날 최가의 애첩을 만나러 온 널 놀래운것도 실은 고응렬이란자와 접촉시킨 뒤 네 동태를 살펴보기 위함이였구. 한데 알고보니 네놈은 주위에 조갑수 같은 몇몇 말썽거리들만 있을뿐 별 볼게 없는 천둥벌거숭이더군. …》

그러니 왜놈들은 김현무의 배후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지금껏 잠자코 있었지만 그가 바다의 외진 섬같은 존재라는것을 확인하자 가차없이 체포해버렸다는 소리였다.

쓰거운 열물이 현무의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랐다. 왜놈들한테 돌멩이 한개 던져보지 못한채 붙잡힌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온몸을 짓태웠다. 하기야 아무리 의분에 불타고 용기가 하늘을 찌른다한들 혼자서야 무슨 수로 포악무도한 왜놈들을 당해낼수 있으랴.

현무는 눈을 감은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았다. 그 모양을 지켜보는 오이시의 얼굴가에 안개가 서리듯 달콤한 웃음이 피여올랐다. 왜서인지 놈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춘다.

《참, 고응렬이 소리가 나온김에 내 너한테 한가지 비밀을 더 대줄가?… 네놈이 그리도 죽을둥살둥 모르고 찾던 그 옥새 말이야. 그게 지금 어데 있을것같아? 큭큭… 바로 고응렬이란자가 지금쯤 상해로 가지고 가고있을거다. 그자도 옥새를 노리고 상해에서 온 놈이니까.》

오이시의 말은 천둥소리처럼 현무의 가슴 한복판에 떨어져내렸다.

그래서 고응렬이란 사람이 배가의 주위를 맴돌았는가. 아까 경시놈이 오이시와 주고받던 소리가 생각났다. 놀랍기 그지없었다. 고응렬이 옥새를 상해에 가져간다는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것은 왜놈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강건너 불구경하듯하고있다는 사실이였다. 옥새가 딴데로 빠져나갈가봐 눈에 불을 켜고있던 놈들이 아닌가.

현무의 그런 속마음을 꿰뚫어본듯 오이시가 떠벌여댔다.

《어안이 벙벙할테지. 우리가 옥새를 곱게 내주니까 말이야. 흠, 그 까닭도 내 대주지. 사실 일본사람들한테 있어서 고종의 옥새따윈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하찮은 물건짝에 불과해. 우린 다만 너 같은 놈들을 근절해치우려고 옥새를 미끼로 써먹을뿐인걸. 고응렬은 상해가정부에서 보낸 놈이야. 네놈은 세상물정 모르는 풋내기여서 잘 모를거다. 상해가정부란게 뭘 하고 자빠져있는덴지 말이다. 상해 프랑스조계지의 어느 허름한 골목에 <정부>라고 들어앉아선 한다는노릇이란게 사

흘거리로 기구를 뜯어고친다, 각료를 바꾼다 하면서 파쟁과 자리다툼으로 허송세월하고있으니 대체 그것들이 표방하는 독립이 나라의 독립인지, 아니면 자기 당파의 독립인지 혼동할 지경이거던. 그것들이 제창하는 독립방략이란건 또 어떻구? 저저마다 큰 나라들의 힘을 빌어 독립을 달성하겠다고 부르짖는데 그게 될성싶으냐 말이야. 그래 가정부가 빠리강화회의에 대표까지 보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했지만 어떻게 됐어? 독립청원서는 회의의정에 상정조차 못됐고 대표란건 베르사이유궁전의 마당에도 들어가보지 못한채 문전축객당하지 않았어. 6년전에 미국국회 의원들이 동양시찰이란 명목으로 서울에 들어왔을 땐 또 어떻게 됐구? 가정부는 미국국회 의원들이 상해를 지나갈 때 구걸외교를 벌리는것으로도 모자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 인삼이니, 은제품이니 하는 값비싼 물건들을 섬겨바치게 하고 환영회까지 준비하게 했지만 종당엔 구렝이같은 미국인들의 외면밖에 차례진게 더 있냐 말이다. 흥, 참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소롭기 그지없거던. 그것들은 말끝마다 친일파를 매국노라고 욕질하는데 그래 일본을 섬기는것만 매국이고 미국이나 또 다른 렬강들을 할애비 섬기듯하는건 매국이 아니라는건가? 매달린 개가 누워있는 개를 보고 웃는다더니… 어차피 요 쪼꼬마한 조선반도가 렬강들 짬새에 끼여서 혼자 살아갈수 없는건 타고난 숙명인데 그럴바엔 비슷한데라고는 전혀 없는 양인들보다 그래도 같은 동양인인 일본인들을 섬기는게 열백배 더 얼싸하지 않겠어.

어쨌든 그런 가정부이니 고응렬을 보내서 옥새를 빼내가는 목적도 상해의 덕화은행에 있는 고종의 비밀자금을 꺼내다가 또 청탁외교에 탕진하자는거지. 한데 재미난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옥새를 노리는 또 다른자가 있다는거다. 그자는 미국의 <유미위원부>라는데서 왔는데 <유미위원부>란건 형식상으로는 가정부의 소속으로 되여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행세를 하면서 재미조선인들이 내는 독립의연금을 가정부에 보내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고있지. 그때문에 가정부와 노상 재정다툼을 일삼는 이를테면 앙숙관계랄가. 알아본데 의하면 <유미위원부>도 미국과 국제련맹을 상대로 독립청원운동을 벌리기 위해 상해에 있는 고종의 자금을 노린다니 이거야말로 코흘리개도 앙천대소할노릇 아냐. 친일적인 외교로선을 지향하는 미국정부는 더 말할것도 없고 국제련맹도 창설당시부터 일본이 렬강들과 함께 상임리사

국자리를 차지하고있는데 어떻게 조선독립을 지지한다는거냐? 국제적인 력학관계가 일본으로부터 조선이 리탈되는걸 허용치 않는다는 말이다. 빈 하늘에 화살쏘기나 다름없는 그런 놀음에 매달리는게 단지 어리석기때문만일가? 흥, 아니야. 다같이 독립을 위해서라면서도 고종의 자금을 저마끔 독차지하려고 물고뜯는걸 보면 독립보다도 저 하나의 정치적야심을 앞세우는 그것들의 본색을 여실히 간파할수 있거던.

하긴 독립운동을 한다고 자처하는것들이 그렇게 사분오렬돼서 개싸움질로 세월을 흘러보내는게 우리한테도 나쁠건 없지. 때문에 우린 호리모도로 하여금 자기를 협박하는 고응렬에게 옥새를 고스란히 넘겨주게 했다. 그리고 한발 늦게 그 사실을 미국에서 온자도 알게 하구. 필경 지금쯤 그자는 고응렬을 좇느라고 숨이 턱에 닿았을거고 오래지 않아 상해에선 고종의 옥새를 놓고 배일세력들끼리 일대 란투극이 벌어질거다. 그렇게 되면 우린 이 서울에서 옥새를 미끼로 몇놈을 붙잡는것보다 더 큰 어부지리를 얻게 될거구. 어때, 이쯤하면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알만하지?…》

현무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고동치고있었다. 사대에 눈이 멀고 파쟁에 환장한 나머지 왜놈들에게 장난감처럼 롱락당하는 독립운동의 참담한 실태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있었다.

문득 약소민족의 생존수단은 사대밖에 없다고 한탄하던 고응렬의 모습이 떠올랐다. 허나 사대를 해서 차례지는건 그처럼 쓰라린 치욕과 릉멸뿐이니 조선사람들은 자자손손 코가 땅에 닿도록 남에게 굽신거리지 않으면 안된단 말인가. 울분과 비탄속에 몸부림치듯 현무는 묶이운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오이시가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더욱 목소리를 낮춘다.

《한데 말이야, 너나 그자들이나 꿈에도 생각 못하는게 하나 있다. 최박만에게 있던 옥새는 가짜라는걸.》

현무의 눈섭이 곤두일어섰다. 최가한테 있던 옥새가 가짜라니? 그렇다면 진짜는?…

숨을 죽이고 오이시를 노려보는데 자랑하듯 놈이 지껄이였다.

《최가가 창덕궁의 윤후작에게서 옥새를 넘겨받자마자 우린 이미 계획한대로 가짜옥새와 바꿔치웠거던. 결국 진짜는 우리 손에 들어왔고 최가가 가지고있은건 가짜였단 말이다. 그런즉 설사 누구든 그

옥새를 상해의 덕화은행에 가져간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가짜옥새로는 고종의 돈을 찾을수 없을테니까. 흐핫하하…》

오이시는 목젖을 내보이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창자가 켕기도록 웃어대는 그 몰골을 보느라니 현무의 두눈에 피가 몰렸다.

왜놈들의 간교한 계략에 놀아난 자신이 가엾게 여겨졌다. 가살스럽기 짝이 없는 오이시놈의 면상을 당장이라도 쳐갈기고싶었다.

금시 터질듯한 현무의 분격을 눈치챘는지 놈의 낯판에 넌즈러져 흐르던 웃음발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얼마후 오이시는 린광이 차갑게 끓는 새까만 눈으로 현무를 쏘아보며 씨벌이였다.

《그쯤해두고 이젠 내 소개나 할가. 난 경기도경찰부 경부 오이시 히데오다. 얼마전에 네놈들한테 살해당한 도경찰부 오이시 구라다스께경시님은 내 부친이구…》

(오이시 구라다스께?…)

현무가 의아해하자 놈은 독살스러운 미소를 입에 물며 뒤를 다는것이였다.

《왜, 귀에 선 이름인가? 곽칠성이란 놈한테서 오석구라는 이름이야 똑똑히 새겨들었을테지?…》

오석구?!… 현무는 창졸간에 한방망이 얻어맞기라도 한듯 머리가 뗑해왔다. 그럼 칠성삼촌이 말하던?… 삽시에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져버렸다.

오이시의 두눈에 살기띤 열기가 번뜩거린다.

그렇다. 그자는 다름아닌 오석구의 아들 오주엽이였다. 규슈제국대학을 나와 전라북도에서 고등계형사질을 해먹던 오주엽은 오석구가 죽자 배정자의 후원밑에 경기도경찰부로 자리를 옮겼고 애비의 복수를 다짐하며 애비가 다루던 황제어새건에 뛰여들었던것이다.

그러한 오주엽이였으니 제손으로 직접 김현무를 붙잡은 이 시각 놈은 죽은 애비의 혼백을 위로하고 복수의 희열을 마냥 즐기고싶었다.

현무의 두드러진 이마전에 혈관이 부풀어올랐다.

아버지를 왜놈들에게 밀고한 오석구, 칠성삼촌이 복수의 칼을 박은 오석구…

가증스러운 그 원쑤의 아들놈이 눈앞에 있었다. 조상이 물려준 성마저 왜놈의것으로 뜯어고치고 조선사람이기를 거절한 놈, 왜놈의

궁둥이를 핥으며 동족사냥에 미쳐날뛰는 저런 배족의 무리들때문에 아버지와 칠성삼촌이, 하많은 조선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세월을 살아가고있지 않는가.

현무는 격노에 헐떡이며 오이시놈을 향해 벼락치는 울분을 토하려고 하였다. 하건만 너무 흥분한탓인지 입술 한쪽언저리가 일그러질뿐이다. 두 눈길이 불꽃을 튕기며 허공에서 비수처럼 맞부딪쳤다.

오이시는 입술을 비틀어 조소의 빛을 한껏 드러내보이며 지껄였다.

《참 인연이란게 야릇하거던. 어제날엔 내 부친이 네 애비를 끌장내더니 오늘은 또 네놈이 내 손에 붙잡혀 끌장나는구나. 킥킥… 아마 넌 지금 날 쳐죽이고싶을테지. 그렇지만 어쩌겠어. 칼자루쥔 사람을 못당하는게 피치 못할 세상리치인데야. 참말이지 너 같은것들을 볼 때면 가긍한 생각이 다 든다. 벽에 붙은 빈대같이 고립무원한것들이 뭐 독립을 이뤄보겠다구? 흥, 대일본제국은 지금 상승일로야. 일찌기 청국과 로씨야를 제끼고 지금은 광활한 만주와 씨비리까지 넘겨다보는 판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독립이니 뭐니 하는 멍청한 믿음을 지닐수 있는지 리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다. 옛날에 현자도 여세추이라고 했어. 세상이 변하는데 따라 변해야지 백이숙제처럼 고사리를 뜯어먹다가 굶어죽는다고 누가 꿈쩍이나 할것같애? 애당초 조선인들한텐 민족자결을 할 능력이 없어. 따라서 설사 독립을 선사받는댔자 자치할 능력도 없구. 반도의 조선인들이 살길은 오로지 하나, <천황>페하의 백성이 되여 일본에 순종하고 내지와 영욕을 같이하는외엔 딴 도리가 없단 말이다. …》

《개소리말아!》

현무의 입에서 터져나온 사나운 웨침이였다. 불길같은 증오를 짓씹으며 그는 가슴속에서 끓는 분노를 쏟아놓았다.

《너 같은 반쪽발이들이나 <천황>의 백성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거라! 난 조선사람이다! 죽으면 죽었지 왜놈의 발바닥을 핥으며 살진 않겠다!》

놈을 노려보는 현무의 눈망울이 불덩이처럼 이글거리고있었다.

오이시의 낯이 검붉어졌다. 놈은 코딱지같은 쪼막수염을 파르르 떨며 씨벌여댔다.

《내 부친의 말이 천백번 옳다. 네놈같은 후떼이센징(불령선인)들은 빈대잡듯 씨도 없이 박멸해치워야 하구말구.》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서리찬 독기를 풍기며 뇌까리는것이였다.

《네놈을 <치안유지법>에 따라 체포하겠다.》

김현무의 얼굴에 비통한 빛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피맺힌 원한이 서린 옥새를, 칠성삼촌이 숨을 거두며 부탁한 옥새를 끝내 되찾지 못했다는 죄스러움에 가슴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았다.

불현듯 무서운 비애가 현무의 목을 내리눌렀다. 그는 마음속으로 통절히 부르짖었다.

과연 그날은 언제일가? 우리 조선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여 당당히 머리를 쳐들고 살 그날은, 조선사람모두에게 한없는 긍지를 주고 힘을 줄 강대하고 존엄높은 나라가 이 땅에 설 그날은 과연 언제일가?…

그것은 모든 아픔을 잊게 하는 꿈이였다. 망국노로 천대당하고 약소민족으로 멸시당하는 조선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지열처럼 간직되여있는 고통스러운 갈망이였고 몸부림이였다.

밖에서는 음울한 소리를 내며 가을비가 내리고있었다.

종 장

1950년 7월 창덕궁

망국노의 암담한 시절 그리도 찾아헤매던 고종황제의 옥새를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에서 보게 될줄이야 김현무가 어찌 꿈엔들 생각이나 할수 있었으랴.

1950년 7월이였다. 당시 공화국의 문화유물보존부문 일군으로 있던 김현무는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조선봉건왕조실록》을 구출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력사학자들과 함께 해방된 서울에 나가 사업하고있었다.

그러던 그는 조선봉건왕조의 마지막황후였던 윤씨가 북에서 온 문화유물보존부문 일군을 만나고싶어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였다. 뜻밖의 일이 아닐수 없었다. 준엄한 전쟁이 벌어지고있는 이 시각 사람들의 기억속에서조차 희미해진 옛 왕조의 안주인이 무슨 일로 공화국의 한 일군을 만나려는것인가?…

미제침략자들의 폭격만행으로 언제 불타버릴지 모를 위험에 처했던 방대한 량의 실록을 구출하여 북으로 실어보내고난 다음날 김현무는 윤씨가 거처하고있는 창덕궁 락선재로 찾아갔다.

서쪽하늘에 불깃한 노을이 길게 비낀 해질무렵이였다. 락선재의 입구에 이르니 오래된 회화나무 한그루가 석양을 이고 서있었다. 파란만장의 왕조사가 년륜에 새겨져있을 그 고목을 바라보니 종묘사직을 지켜내지 못한 죄책과 회한에 몸부림치며 덧없는 생을 살아왔을 집주인의 모습이 쓸쓸하게 안겨왔다.

얼마후 현무는 락선재의 어느한 방에서 순종의 안해 윤씨를 만났다. 윤씨는 이미 60을 바라보는 초로의 늙은이였다. 때이르게 서리가 내린 귀밑머리, 하많은 사연이 서려있는 애연한 눈빛, 주름진 얼굴에 어른거리는 고독의 그늘… 어디라 할것없이 세월의 모진 풍상이 화석처럼 새겨져있는 모습이였다.

현무가 문안인사와 함께 자기소개를 하자 윤씨는 한번 꼭 만났으면 했다며 은근히 반가와했다. 그리고는 앉아서 좀 기다려달라고 이르고는 방에서 나가더니 한참만에야 무엇인지 누런 비단보에 싼 물건을 조심히 들고 다시 들어오는것이였다.

현무가 영문을 몰라하는데 윤씨는 말없이 손에 든 물건을 앞에 내놓고 비단보를 풀기 시작했다. 비단보를 헤치니 붉은 돌을 다듬어 만든 자그마한 함이 나타났다. 윤씨가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어보인다.

다음순간 현무는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천만뜻밖에도 거북모양의 손잡이가 붙은 황금빛도장이 함안에 들어있는것이 아닌가. 굳어진 현무의 눈길이 도장에 붙박힌채 움직일줄 모르는데 윤씨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인장은 내가 일본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간수해온 고종황제의 비밀옥새라오.》

그만에야 현무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고종황제의 비밀옥새라니? 그러니 바로 이 옥새가 젊은 시절에 자기가 그토록 찾던 황제어새란 말인가?… 하지만 그 옥새야 20여년전에 윤씨가 아버지한테 넘겨주지 않았던가?…

현무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어 윤씨에게 물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황제어새야 이미전에 왜놈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윤씨의 얼굴에 다소 의아해하는 빛이 떠올랐다. 초면의 상대가 황제어새에 얽힌 사연을 어지간히 알고있을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윽고 윤씨는 천천히 도리머리를 저으며 대답하는것이였다.

《아니요. 왜인들의 손에 들어간 옥새는 가짜였소.》

가짜라니?!… 현무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러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던 윤씨가 옥새의 밑면을 들어보였다. 정사각형의 밑면에 한자로 《황제어새》라고 새겨진 글자들이 또렷이 안겨왔다. 윤씨의 설명이 뒤를 이었다.

《이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시오. 원래 황(皇)자는 백(白)자와 왕(王)자로 이루어졌는데 진짜옥새는 이렇게 황(皇)자의 백(白)자대신에 자(自)자를 새겨넣었소. 허나 왜인들의 손에 들어간 가짜옥새에는

황(皇)자의 백(白)자가 그대로 새겨져있다오.》

현무가 유심히 옥새의 밑면을 눈여겨보니 아닌게 아니라 윤씨의 말 그대로였다. 한즉 진짜 황제어새는 지금껏 윤씨가 감쪽같이 감춰두고있었단 말인가?!…

놀라운 사실앞에 현무가 할 말을 찾지 못하는데 윤씨는 흘러간 세월을 물끄러미 돌이켜보듯 혼자말처럼 뇌이는것이였다.

《보아하니 선생은 이 옥새에 대해 많은걸 알고있는것같구만. 옳소. 고종황제의 비밀옥새가 내게 있다는걸 눈치챈 왜인들은 눈에 모를 세우고 날 감시했소. 거기에다가 빚에 몰리던 나의 부친도 빚막이를 하게 황제어새를 넘겨달라고 무척이나 성화를 먹였더랬고. 허지만 아무리 부녀지간이라한들 선황의 통절한 당부가 담긴 왕조의 마지막 옥새를 어찌 방탕한 부친의 빚바라지로 내줄수 있겠소. 나는 로심초사해서 내밀히 가짜옥새를 하나 만들게 하고 그것을 부친에게 넘겨주었다오. 황제어새에 쏠리는 왜인들의 독스러운 눈초리를 따돌리고 부친의 핍박에서 벗어나자고 말이요. 그리되여 왜인들의 손에는 가짜옥새가 들어가게 되고 진짜옥새는 세상이 모르게 내가 간수할수 있게 된것이요. …》

현무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윤씨를 바라보았다. 비록 무너진 황실의 한사람으로서 무겁고도 치욕스러운 망국죄인의 오명을 쓰고 살아오면서도, 왜놈들의 살벌한 감시를 받으며 포로마냥 속절없이 갇혀사는 속에서도 한가닥의 민족적량심만은 끝까지 저버리지 않은 윤씨에 대해 동정의 마음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후련한 생각도 들었다. 그때 간활무쌍한 왜놈들의 간계에 넘어가 종내 황제어새를 찾지 못하고 얼마나 통분해했던가.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울분이 가슴속에 응혈로 맺혀있었는데 윤씨의 이야기를 듣고나니 현무는 해묵은 체증이 조금이나마 꺼져내리는것같았다. 결국 제아무리 간특한 왜놈들일지라도 조선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애국의 넋을 끝끝내 당해내지 못한것이다.

현무가 가슴을 들먹이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윤씨는 해가 지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옥새를 볼 때면 망국의 한이 서린 선황의 절통한 눈빛이 아프게 떠오르군 하오. 구천에 가서도 복국의 날을 학수고대하며 눈을

감지 못하셨을 그 통한이 가슴에 사무쳐오군 하오. 하기에 왜인들의 손아귀에 명줄을 잡힌채 굴욕의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선황께서 맡기고 가신 이 옥새만은 한사코 붙안고있었소. 마루밑에도 볕들 때가 있다고 그 언젠가는 허물어진 사직을 다시 일으켜세우기 위해 이 옥새를 쓸 날이 꼭 오리라는 실낱같은 미련을 품고서 말이요. 허나 흘러가버린 물은 방아를 돌리지 못한다고 누구도 이 옥새를 다시 찾는 사람은 없더구만. 허허…》

윤씨는 공허한 웃음을 짓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해방후 양녕대군(조선봉건왕조의 3대왕 태종의 맏아들)의 후손이라 자처하던 리승만이 여러 차례 나한테 사람을 보내 옛 왕조의 옥새를 넘겨달라고 요구해왔더랬소. 허지만 나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소. 한것은 리승만이 자기의 정치적야망에서 옛 황실의 사람들을 이모저모로 괴롭힌때문만이 아니요. 미국을 상전으로 섬기면서 조상이 물려준 이 땅을 꺼리낌없이 두동강내려 하고 어제날의 친일경찰들을 풀어 백성을 파리잡듯하는 리승만<정권>의 행실에서 나는 과거의 구왕조를 다시 보았소. 우리는 남의 나라 공사관에 얹혀서 곁방살이를 하다가 망국을 했소. 제힘으로 살려는 노력이 없이 남의 등에 얹혀 지내려다가 망국을 했고 자기 백성들을 믿을 대신 큰 나라들만 신주믿듯하다가 망국을 했소. 헌데도 또 그 본새를 좇아 망국을 할 잡도리니 기막힌 일이 아니요. 나는 리승만 같은 사람들은 결코 새 나라의 주인이 되여서는 안된다는걸 깨달았소.》

윤씨의 목소리에서 준절한 기운이 풍겨왔다. 현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표시했다.

해방후 5년동안 남조선에 펼쳐졌던 광경들이 그의 눈앞에 먹구름마냥 흘러갔다. 총독부건물에 일장기대신 거만스레 펄럭거리던 성조기, 반공의 이름으로 면죄받고 리승만《정권》에 똬리를 튼 친일세력들, 친일파청산을 웨치다가 되려 친일파에 의해 청산당한 왕년의 독립운동자들, 치솟는 물가와 기근, 망국적인 《단선단정》조작책동, 온 남녘땅에 활화산처럼 터져오른 항쟁의 불길, 몸서리치는 살륙만행과 피의 곡성들…

미군이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 땅에 상륙한 때로부터, 위정자들이 뿌리없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에 명줄을

걸고 민족반역자들을 대거등용할 때부터 남쪽의 력사는 뒤틀리기 시작했다. 일본을 대신하여 미국이 종주국행세를 하고 동족을 울리던 친일파들이 친미파로 변신하여 또다시 지배층으로 군림하면서 겨레의 존엄과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말았거늘 실로 천만지당한 윤씨의 말이였다.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던 윤씨는 초불처럼 고요히 타오르는 눈빛으로 현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것이 아닌가.

《선생, 오늘 이렇게 선생을 만나고저 한것은 이 황제어새를 평양으로 보내고싶어서였소.》

《예?!…》

현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여나온 소리였다. 황제어새를 평양으로?!… 너무도 느닷없는 윤씨의 제의인지라 얼떠름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지난날에는 이 옥새가 국권을 상징하고 임금의 권위와 정통을 상징하는 증표였지만 오늘날에는 한낱 서글픈 과거의 잔해에 불과할따름이였다. 그렇다고 해도 황제어새는 고종황제가 윤씨에게 맡긴 유품이 아닌가. 현무는 깊은 생각끝에 윤씨에게 권유했다.

《고종황제의 마지막옥새인 이 황제어새는 가문에서 가보로 간수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윤씨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말하는것이였다.

《나는 하루이틀새에 이런 결심을 한게 아니요. 천사만고끝에 말을 꺼내는거라오. … 해방후 언젠가 나는 한 정객으로부터 평양을 찾아갔던 김구선생이 **김일성**장군님의 풍모에 매혹되여 상해림시정부의 인장을 내놓았지만 장군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저 인민대중의 두터운 신임이 있으면 된다고 하시며 사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소. 그때 내가 받은 충격을 어떻게 형용하면 좋을지 모르겠소. 동서고금을 둘러보면 임금이 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옥새부터 차지하려고 하였소. 하건만 장군님께서는 옥새가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을 첫자리에 놓으시니 과연 그런 위인이 이 하늘아래 언제 있어봤는가 말이요. 장군님께서 이북땅에 펼치시는 정사를 바라보며 나는 머리를 끄덕이군 했소. 정녕 그이께서 내놓으시는 시책들은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우리 겨레들의 숙망을 담고있었소. 남쪽에서는 길바닥의 잡

초처럼 짓밟히는 백성들이 북쪽에서는 주인으로 떠받들리고있었고 이 땅에서 외세에 의해 만신창이 된 민족의 자존심이 그곳에서는 창공만리에 닿고있었소. 조선사람을 렬등인취급하던 미국인들이 장군님의 군대에 쫓겨 패주를 거듭하는걸 보면서 그리고 전장에 나가는 포차들까지 돌려 옛 왕조의 실록을 안전한 곳으로 소개시키는걸 보면서 나는 장군님의 정치야말로 기나긴 세월 업수임당해온 조선민족을 세상에 우뚝 세워주는 정치이고 참된 애국애족의 정치라는걸 이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소. …》

윤씨의 말이 현무의 피를 끓게 했다. 삼천리 방방곡곡의 마음과 마음들이 그이께로 달려가고있었다. 이 땅의 만백성들이 진심으로 따르는 품, 이 나라의 의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명을 맡기고 싶어하는 그 품이야말로 진정 온 겨레가 안겨살 위대한 태양의 품이 아니랴.

현무의 심장이 줄기차게 피를 내뿜으며 고동치는데 윤씨는 다시금 황제어새에로 눈길을 돌리며 뇌인다.

《이 옥새에는 선황의 무수한 한숨과 눈물이 슴배여있소. 남에게 청원하고 애원하느라 이 옥새를 찍었고 약소국의 설음을 하소연하느라 황제어새를 찍었소. 단 한번만이라도 이 옥새에 나라의 존엄과 힘을 당당히 실어 찍어보는게 아마도 우리 고종황제의 절절한 소망이였을거요. …》

이런 말을 하는 윤씨의 눈밑에는 슬픈 그늘이 어려있었다. 윤씨는 흩어졌던 눈길을 다시 모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전에 왜인들은 조선사람들을 가리켜 사대근성이 강한 족속이라고 곧잘 비웃군 했소. 허나 오늘날 조선민족의 존엄을 천하에 떨쳐가시는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를 목격하면서 그리고 장군님을 따라 새 나라를 지켜 미국과도 당당히 맞서싸우는 백성들의 놀라운 힘을 보면서 나는 분명히 깨달았소. 사대는 조선사람들의 근성인것이 아니라 제 백성을 외면한채 권세를 부지하는데만 집착해온 량반사대부들의 근성이였고 처세술이였다는것을 말이요. 위인을 만나면 나라도 백성도 기세당당해진다는것을 말이요. 참으로 백의민족의 앞길에 대통운이 텄소.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설음많고 한숨많던 우리 겨레를 구원해주실 대성인이심이 틀림없소. …》

윤씨의 두눈에 흥분의 물기가 어려있었다. 현무도 뜨거운것이 누를길 없는 힘으로 목에 차오르는것을 느끼며 윤씨의 말을 듣고있었다.

《서럽고 부끄러운 옛일들도 자손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력사가 아니겠소. 우리 겨레의 새날이 밝아온 평양에 사대와 망국의 락인만을 찍었던 이 옥새를 보내여 후손들을 가르치게 한다면 지하에 계시는 고종황제나 순종황제도 과히 나를 탓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오. 그러니 선생, 간청컨대 이 늙은이의 부탁을 들어주기 바라오.》

모아잡은 윤씨의 두손이 간절해보였다. 김현무는 심혼을 뒤흔드는 충격에 눈구석이 젖어드는것을 느끼며 앞에 놓여있는 황제어새를 바라보았다.

애국에 피끓던 아버지의 숨결이 서린 옥새였다. 칠성삼촌의 절통한 원혼이 서린 옥새였다. 왜적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내댔건만 나라와 겨레를 위한 바른길을 찾지 못해 어둠속을 헤매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들이였다.

무참히 짓밟히는 겨레의 존엄을 두고 가슴치며, 망국노의 비참한 신세를 통탄하며 구천에서도 눈을 감지 못했을 그들이 오늘날 이 땅우에 도도히 사품치는 자주의 대하를 본다면 땅속에서도 기쁨에 겨워 자리를 차고 일어나리라. 그리고 환희에 넘쳐 웨치리라.

이제야 백의민족이 참다운 위인을 만났다고. 이제야 조선사람들이 당당히 머리를 쳐들게 되였다고.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의 력사는 자주와 사대의 대결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내우외환이 그칠새 없던 고종의 시대만 보아도 그렇지 않은가.

시초부터 사대굴종사상의 노예가 되여 자주성과 자존심을 잃어버린 조선봉건왕조는 고종의 대에 이르러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고종황제는 거꾸러지는 사직을 지탱하기 위해 갈팡질팡하였다. 개화와 수구사이를 시계추처럼 오락가락했고 큰 나라들을 번갈아 업어가며 사대외교로 일관했다.

그러나 국력이, 더우기 군사력이 뒤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허황한 것이였으니 외세의 거듭된 침노로 국토와 백성은 유린되였고 굴욕적인 불평등조약들이 련이어 체결되였다.

부패한 관리들과 왜놈들을 저주하며 군인폭동이 일어났고 《척왜

척양》을 부르짖으며 농민군이 봉기했다. 하지만 고종은 외세를 끌어들여 백성들을 진압하면서 초라한 옥좌를 지키는데만 급급하였다. 결국 외세는 더욱더 오만해지고 조선은 렬강들의 각축장으로 화해버렸다.

아무리 고종이 넌호를 뜯어고친다, 황제로 즉위한다 하며 모지름을 썼건만 사대의 수렁속에 깊숙이 빠진 나라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져있었다. 외세의 손길은 궁중에까지 뻗쳐 국모가 백주에 참살을 당했고 나중에는 고종황제자신도 망국의 피눈물을 흘리며 빈자리를 지키다 쫓겨나고말았거늘 자주권을 고수할 때 나라와 민족은 강대하고 번영하지만 자주권을 포기하면 쇠퇴하고 몰락한다는 력사의 철리를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가 어디에 있겠는가.

사대와 굴종은 망국의 길이라는 민족만대의 교훈이 가슴을 쳐왔다. 절세의 위인께서 안겨주신 민족자주의 위대한 진리가 심장에 굽이쳐흘렀다.

김현무는 바위기슭을 들부시는 파도소리마냥 온몸의 피가 사품치는 소리를 들으며 이윽토록 옥새를 바라보고있었다. …

파란많던 민족수난사가 비낀 고종황제의 옥새는 그러한 사연을 안고 평양으로 들어오게 되였다.

장편소설

풍운의 옥새

(제3부)

저 자 장수봉
편 집 성문호 편 성 김일미
장 정 리성일 교 정 주설미

낸 곳 평양출판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12(2023)년 9월 10일
발 행 주체112(2023)년 9월 13일

ㄱ-1623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2023, DPR Korea
ISBN 978-9946-31-177-7

ISBN 978-9946-31-177-7